



제4회 Bernard Wonkil Lee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
The 4th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결혼과 출산

Marriage and Procreation

일시_ 2014. 10. 2 (목) 09:30~17:00

장소_ 가톨릭대학교 International Hub 컨퍼런스룸 (IH366)

주최_ 가톨릭대학교

Date_ Oct. 2 (Thur) 09:30~17:00

Venue_ Conference Room (IH366) International Hub

Host_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목 차

- 04 **초대의 말씀** | 박영식 총장 (가톨릭대)
- 06 **축 사** | 박신언 몬시뇰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상임이사)
- 10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의 배경**
- 12 **Bernard Wonkil Lee의 생애**
- 16 **프로그램**
- 19 **Session 1**
 - 사회자 | 심영숙 교수 (가톨릭대 영어영미문화전공)
 - 기조연설 | 이덕선 회장 (Allied Technology Group), “Bernard Wonkil Lee 소개”
 - 기조연설 | 이덕효 신부 (워싱턴 대교구), “Fecundity in Marriage”
 - 기조연설 | John Garvey 총장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The Changing American Family”
- 93 **Session 2**
 - 사회자 | 정윤경 교수 (가톨릭대 심리학전공)
 - 발 표 | 진교훈 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혼인과 출산에 대한 성찰”
 - 토론자 | 이미숙 교수 (가톨릭대 아동학전공)
- 113 **Session 3 --- 인간학연구소 심포지엄**
 - 사회자 | 최선경 교수 (가톨릭대 ELP학부대학)
 - 개회사 | 조정환 교수 (가톨릭대 ELP학부대학장)
 - 발표 1 | 이인국 교수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혼인과 출산 : 그리스도교 윤리와 성 (性)”
 - 토론 1 | 최진일 전문연구위원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 발표 2 | 김지영 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비교한국학 연구센터), “조선 후기 왕실 여성의 저출산과 유교적 생활세계 ”
 - 토론 2 | 이왕무 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 발표 3 | 한금윤 박사 (연세대 학부대학) “88만원 세대의 사랑과 결혼 문화 분석”
 - 토론 3 | 이현주 박사 (한세대 교양학부)
- 211 **Session 4 --- 학생참여 프로그램**
 - 사회자 | 구분만 교수 (가톨릭대 ELP학부대학)
- 213 **향후 10년 포럼 주제 및 내용**

| Contents

- 04 **Message from the President** | Rev. Yeongsik Pahk (President, CUK)
- 06 **Congratulatory Remarks** | Msgr. Raphael Park (Executive Trustee, Catholic Education Foundation)
- 10 **The Background of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 12 **The Life of Bernard Wonkil Lee**
- 16 **Program**
- 19 **Session 1**
MC | Prof. Youngsook Shim (English Language & Culture, CUK)
Keynoters | Dr. Matthew Lee (Chairman, Allied Technology Group)
 | “Introducing Bernard Wonkil Lee”
 | Rev. Paul Lee (Archdiocese of Washington D.C.), “Fecundity in Marriage”
 | Prof. John H. Garvey (President, CUA), “The Changing American Family”
- 93 **Session 2**
MC | Prof. Yoonkyung Jeong (Psychology, CUK)
Presenter | Emeritus Prof. Kyohun Chin (Seoul National University)
 | “A Reflection on Marriage and Procreation”
Discussant | Prof. Misook Lee (Child and Family Studies, CUK)
- 113 **Session 3 --- Symposium hosted by Research Institute of Anthropology**
Moderator | Prof. Seonkyung Choi (The ELP College, CUK)
Opening Address | Rev. Jeonghwan Cho (Dean of The ELP College, CUK)
Presenter 1 | Prof. Paul Inkook Lee (Graduate School for Life, CUK),
 | “Marriage and Procreation : Christian Ethics and Human Sexuality”
Discussant | Senior Researcher Jinil Choi (The Catholic Institute Bioethics)
Presenter 2 | Prof. Jiyoung Kim (Center for Comparative Korea Research, AKS),
 | “Low Birthrate and Confucian Lifestyle of the Royal Women in Joseon Dynasty”
Discussant | Researcher Wangmoo Lee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Presenter 3 | Dr. Keumyoun Han (College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 “Culture of Love and Marriage in the 880,000 Won Generation”
Discussant | Dr. Hyunju Lee (Hansei University)
- 211 **Session 4 --- Student Participation Program**
MC | Rev. Bonman Koo (The ELP College, CUK)
- 213 **Themes of the Forum**

| 초대 말씀



“제4회 이원길(Bernard Wonkil Lee)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톨릭 정신에 따라 평생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한 이원길 선생의 영성과 유훈을 기리고자 2011년에 시작된 본 포럼은 국내외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가톨릭 인본주의에 관한 사상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결혼과 출산”입니다.

포럼과 아울러 “제2회 이원길 가톨릭 인본주의 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이 상(賞)은 이원길 선생이 실천한 가톨릭 정신을 사회 안에 확산,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포럼 주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모범적 삶을 사는 분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학문적 심층 논의를 위하여 포럼은 4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제1부의 기조 강연으로 미국 가톨릭대학교 존 가비 총장의 “변화하는 미국 가정”과 미국 워싱턴대교구 성 유다 성당 이덕효 신부의 “결혼에서의 출산”이 발표될 것입니다. 제2부에서는 진교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혼인과 출산에 대한 성찰”이 발표되고, 제3부에서는 포럼 주제와 관련된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교수들의 심포지엄이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제4부는 가톨릭대학생 토론대회와 외국인 대학생 연설대회,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등 참신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 올바른 가치관을 진지하게 모색할 교류의 장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최근 현실에 비추어, “결혼과 출산”의 진정한 의미를 심도 있게 고찰하는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뜻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간 존중의 대학’을 추구하는 가톨릭대학교는 이를 계기로 지성, 인성, 영성을 고루 갖춘 윤리적 인재를 양성하는 밑거름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본 포럼을 통해 가톨릭 인본주의 정신과 그에 따른 삶이 널리 전파되어, 더불어 사는 생명 존중과 공공선을 추구하는 바람직한 사회상이 형성되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가톨릭대학교 총장 박영식 신부

박영식



| Message from the President

On behalf of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 am delighted to invite you to the 4th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The Forum, which launched in 2011 to honor the noble spirit and faith espoused by the late Bernard Wonkil Lee, offers opportunities for renowned guests from home and abroad to exchange insights and experiences regarding Catholic humanism. The theme for this year's forum is "Marriage and Procreation."

Together with the Forum, the *Bernard Wonkil Lee Catholic Humanism Award* will be presented. The award was established to spread and promote in our society the spirit of Catholicism, the kind practiced by Bernard Wonkil Lee. It recognizes individuals leading an exemplary life in areas related to the theme of the Forum.

For in-depth discussions, a total of four sessions are organized around this year's theme. The first session is devoted to keynote speeches including "The Changing American Family" by Professor John Garvey, President of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and "Fecundity in Marriage" by Fr. Paul Dukhyo Lee of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D.C. In the second session, Emeritus Professor Chin Kyohu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will deliver a speech titled "A Reflection on Marriage and Procreation," and the third session presents a symposium organized by the CUK's Research Institute of Anthropology. Finally, the fourth session will predominantly involve students' active participation in events including the CUK student debate, a Korean speech contest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an awards ceremony for the "idea contest," all of which will provide a forum where students exchange novel ideas and cultivate ethical val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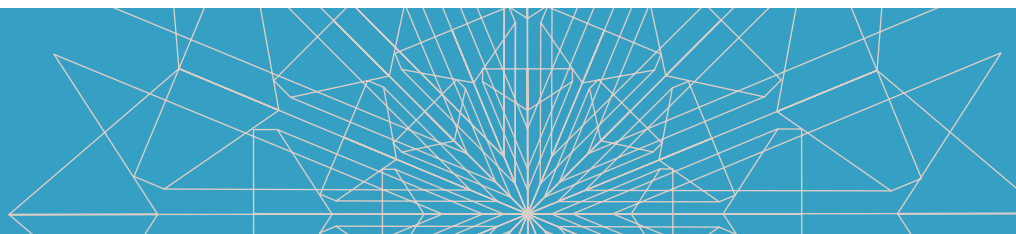
Particularly in modern society where families are facing serious challenges, the aim of the Forum is to offer valuable guidance for the future of our society and mankind through profound reflections on the true meaning of "Marriage and Procreation." Building on this momentum,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 fulfillment of its founding philosophy of 'A university with respect for human dignity,' will make greater efforts to define and foster the ideal member of society equipped with intelligence, decency and spirituality. I sincerely hope that this forum will contribute to the spread of Catholic humanism and also to the creation of a better society pursuing respect for life and the common good. Thank you for your support and participation.

September, 2014

Fr. Johan Yeongsik Pakh, S.S.D

President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축 사



찬미 예수님!

가톨릭대학교에서 ‘제4회 버나드 원길 리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미국 가톨릭대학교(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총장인 존 가비(John Garvey) 교수님, 미국 워싱턴 교구 성 유다 쉬라인 주임이신 이덕효 신부님, 그리고 서울대학교 진교훈 명예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포럼을 개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덕선 회장님과 이덕형 회장님 및 그 가족들께 감사드리며, 다른 모든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가정 공동체 안에서의 ‘결혼과 출산’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이란 주제만 큼 중요하게 거론된 주제도 없었던 듯합니다. 2012년 우리나라 이혼 부부는 11만 4,300여 쌍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 1위를 차지했고, 20년 이상의 황혼이혼은 25%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2013년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1.18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반영한 듯 2,30대 젊은이는 연애와 결혼, 출산까지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두고 ‘삼포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복잡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가톨릭 사상에서 볼 때, 하느님께서 ‘결혼과 출산’을 통해 올바른 가정을 이루도록 인간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셨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은 이러한 소명의 의미조차 잊어버린 듯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故)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처럼 인간 존재의 의미, 삶의 의미는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는 결혼, 곧 혼인(婚姻)에 관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창세 1,27)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창세 2,24) 이처럼 사람이 하

| 축 사

느님께로부터 존재론적으로 부여받은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과 관련해서 가톨릭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혼인의 '단일성'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일부다처제와 일처다부제는 이에 맞지 않으며 중혼이나 축첩은 혼인의 신성함을 모독하는 행위로 여깁니다. 또한 혼인의 '불가해소성'은 하느님 앞에서 혼인서약을 하고 합법적으로 부부가 된 '완결된 혼인'은 어떤 이유에서든 두 사람이 헤어질 수 없음을 전제합니다. 다시 말해,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어떤 권한이나 의사로도 혼인의 계약을 풀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소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혼인은 성사(聖事)인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은 "만물의 창조주께서 부부 공동체를 인간 사회의 원천과 기초로 삼으시고, 또 당신 은총으로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큰 성사가 되게 하셨다."(『평신도 교령』11항)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혼인으로 맺어진 부부는 사랑으로 생명을 향한 봉사, 곧 자녀를 출산하고 교육을 시켜야 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사랑 속에서 태어난 자녀는 참으로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장 뛰어난 선물이며, 부모를 행복에 이르게 하는 존재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가정의 기본 임무는 생명에 봉사하는 것, 즉 창조주의 축복을 역사 안에서 실현하는 것으로 출산을 통해 하느님 모상을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달하는 것'(참조:『가정 공동체』28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가운데 부부는 자신들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부부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 더 많은 사람을 체험하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동안 한국 사회는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신념들이 힘을 잃어가면서 점차 혼인과 출산을 '선택 사항'으로 여기는 경향이 짙어졌습니다. 혼인의 유대는 인간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맺고 풀 수 있다고 여겨, 혼인하지 않은 채 동거하거나 이혼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가정 해체 현상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자녀 양육과 교육, 노부모 봉양 등의 문제와도 맞물려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가톨릭 교회는 보다 근본적 해답을 모색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문헌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가톨릭 교회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그것을 복음의 빛으로 해명할 의무'(참조:『사목 헌장』4항;『민족들의 발전』13항)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 개최되는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이 복음의 빛으로 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리라 봅니다.

앞으로도 이 포럼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 존재의 참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인본주의를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 더욱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포럼에 참가하시는 모든 분께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14년 10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상임이사
박신언 몬시뇰



Congratulatory Address

Glory be to Jesus!

I would like to extend my warmest congratulations on the occasion of the 4th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hosted b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First of all, I wish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speakers at this year's forum;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thank Prof. John Garvey, President of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Fr. Paul D. Lee of the Shrine of St. Jude, Archdiocese of Washington D.C., and Prof. Chin Kyohu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My sincere appreciation is also extended to Chairperson Matthew Duksun Lee, Chairperson Mark Dukhyung Lee, and their families for their generous support, as well as to all presenters and discussants at the forum.

The theme of this year's forum is Marriage and Procreation within the family community. Marriage and Procreation has become an imperative subject of discussion in society today. In 2012, the divorce rate in Korea ranked highest among all OECD countries with some 114,300 divorce cases being filed and 25% of them being 'gray divorces' of couples married for over 20 years. According to the National Statistics Office, Korea's total fertility rate in 2013 was 1.18 persons; the lowest among OECD countries. The current social situation has contributed to the rise of the so-called "Sampo Generation," a newly termed expression to describe young people in their 20s and 30s who choose to renounce relationships, marriage, and childbirth.

These instances aptly illustrate complex challenges facing Korean society today. In light of the Catholic philosophy, we have been given the divine vocation to form a family through marriage and procreation, but it is very unfortunate that we often overlook the significance of the vocation. As the late Cardinal Stephen Kim Sou-hwan said, humanity and life can only properly be understood in a relationship with God.

God's intent for marriage can be found in the Book of Genesis: "God created mankind in his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them;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Genesis, 1:27). "That is why a man leaves his father and mother and clings to his wife, and the two of them become one body" (Genesis, 2:24). As described in these verses, marriage is something that is ontologically endowed upon us by God. The Catholic Church, following Christ's teaching, places special emphasis on two properties of marriage: unity and indissolubility.

By the unity of marriage the Catholic Church understands marriage as the exclusive relationship between a man and a woman. Polygyny and polyandry are not permitted, and bigamy and concubinage are considered blasphemy. Indissolubility means that a marriage of a couple who have pledged themselves

| Congratulatory Address

to each other before God cannot dissolve the holy matrimony for any reason. In other words, married couples cannot dissolve the covenant of marriage by their own will or by any other authority while their spouse is still living. Marriage is a sacrament in that it cannot be dissolved by humans. Documenta Concilii Vaticani II states, "Since the Creator of all things has established conjugal society as the beginning and basis of human society and, by His grace, has made it a great mystery in Christ and the Church" (Apostolicam Actuositatem, §11).

Married couples are called to serve life through procreation and education of children. A child created in love is the supreme gift of marriage bringing parents true happiness. Pope John Paul II said, "Thus the fundamental task of the family is to serve life, to actualize in history the original blessing of the Creator—that of transmitting by procreation the divine image from person to person" (Familiaris Consortio, §28). Married couples, while procreating and raising children, reach beyond themselves to serve the greater good of the community to ultimately enjoy the true comfort and true happiness that God has granted us.

In conjunction with the weakening of religious faith and changing social beliefs in Korean society, there is a growing tendency to regard marriage and procreation an 'option.' Also, due to the misguided belief that the bond of marriage can be dissolved by humans, the number of couples who divorce or cohabitate without getting married has increased. This, as you are well aware, prompts family dissolution, which in turn leads to serious social problems involving rearing and educating children and supporting elderly parents.

The Catholic Church should recognize these problems and seek fundamental solutions because "the Catholic Church has the duty of scrutinizing the signs of the times and of interpreting them in the light of the Gospel" (Gaudium et Spes, §4; Populorum Progressio, §13). In this regard, I firmly believe that th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being held today will play a pivotal role in scrutinizing societal problems in the light of the Gospel.

It is my sincere hope that the forum offers precious opportunities to reflect on the true meaning of human dignity and human existence, and further serves as a stepping stone for Catholic humanism to be firmly established in society. May God's blessings and love be with all those who participate in this forum. Thank you.

October, 2014
Msgr. Raphael Park
Executive Trustee
The Catholic Education Foundation



포럼의 배경

2009년 9월 미국 워싱턴에 거주하는 교포 기업가 이덕선·이덕형 형제는 본 대학의 발전기금을 기부하였다. 미국에서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이들 형제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아버지 Bernard Wonkil Lee를 꼽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들 형제는 아버지 Bernard Wonkil Lee는 하느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에 따라 가톨릭 성가정을 이루어 간 분으로 회고하고 있다. 적극적인 사고와 믿음, 나아가 사람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마음깊이 간직할 채 삶을 매우 낙천적으로 이끌어간 존경할 인품의 소유자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Bernard Wonkil Lee 선생의 가톨릭 인본주의 정신은 우리 가톨릭 대학의 건학 이념인 진리와 사랑, 봉사의 정신과 일치한다. 그것은 진리와 정직, 사랑과 남에 대한 깊은 배려로 인생을 매우 뜻 깊게 살았던 고인의 철학과 상통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가톨릭대학교는 이덕선·이덕형 형제의 기부금을 받아 여기서 발생하는 과실을 재원으로 Bernard Wonkil Lee Fund를 구성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동 펀드에 기초하여 운영할 포럼을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이란 이름을 부여 하고, 그의 정신에 따라 가톨릭 인본주의 사상을 고취하고자 한다.

본 포럼을 개최하는 목적은 우리 사회에서의 상호 소통과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톨릭 정신에 따라서 영성·인성·지성을 고루 갖춘 대학인을 양성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가톨릭 인본주의의 실현에 기여함과 아울러 가톨릭대학교의 건학 이념을 지속적으로 실현하는데 있다. 그에 따라 이 포럼은 국내외의 저명인사의 초청 강연 및 학술행사로 이루어지는 국제적 행사로 운영하고자 한다.

따라서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은 "인간과 공동체"라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매년 개최할 것이다. 또한 향후 10년 동안의 주제 방향으로는 "공동체의 형성," "공동체의 발전," 그리고 "공동체와 책임" 등으로 설정하여 이런 정신을 더욱 심화시켜 가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은 Bernard Wonkil Lee 선생의 개인적인 철학과 사상을 깊이있게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나아가 가톨릭 인본주의 및 인간과 공동체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와 연구가 이루어지는 터전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The Background of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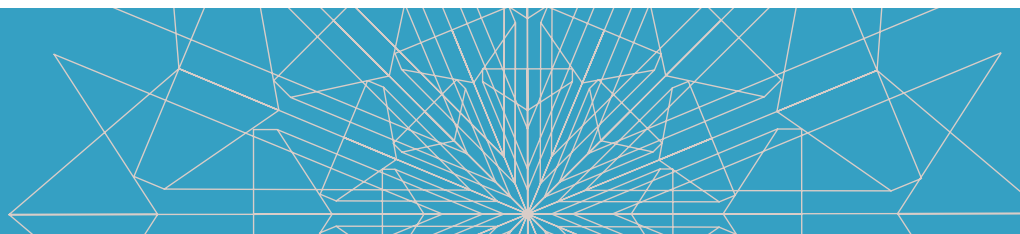
The background of the forum

Matthew Duksun Lee and Mark Dukhyung Lee, Washington D.C. based Korean-Americans, donated to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for its development in September 2009. The Lee brothers, as successful businessmen, do not hesitate to name Bernard Wonkil Lee, their father, as the most influential person in their lives. They recall their father was a man who strived to establish a holy Catholic family in the faith of God. Bernard Wonkil Lee was a respectable man who led an optimistic life with a proactive way of thinking, faith in God, trustfulness, and respect for people.

Catholic humanism upheld by Bernard Wonkil Lee is consistent with the founding ideology of our Catholic University: honesty, love, and service. In other words, the spirits of our university are what he believed in and the way he lived. In this regard,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ecided to form Bernard Wonkil Lee Fund based on the donation made by Matthew Duksun Lee and Mark Dukhyung Lee and its consequential profits. And the forum to be hosted by the support of this Fund shall be named the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hereafter referred as the BWL Forum). The forum shall become a venue for instilling the philosophy of Catholic humanism.

The purpose of the forum is to nurture college students equipped with spiritual power, personality, and intellect in the spirit of Catholicism. It is our hope that this will enhance mutual understanding and bond members of a community. In turn this will help to uphold the founding ideology of our university and eventually realize Catholic humanism in society. This forum shall be an international academic event, inviting renowned speakers from home and abroad.

The BWL Forum will be held every year under the general theme of "Mankind and Community." For the first 10 years, the directions of the discussions shall be "Formation of Community," "Development of Community," and "Community and Responsibility." As the forum proceeds, the discussions will be intensified and the forums will serve as a venue to look into the philosophy of Bernard Wonkil Lee and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Catholic humanism, mankind and community.



Bernard Wonkil Lee의 생애

베르나르도 이원길 옹의 생애

베르나르도 이원길 옹은 자기희생(self-sacrifice)과 자신을 남에게 베푸는(self-giving) 삶을 사신 분이다. 그는 매우 행복한 삶을 사셨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특히 정신적으로나 실질적인 면에서 개척자 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확고부동하고 깊은 가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미국 Maryland주 Gaithersburg에서 2001년 11월 4일 84세의 나이로 작고하였다.

큰 아들 이덕선 박사는 “적극적인 사고, 믿음, 그리고 소망”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가정 먼저 떠오르는 분이 아버지라고 이야기 하면서, 아버지 베르나르도 이원길 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저의 아버님께서서는 불치의 낙천가 이셨습니다. 그의 삶은 낙천주의, 적극적인 사고, 믿음, 그리고 희망의 전형적인 본보기였습니다. 항상 작든 크든 간에 모든 것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행복한 분이셨고 이 세상의 삶을 최대한으로 즐기며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는 현재의 순간을 즐겼습니다. 그는 가진 것에 대해 감사 드리고 그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결코 불평하지 않았으며, 참으로 진실하고 정직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바른 말과, 진솔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농부, 사냥꾼, 낚시꾼, 아마추어 엔터테이너, 그리고 준 의사였습니다. 그는 항상 꿈을 꾸는 개척자였으며, 무엇인가 일을 만들려고 하였으며, 그리고 리더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착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일생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우선 튼튼한 가톨릭 성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세계의 가톨릭 교회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향 동네의 문명을 퇴치시켰습니다. 그는 많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장만해 주었습니다. 그는 갯벌을 천수답으로 변경하여 수백 가정의 주민들에게 농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낙천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으며,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이러한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물건의 반이 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반이 차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남과 나누고 남에게 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 The Life of Bernard Wonkil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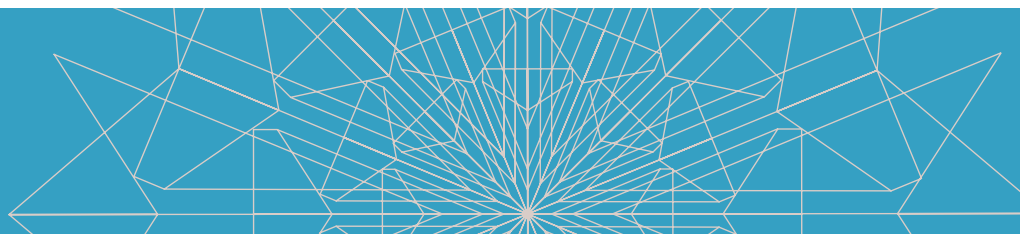
The Life of Bernard Wonkil Lee

Bernard Wonkil Lee lived a life of self-sacrifice and self-giving. He lived the life of a happy man, he was a positive thinker, and he was a pioneer in spirit and deeds. Above all else he was a man of deep, unshakable Catholic faith. He died on November 4, 2001 when he was 84 years old in Gaithersburg, Maryland.

His eldest son, Dr. Matthew Duksun Lee, says whenever he thinks about positive thinking, faith and hope, what comes to his mind first is his father. He remembers:

“My father was an incurable optimist. His life was the epitome of optimism, positive thinking, faith and hope. He found happiness in all things, small and large. My father was indeed a happy man who enjoyed his life on this earth to the fullest. He enjoyed the present. He appreciated what he had and never complained about what he didn't have. He was a person of impeccable integrity and honesty. He was never afraid to speak the truth and express his true feelings. He was a farmer, a hunter, a very good fisherman, an amateur entertainer and a paramedic among other things. He was a dreamer, a pioneer, a builder of all things and a leader. But above all else he was a man of faith.

My father had many accomplishments in his lifetime. He built a strong Catholic family. He built three Catholic communities. He eliminated illiteracy in our hometown. He fed the hungry. He created farmland for hundreds of people by converting tidal mud flats into rice paddies. How did he do all those things? It was possible because my father was an optimist and positive thinker, and he had faith in God. For him the cup was always half full, not half empty. His whole life was about faith. It was about sharing and giving. It was for other people not just for himself.



Bernard Wonkil Lee의 생애

베르나르도 이원길 옹의 생애

이러한 것들이 제가 보고 배운 아버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저는 행복하고, 인자하고,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양육된 것을 매우 운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룩한 모든 것들은 제가 받은 훌륭한 가정교육과 특히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님께서 저에게 제 삶의 기초가 된 매우 귀중한 가치들을 심어 주셨습니다. 저는 저의 아버님의 아들이 된 특권에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버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님께서 어떻게 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해서 계속 긍정적인 사람으로 살수 있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님께서 항상 남에게 잘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베르나르도 이원길 옹은 1917년 황해도 송화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황해도 여러 곳에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부친께서 돌아가셨는데, 8년 후 그가 16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연안 반도에 있는 갈인재라고 불리는 조그만 어촌 마을로 이사하였다.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은 1950년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고향을 탈출하여 강화군 교동도에서 1954년까지 3년을 살았다.

베르나르도 이원길 옹과 그의 가족은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도 북한의 땅이 되어버린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서울로 이사하여 정착하게 되었다. 그는 맏아들인 마태오 이덕선, 베드로 이덕성 셋째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나머지 가족과 함께 1988년 미국으로 이민을 갈 때까지 서울에서 살았다. 그는 미국에서 참으로 행복한 날들을 보냈다. 그는 은퇴 후에는 아들과 딸들의 사업을 도와주었으며, 그리고 손자와 손녀들을 돌보아 주기도 하였으며, 그러나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그의 소명을 계속하였다. 베르나르도 이원길 옹을 추모하는 뜻으로 그의 가족은 Maryland주 Potomac의 매우 아름다운 곳에 수녀원을 지어 “The Little Sisters of the Holy Family”라는 수녀회에 기증하였다.

그는 96세인 부인 황 수산나, 5명의 아들과 1명의 딸, 그들의 배우자, 그리고 19명의 손녀, 손자, 증손녀와 증손자들을 남겼다. 그의 다섯째 아들인 바오로 이덕효 신부는 현재 워싱턴 대교구의 신부로 소임을 다하고 있다.



| The Life of Bernard Wonkil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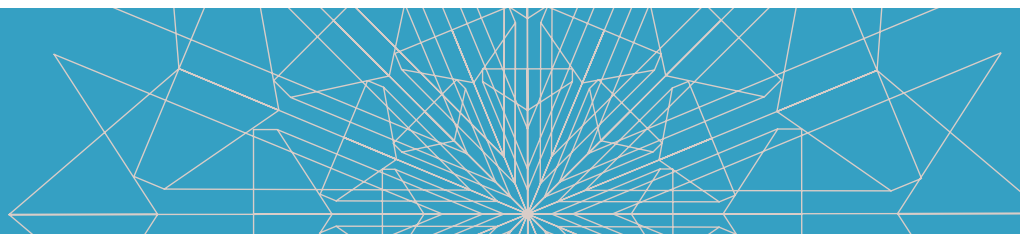
The Life of Bernard Wonkil Lee

These are the things that I have witnessed and learned from my father. I am very fortunate that I was born and raised by happy, generous and loving parents. I attribute whatever I have accomplished to my upbringing, especially to my father. He has instilled in me those priceless values that are the foundation of my being. I am thankful for the privilege of being my father's son. I learned everything from him. He taught me how to become a happy person and remain a happy person. He taught me how to be a positive thinker and a positive person. He told us to be always good to others.”

Bernard Wonkil Lee was born in the northern part of Hwanghae-do in 1917 but moved to a small seaside village called Karinjae in the Yeonan peninsula when he was a teenager with his mother and siblings after the death of his father who had built schools and taught in various parts of Hwanghae-do. Mr. Lee and his family had to flee from his hometown during the Korean War and lived in Gyodong-do for three years until 1954.

Mr. Lee and his family moved to Seoul as he could not return to his hometown because it became a part of North Korea after the Korean War. He lived there until they e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in 1988 to join his sons, Matthew and Peter. He spent some of his happiest years there. Although he was retired, he helped his sons' and daughter's businesses, caring for his grand children but more importantly continuing his vocation of helping people in any way he could. In his memory, his family has built a convent for the Little Sisters of the Holy Family on a beautiful location in Potomac, Maryland.

He is survived by his wife, Susanna Hwang, 96, his five sons, one daughter, their spouses, and his nineteen grand and great grandchildren. His son, Fr. Paul Lee, is a priest of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프로그램

2014년 10월 2일(목)

시 간	프로그램	내 용
09:30-10:00	등 록	Conference Room (IH366)
제1세션 (IH366)		
10:00-11:30	사회자	심영숙 교수 (가톨릭대 영어영미문화전공)
	환영사	박영식 총장 (가톨릭대)
	축 사	박신언 몬시뇰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상임이사)
	발 표 Bernard Wonkil Lee 소개	이덕선 회장 (Allied Technology Group)
	Fecundity in Marriage	이덕효 신부 (워싱턴 대학교)
	The Changing American Family	John Garvey 총장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제2세션 (IH366)		
11:40-12:30	사회자	정윤경 교수 (가톨릭대 심리학전공)
	발 표 혼인과 출산에 대한 성찰	진교훈 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토론자	이미숙 교수 (가톨릭대 아동학전공)
12:30-14:00 중 식		
제3세션 인간학연구소 심포지엄(IH267)		
14:00-16:50	사회자	최선경 교수 (가톨릭대 ELP학부대학)
	개회사	조정환 교수 (가톨릭대 ELP학부대학장)
	발표 1 혼인과 출산: 그리스도교 윤리와 성 (性)	이인국 교수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토론자	최진일 전문연구위원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발표 2 조선 후기 왕실 여성의 저출산과 유교적 생활세계	김지영 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비교한국학 연구센터)
	토론자	이왕무 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 3 88만원 세대의 사랑과 결혼 문화 분석	한금윤 박사 (연세대 학부대학)
	토론자	이현주 박사 (한세대 교양학부)
제4세션 학생참여 프로그램(IH366)		
14:30-17:00	사회자	구본만 교수 (가톨릭대 ELP학부대학)
제3회 재한 외국인 대학생 연설행회 / 제4회 가톨릭대학교 학생 토론대회		
	발 표 BWL 가톨릭 인본주의 '발전적 가정 공동체를 위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	
	시 상 제4세션 전체 시상식	

Program

October 2nd (Thur), 2014

Time	Program	Detail
09:30-10:00	Registration	Conference Room (IH366)
Session 1 (IH366)		
10:00-11:30	MC	Prof. Youngsook Shim (English Language & Culture, CUK)
	Welcome Address	Rev. Yeongsik Pahk (President, CUK)
	Congratulatory Remarks	Msgr. Raphael Park (Executive Trustee, Catholic Education Foundation)
	Keynoters Introducing Bernard Wonkil Lee	Dr. Matthew Lee (Chairman, Allied Technology Group)
	Fecundity in Marriage	Rev. Paul Lee (Archdiocese of Washington D.C.)
	The Changing American Family	Prof. John H. Garvey (President, CUA)
Session 2 (IH366)		
11:40-12:30	MC	Prof. Yoonkyung Jeong (Psychology, CUK)
	Presenter A Reflection on Marriage and Procreation	Emeritus Prof. Kyohun Chin (Seoul National University)
	Discussant	Prof. Misook Lee (Child and Family Studies, CUK)
12:30-14:00	Luncheon	
Session 3 Symposium hosted by Research Institute of Anthropology		
14:00-16:50	Moderator	Prof. Seonkyung Choi (The ELP College, CUK)
	Opening Address	Rev. Jeonghwan Cho (Dean of The ELP College, CUK)
	Presenter 1 Marriage and Procreation: Christian Ethics and Human Sexuality	Prof. Paul Inkook Lee (Graduate School for Life, CUK)
	Discussant	Senior Researcher Jinil Choi (The Catholic Institute Bioethics)
	Presenter 2 Low Birthrate and Confucian Lifestyle of the Royal Women in Joseon Dynasty	Prof. Jiyoung Kim (Center for Comparative Korea Research, AKS)
	Discussant	Researcher Wangmoo Lee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Presenter 3 Culture of Love and Marriage in the 880,000 Won Generation	Dr. Keumyoun Han (College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Discussant	Dr. Hyunju Lee (Hansei University)
Session 4 Student Participation Program (IH366)		
14:30-17:00	MC	Rev. Bonman Koo (The ELP College, CUK)
3rd International Student Speech Contest / 4th CUK Students Debate Contest		
	Presentation BWL Catholic Humanism Student Contest : Announcement of Winners	
	Award Ceremony Award Ceremony	



Session 1

Bernard Wonkil Lee 소개 | 이덕선 회장

Fecundity in Marriage | 이덕효 신부

The Changing American Family | **John Garvey** 총장

Introducing Bernard Wonkil Lee | **Dr. Matthew Lee**

Fecundity in Marriage | **Rev. Paul Lee**

The Changing American Family | **Prof. John H. Garvey**

사 회 자 심 영 속



심영숙 교수 (가톨릭대 영어영미문화전공)
Prof. Youngsook Shim (English Language & Culture, CUK)

■ 주요경력

- 가톨릭대학교 영미언어문화학부 부교수 (영어교육)
-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외국어교육학 박사
-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언어학 학사, 석사

■ 주요 논문

- 『International faculty perceptions of requestive emails by Korean university students』 (2013)
- 『The effect of English-medium instruction on university students' listening ability』 (2012)
- 『Collaborative reading in a university EFL classroom』 (2009)

발 표 자 이 덕 선



이덕선 회장 (Allied Technology Group)
Dr. Matthew Duxun Lee(Chairman, Allied Technology Group)

- 소속 : Allied Technology Group Inc. 창설자 및 회장(1989-2010), 현 명예회장
- 학력 : 동성고등학교 졸업(1955-1958)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학사(1999) 및 명예경영학박사(2004)
가톨릭대학교 명예문학박사(2009)
- 주요경력 : Westat Inc. 부사장(1969-1989)
Korean Catholic Federal Credit Union (미국에서 최초 한인교포를 위한
미연방신용조합) 창설자 및 초대 이사장(1977)
- 수상 : 2006 교황 베네딕토 16세로부터 '교회와 교황을 위한 메달'
2008 Maryland주 최고 기업인 명예상 'Business Legend Award'
2009 기업성과 및 사회기여 공로상 '자유의 상'
2010 Soverin Military of Order of Jerusalem, of Rhodes and of Malta 의
Knight of Magistral Grace 작위수여

Dr. Lee is the founder and Chairman Emeritus of Allied Technology Group, Inc. (ATG) (www.AlliedTech.com) with its headquarters in Rockville, Maryland and many other offices located across the United States and overseas. He had served as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President and Chief Executive Officer of Allied Technology since its founding in 1988. It is a provider of a wide range of information systems, engineering, communications and network integration services, ranging from design and development through full life-cycle support to security and operational management.

From 1969 until 1989, he had been employed at Westat, Inc. (www.Westat.com) located in Rockville, Maryland, one of the largest survey research organizations in the world. He spent 20 years at Westat, starting at a low level and rapidly making his way up to the corporate management. He served his last 13 years as a senior vice president and CIO at Westat.

Dr. Lee has been actively involved in civic, religious and community organizations, and served on many gubernatorial, public, civic and religious commissions, councils and boards over the past 40 years.

In 1977, Dr. Lee founded and served as the President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Korean Catholic Federal Credit Union (KCFCU) in Washington, D. C., which is the first Federally chartered credit union for a Korean community in the United States. KCFCU has been serving thousands of Korean immigrants in the Washington metropolitan area.

For over 30 years, Dr. Lee has been very active in philanthropy, serving in leadership roles and providing financial support to numerous charitable, social, civic, cultural, educational and religious organizations.

Dr. Lee has received many awards, citations and recognitions over the years including the following:

- Honorary Doctorate of Literatur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October 2009
- Honorary Doctorate of Business Administr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UFS), 2004. The first and only recipient of this honor among more than 100,000 graduates on the occas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its founding.
- Pro Ecclesia et Pro Pontifice, Pope Benedict XVI, 2006
- Knight of Magistral Grace, Sovereign Military Order of Jerusalem, of Rhodes, and of Malta (<http://www.orderofmalta-federal.org/>)
- ICAS Liberty Award for outstanding achievements with distinction and positive contributions to the society and humanity, August 2009
- Most distinguished alumnus from HUFS in April, 2009 on the occasion of the 55th anniversary of its founding.
- Business Legend Award given to three recipients by State of Maryland, November 2008

BERNARD WONKIL LEE

1917 - 2001

BWL International Forum 2013

By

Matthew D. Lee

It is an honor and pleasure for me to be here with you once again in this great hall bearing my father's name. I am fortunate again, to be able to speak with you about Bernard Wonkil Lee in conjunction with this year's theme of *Marriage and Procreation*.

Bernard Wonkil Lee was a loving husband and father of six children; five sons and a daughter. He found happiness in all things, small and large. He practiced self-sacrifice and self-giving. He lived a life filled with happiness. He pioneered in spirit and deeds. Above all else he was a man possessed of a deep, unshakable rock-solid Catholic faith.

This year's theme and the core issues of human rights and the dignity of every human being would speak straight to the heart of my father. I, like my father, was born in North Korea. My family lived there until the outbreak of the war in 1950. I often think about the *well-being* of our sisters and brothers in North Korea and the horrible conditions that they have been existing in all these years. Like last year I would like to talk a little bit about the North Korean situation in connection with this year's theme of Marriage and Procreation.

North Korea's Atrocitie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North Korea continues to force women to undergo abortions and young mothers to drown their newborn babies. The regime has starved and executed hundreds of thousands of

detainees at secret labor camps — atrocities that the chairman of a U.N. panel that documented the abuses compares to those of Nazi Germany.

“The gravity, scale and nature of these violations reveal a state that does not have any parallel in the contemporary world,” the U.N. Commission on Inquiry said in a 372-page report released on February 17 this year on North Korea’s atrocities. These crimes are ongoing because “the policies, institutions and patterns of impunity that lie at their heart remain in place.”

According to an article published by the U. 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hen famine struck North Korea in the mid-1990s, it touched off an exodus to China that has continued since then, albeit at a slower pace. North Korea’s northeastern provinces were hit by famine, leaving many desperate to survive, and the Chinese provinces adjacent to these areas ended up with the majority of those who fled North Korea. Women were particularly vulnerable. Famine is a continuing specter in North Korea, and it may reach crisis proportions again.

Driven by despair to leave their home country, North Korean women are in demand in the poor areas of Northeast China, and a huge Korean-Chinese population there plays a large role in the lives of North Korean women who cross the border. Demographics are lopsided in the rural areas of China, with more men than women. In one area, the male-female ratio among those of marriageable age is estimated at a staggering 14-1. Because there are few women of marriageable age in some rural areas, Chinese men pay large sums of money to purchase North Korean women, sometimes even putting themselves deeply in debt. As women are a commodity with a high price, they fall prey to traffickers—middlemen who will purvey them from their desperation to their bondage for monetary gain. The price the women bring becomes a bounty for their acquisition. Traffickers seek out the hapless victims of the North Korean regime’s neglect and entrap them into abuse and exploitation in China.

While North Korean women fill a vacuum in Chinese society, however, the Chinese

government does not treat them as though they are welcome. It defines them as “illegal economic migrants,” and sometimes sends them back to North Korea where they are punished because their homeland views them as traitors and criminals. North Korean women, even in the land of their asylum, are extremely vulnerable to exploitation.

In spite of finding places to live in China, the North Korean women who flee seldom find safety. On the Chinese side of the Tumen River, they enter a maze of entrapping political and social difficulties that threaten not just the North Korean women themselves but also their children. The food and shelter they find enable them to survive, but instead of the comparative prosperity they hoped to find in China, many become immersed in continued poverty, debt, and misery. When they attempt to re-build their lives with Chinese “husbands,” they can end up secluded and abused. Without effective legal protection, they are vulnerable to abuse and are aware that they can be turned over to authorities and sent back to North Korea.

According to witness accounts in the U.N. report, North Korean women repatriated from China are forced to undergo abortions because they are believed to be carrying babies conceived by Chinese men. The women are not asked about the fathers’ ethnicity.

“Secondary sources and witness testimonies point to an underlying belief in a ‘pure Korean race’ in the DPRK to which mixed race children (of ethnic Koreans) are considered a contamination of its ‘purity,’” the report says, referring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North’s official name.

One witness said she saw seven women given injections to induce abortions. In most cases, guards at the detention facilities “force either the mother or a third person to kill the baby by drowning it in water or suffocating it by holding a cloth or other item against its face or putting the baby face down so that it cannot breathe,” the report says.

Most of the abortions and infanticides were committed at holding centers, and

interrogation and detention centers known as State Security Department (SSD) facilities. A former SSD official explaining the concept of “pure Korean blood” to the commission said having a child who is not “100 percent” Korean makes a woman “less than human.”

The commission chairman said there are “many parallel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Nazis in World War II: “I never thought that in my lifetime it would be part of my duty to bring revelations of a similar kind.”

Nations cannot say they did not know the extent of the crimes taking place in North Korea, he said. “Now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oes know. There will be no excusing a failure of action because we didn’t know.”

The situation is horrendous.

It is outrageous.

What Can and Should We Do?

Last year, I talked about a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which has been under review for passage in the Korean legislature since 2005. Although there has been some variation in the drafts produced by conservative legislators over the years, the basic framework has been consistent. First, the act would expand the institutional apparatus for dealing with North Korean human rights. Second, the act would mandate that the government promote greater international awarenes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buses. Third, the act would provide for the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ion Plan to guide future policies. Fourth, the act would promote effective humanitarian aid for the North, along with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finally, the act would authorize support for civil society groups involved in promot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I am in full agreement with the basic framework of this Act. We all should do whatever

we can to support it and help it pass the congress. I encourage everyone here to do your part by calling or writing to your representative urging them to vote for the Act.

What else can we do? We can pray for the peace and well-being of our sisters and brothers in North Korea, and for peaceful reunification, but we can do more. Contact your politicians to express your outrage that this legislation has not been ratified. Make phone calls. Send emails and letters. Go visit your representatives in their offices, and demand them to do something about the atrocities in North Korea.

While the political process and inter-Korea contacts and dialogues continue, we should lend our hands to the humanitarian aid and assistance efforts that have been going on for years, for example,

- Ask my brother, Fr. Paul Lee, about the Seeds of Hope Project, which, instead of giving money, food or other relief supplies, helps the people to improve key vegetable species in North Korea that allow them to realize greater harvests.
- Ask Fr. Gerry Hammond of the Maryknoll Fathers and Brothers, Dr. Steve Linton, 4th generation American-Korean, of the Eugene Bell Foundation, about their work which, for more than 15 years since its founding, has supported at least 80 medical institutions throughout North Korea in its effort to eradicate tuberculosis and improve general health.

Also learn more about the atrocities in North Korea:

- Visit the website of the U. 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ttp://www.hrnk.org>) and learn more about the situations in North Korea.

- Visit other resource and information centers to get more information.

Voice your outrage.

Make yourself heard.

Let's do something.

베르나르도 원길 리

1917-2001

저의 아버지의 이름이 붙여진 이 공간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결혼과 출산'이라는 올해의 주제와 관련하여 저의 아버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상한 남편이자 아들 다섯, 딸 하나, 모두 여섯 아이를 둔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는 크든 작든 모든 일에서 행복을 느끼셨고 자기희생과 봉사를 실천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행복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고, 생각과 행동 모두에서 선구자적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깊고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단단한 가톨릭 신앙을 지닌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올해의 포럼 주제인 결혼과 출산, 그리고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같은 핵심 문제들을 마음으로 깊이 느끼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처럼 저도 북한에서 태어났고, 제 가족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종종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안녕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그곳의 끔찍한 상황에 대해 생각합니다. 작년처럼 올해에도 포럼 주제와 연결시켜 북한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잔악행위와 인권 침해

북한은 계속 여성들에게 낙태를 시키고 젊은 어머니들에게 갓난아이를 익사시키라고 강요합니다. 북한 정권은 비밀 강제노동수용소에 있는 수십만 명의 수감자들을 굶겨 죽이고 사형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자행되는 이러한 학대의 내용을 기록한 유엔 위원회의 의장은 이들의 잔악행위가 독일 나치에 비견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올해 2월 17일 발표된 북한의 잔악행위에 대한 372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유엔 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의 심각함, 규모, 그리고 유형은 현대

원회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의 심각함, 규모, 그리고 유형은 현대 사회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반인도범죄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 북한의 정책, 제도 및 불처벌의 양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가 발간한 논문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 북한에 닥친 기근으로 인해 중국으로의 탈출이 촉발되었고, 그 이후로 전보다는 느린 속도지만 여전히 중국으로의 탈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북동부 지방의 기근이 가장 심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탈북했고 인근의 중국지방에 다수의 탈북민들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이 특히 취약한 상황이었습니다. 북한 기근은 지속되고 있는 문제이며 다시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중국 북동부의 가난한 지역에서 이러한 탈북여성들을 많이 원하는데 그곳에 사는 조선족들은 국경을 넘는 북한여성들의 삶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골 지역은 인구 분포가 불균형하여 남자가 여자보다 많습니다. 어떤 지역은 충격적이게도 결혼적령기에 있는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14:1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어떤 시골 지역에서는 결혼적령기 여성이 너무 적다 보니 중국남성들이 북한여성을 사려고 많은 돈을 지불하고, 종종 그러다가 큰 빚을 지기도 합니다. 여성이 값비싼 상품이다 보니 인신매매범(금전적인 이득에 눈이 멀어 여성을 공급하는 중개인)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인신매매범들은 여성들을 납치하여 팔아서 돈을 벌니다. 이들은 북한 정권의 방치로 인해 생겨난 불운한 피해자를 찾아내어 학대와 착취의 희생양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탈북여성들이 중국 사회의 공백을 메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그들을 그리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여성을 “불법 경제 이주자”로 규정하고 종종 그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데, 복송된 여성들은 조국에서 배신자와 범죄자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북한여성들은 그들이 망명한 땅에서조차 착취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중국에서 살 곳을 찾았어도 탈북여성들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두만강 건너 중국 땅에서 탈북 여성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이들까지 위협하는 정치적, 사회적 곤경 속에 처하게 됩니다. 생존에 필요한 음식과 은신처는 찾았지만 많은 이들이 중국 땅에서 기대했던 생활의 상대적 윤택함 대신 계속되는 가난과 빚과 불운에 허덕이게 됩니다. 탈북여성들이 중국인 “남편”과 새로운 삶을 개척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 외롭게 고립되거나 학대받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다. 실질적인 법적 보호가 없어서 탈북여성들은 학대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자신들이 당국에 넘겨져 북한으로 송환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기록된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중국에서 송환된 임신한 북한여성들은 중국인의 아이를 가졌다고 간주되어 강제낙태를 당합니다. 여성들에게 아기 아버지의 인종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공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가리키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2차 자료와 목격자 증언은 북한에 혼혈인 아동이 ‘순수성’을 오염시킨다고 간주하는 ‘순수 조선 혈통’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목격자는 일곱 명의 여성이 강제낙태를 위해 주사를 맞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구류 시설의 계호원들은 아기 어머니나 제 삼자에게 강요하여 아기를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거나 옷이나 다른 물건으로 얼굴을 눌러 질식시키거나 아이가 숨을 못 쉬도록 옆드려 누이게 합니다.

대부분의 낙태나 영아살인은 구류 시설과 국가안전보위부로 알려진 심문 구류장에서 자행됩니다. 한 전직 보위부원은 위원단에게 “순수 조선 혈통” 개념에 대해 설명하며 “100%” 조선인이 아닌 아이를 임신하는 여자는 “인간 이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위원회 의장은 북한과 제2차 세계대전의 나치 사이에 “많은 유사점”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내 일생에 이런 일을 폭로하는 것이 내 임무가 되리라고는 결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제 세계가 북한에서 자행되는 범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국제 사회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은 참혹합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작년에 저는 2005년부터 대한민국 국회가 제정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말 씀드렸습니다. 그 동안 보수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초안에 다소 변화가 있었지만 기본적인 틀을 일관됩니다. 첫째,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을 다루는 제도적 장치를 확대시킬 것입니다. 둘째, 북한인권법은 한국 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셋째, 북한인권법은 미래 정책의 방향에 지침이 될 북한 인권 실행계획을 제시할 것입니다. 넷째, 북한인권법은 한국-북한의 교류 및 협력을 증진 시키고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인도적 원조를 촉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인권 법은 북한의 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 단체에 대한 지원을 인가할 것입니다.

저는 이 법안의 기본적 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법안을 지지하고 법안이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에게 각자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전화하거나 편지를 써서 그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촉구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그리고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 들에게 연락해서 이 법안이 아직도 비준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격분을 표현하십시 오. 전화하십시오. 이메일과 편지를 보내십시오. 여러분 지역구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북한의 잔 악행위에 대해 행동을 취하라고 요구하십시오.

정치적 절차와 한국-북한의 접촉 및 대화가 지속되는 한편, 우리는 수년 동안 계속 해 온 인 도적 차원의 원조와 지원의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 습니다.

- 제 동생인 이덕효 바오로 신부에게 ‘희망 씨앗 프로젝트’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이 프로젝 트는 돈이나 음식, 기타 구호물자를 제공하는 대신 북한 주민들이 주요 채소 작물을 개선 시켜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 메리놀외방전교회(Maryknoll Fathers and Brothers)의 게리 해먼드(Gerry Hammond) 신부와 유진벨(Eugene Bell) 재단의 4세대 미국계 한국인 스티븐 린턴(Steven Linton) 박사에게 설립 이래 15년 넘게 결핵 퇴치와 일반 건강 증진을 위해 북한 전역의 80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또한 북한의 잔악행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웹사이트(<http://www.hrnk.org>)에 가셔서 북한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 다른 자료 및 정보 센터를 방문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십시오.

여러분의 분노를 표현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십시오.

함께 행동합시다.

발 표 자 이 덕 효



이덕효 신부 (워싱턴 대교구)
Rev. Paul Dukhyo Lee (Archdiocese of Washington)

Father Paul D. Lee, S.T.D.

Born in Seoul on December 31, 1955

Moved to the United States in 1979

■ Academic work

1968-1974 Dongsung High School

1974-1978 Bachelor of Arts from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chool of Theology

1979-1983 Master of Arts and Master of Divinity from Mount Saint Seminary,
Emmitsburg, Maryland

1990-1994 A Licentiate and Doctorate in sacred theology (S.T.L and S.T.D.) from the
Pontifical University of Saint Thomas Aquinas (known as *Angelicum*)

■ Priestly work

1983 Ordained a priest for the Archdiocese of Washington

1983-1989 Parochial vicar at the Shrine of St. Jude, Rockville, Maryland

1989-1990 Parochial vicar at Sacred Heart Parish, La Plata, MD

1990 Parochial Administrator at Our Lady's at Medley's Neck, MD

- 1994-2010 Director of two archdiocesan offices: Office for Ecumenical and Interreligious Office and the Office for Continuing Education of the Priests
- 1997-1999 Chairman of the InterFaith Conference (IFC), the interreligious organization of 11 major religions of the Metropolitan Washington
- 1999-2004 President of the National Korean Pastoral Center, the umbrella organization of Korean-Catholic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nd the Korean National Delegate for the United State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USCCB).
- 2009-2012 National Consultant to the Subcommittee of Asian-Pacific Island Catholics of the United State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CCB.
- 1994-2002 Parochial Administrator of St. Mary's Parish, Washington, DC, St. Ignatius of Loyola, Oxon Hill, MD, Christ the King, Silver Spring, MD, Chaplain of the Korean Community at Our Lady of Mercy, Potomac, MD.
- 2002-2005 Pastor of Our Lady of Victory Parish, Washington, DC
- 2005-2012 Pastor of Epiphany Parish, Washington, DC
- 2009-present Leading the *Seeds of Hope Project* (improving key vegetable species in North Korea)
- 2012 – present Pastor of the Shrine of St. Jude, Rockville, MD

Fr. Lee has given lectures at various levels in seminaries, synagogues, mosques, diocesan staff, ecumenical conferences, and other Christian churches. Fr. Lee's areas of specialty and interest include ecumenism and interreligious dialogue, ecclesiology and Trinitarian theology,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He wrote a book, *Bridging* (2005) and numerous articles in journals.

His mailing address:

Shrine of St. Jude Catholic Church
12701 Veirs Mill Road
Rockville, MD 20853

Phone: 301-946-8200; 301-461-8272

E-mail: sua.eleganza@gmail.com

Fecundity in Marriage

Fr. Paul D. Lee, S.T.D.

Fecundity brings forth life and joy.

Have you seen the musical called “Fiddler on the Roof”? Tevye, the main character, shares a drink with his future son-in-law as he agrees to the marriage with his daughter, and a spontaneous celebration begins with other villagers. In the succeeding scenes, the phrase, “To life! L’ chaim!”, is sung repeatedly:

Drink, l'chaim, to life, to life, l'chaim l'chaim, l'chaim, to life. Life has a way of confusing us, Blessing and bruising us. Drink, l'chaim, to life. God would like us to be joyful even when our hearts lie panting on the floor.

God would like us to be joyful even when our hearts lie panting on the floor. This is a beautiful spiritual conviction and an insightful theological declaration of God’s loving presence and providence. Our life gets complicated and sometimes overwhelming, but it is God who has given us life and he wants us to live joyfully and to the fullest.

When there is a lack of conviction of God’s accompanying presence, people live in fear and anxiety, suffering from desperation and uncertainties, which makes them unhappy and trapped in despair and skepticism. This fear and lack of happiness stems from not knowing the God as revealed by the Scriptures and by Jesus the Word. It is God’s desire for us to be free from every anxiety and fear and enjoy the fullness of life, taking part in the overflowing abundance of his blessings.

Fecundity is one of the primary signs of God’s blessings and our willing cooperation with God our Creator and Provider. The renowned spiritual guide of our time, Fr. Henri Nouwen,

has a timely insight for us:

Fecundity brings forth life. God is a God of the living, and wherever God's loving presence becomes known, we see life bursting forth. Both sterility and productivity carry the seeds of death within them. Fecundity always means new life, life that manifests itself in new, fresh, and unique ways: a child, a poem, a song, a kind word, a gentle embrace, a caring hand, or a new communion among the nations.¹⁾

Thus, fecundity has to do with fertility and creativity. It can be translated as 번식력, 다산성, 출생율, (비유) 대단한 창의력, 창조력. Fecundity is about sharing your love and life, caring for one another, having a creative energy like writing a poem and music, having a freedom and perceptivity to see the hidden beauty of people and things from you, and about celebrating the most creative potential of human existence.

Fr. Nouwen, however, warns that fertility is not to be equated with productivity. The prevailing preoccupation of being productive stems from the deep-seated fear of being useless. Therefore, we need freedom or free time to contemplate the mysteries of life. "Fecundity transcends both sterility and productivity, since it belongs to the order of love and not to the order of fear."²⁾ Fecundity is about availing ourselves to God's providence, about our humble but loving trust in his goodness, which involves our openness and vulnerability before him. The way of God is the way of weakness, kenotic self-giving. We also can bear fruit as Jesus did when he offered his body to His Father for the life of the world.

Fecundity as a Gift and Goal of Marriage

The Old Testament indicates that barrenness is a curse (Gen 20:17-18), while the

1) Henri J. M. Nouwen, *Lifesigns: Intimacy, Fecundity, and Ecstasy in Christian Perspective* (New York: Doubleday, 1986), 68.

2) Nouwen, *Lifesigns*, 52.

Testament speaks figuratively of it as unfruitfulness (Mark 4:19). “Negatively, barrenness can be a metaphor for an empty, dry, directionless life, a life led without faith. It goes nowhere and yields nothing. Positively, barrenness can be a recognition of sinfulness and the need to be transformed by God’s grace.”³⁾ In contrast to the pagan outlook in which fertility is a product of appeasing gods and goddesses, the religion of Israel stresses that fertility is a ‘gift from God’, the creator of heaven and earth.⁴⁾ “Be fertile and multiply!” is a command God gives at creation (Gen 1:22, 28) and repeated over and over again (e.g., 8:17; 9:1, 7).

God places the future of the humanity in the hands of man and woman. God hands over the most valuable he can bestow – human life – to the responsibility of man and woman.⁵⁾ Responsibility for the future of the humanity is entrusted to them. Without family, there is no future.

Procreation is a sacred part of marriage, a share in God’s own generative power. Scripture sees fecundity as a sign of God’s blessing, which involves the parents’ generosity and openness to life. Hence, the Church teaches that the unitive dimension and procreative significance of the conjugal act cannot be separated.

Saint Pope John Paul II underlines the vocation of married couples to be cooperators with God: “In its most profound reality, love is essentially a gift; and conjugal love... does not end with the couple, because it makes them capable of the greatest possible gift, the gift by which they become cooperators with God for giving life to a new human person. Thus the couple, while giving themselves to one another, give not just themselves but also the reality of children, who are *a living reflection of their love, a permanent sign of conjugal unity and a living and inseparable synthesis of their being a father and a mother.*” He also makes a significant point that physical sterility can be for spouses “the occasion for other important services to the life of the human person, for example, adoption, various forms of educational work, and assistance to other families and to poor or handicapped children.”⁶⁾

3) Ronald Witherup, “Barrenness,” in *The Collegeville Pastoral Dictionary of Biblical Theology* (The Liturgical Press: Collegeville, 1996), 77.

4) Ronald Witherup, “Fertility,” in *The Collegeville Pastoral Dictionary of Biblical Theology*, 333.

5) Kasper, *The Gospel of the Family* (New York: Paulist Press, 2014), 10.

Contrary to the popular assumption that the goal of marriage is defined solely by the human expectations and desires, the Catholic Church sees the creative plan of God in the mutual self-giving of marriage. Additional challenges to the Catholic doctrine of marriage include the current redefinitions of marriage these days. This phenomenon is often accompanied by no regard for its transcendental purpose, no concern for the common good, and no reference to the natural law.

Cognizant of these inclinations, the Catholic Church reiterates the divine will in all of human and cosmic activities, their ultimate teleological orientation - everyone and everything has a divine purpose, as well as the gift of human reason at our disposal.

In God's design, fecundity is not an afterthought. It is "a gift, an *end of marriage*, for conjugal love naturally tends to be fruitful. A child does not come from outside as something added on to the mutual love of the spouses, but springs from the very heart of that mutual giving, as its fruit and fulfillment." 7)

Sharing Trinitarian fecundity, Growing in Holiness

Delving into the mystery of human existence is to seek to understand the mysteries of God and his plan. Understanding marriage and family requires more than human sciences. More recent theology seeks to deepen its understanding of the family as a symbolic illustration of Trinitarian communion. The very gift of life is a divine ecstasy, God outside or beside himself. The reason for the human existence is the exuberant outpouring and superabundance of God's creative love. The Trinity is in a sense the economy of the extravagant gift: "Creation is... given by God to God, and only then - through the pneumatological generosity of the Trinitarian life - given to creature: a gift that is so long as it is given back, passed on, received and imparted not as a possession but always as grace."⁸⁾ Actively withholding the gift, not extending signs of love to others, not donating

6) *Familiaris Consortio*, 14.

7)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2366.

8) David Bentley Hart, *The Beauty of the Infinite: The Aesthetics of Christian Truth*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3), 268.

oneself entirely to the economy of agape is sin, the suppression of the gift. This suppression amounts to absence of life.

Participating in the abundance and fecundity of life is to grow in the image and likeness of God, hence in His holiness. Cardinal Marc Ouellet proposes that the sanctity of parents is to be integrated in fecundity: “The proposal of sanctity proceeds from the inner logic of the Trinitarian mystery... Trinitarian life is communion in fecundity. In an analogous way, conjugal and family relations lived in faith are fruitful in God, with God, and of God himself. The reciprocal gift of the man and woman in faith first and foremost generates the couple as such, which is already a ‘third’ in respect to the two individuals who constitute it. This third is a gift of grace,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in their midst who give them a new unity, not only human, but Trinitarian. On the basis of this grace given by the Father, fathers and mothers can develop holy and fruitful relationships of love in the image of God.”⁹⁾

This communal and Trinitarian model of love is the paradigm of holiness. Hopefully, there will be more couples and families that are known and canonized for their shared holiness like that of the holy family.

Contributing to Integral Human Development

Married love involves the whole person and must contribute to integral human development. When the physical aspect of a conjugal act is separated from its spiritual dimension, when the implicit unitive dimension of married love is artificially and arbitrarily closed to its procreative potential, there is a dichotomy and disconnect. "By safeguarding both these essential aspects, the unitive and the procreative, the conjugal act preserves in its fullness the sense of true mutual love and its orientation toward man's exalted vocation to

9) Marc Ouellet, *Divine Likeness: Toward a Trinitarian Anthropology of the Famil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6), 111. He further elaborates: “The Father is the original gift whose fruit is the Son. The Son is fecund together with the Father in spiriting the Holy Spirit as the fruit of their reciprocal love. By contrast, the Holy Spirit is not the origin of another Person, but seals the unity of the Father and the Son in himself, as Person-Gift...”

parenthood."¹⁰⁾

Thus, integral human development considers and respects the seamless fabric of one's life from conception to natural death, sexuality, marriage, the family, and social relations.¹¹⁾

Sterility of Life

The opposite of fertility is sterility, which manifests in so many ways. A disturbing number of young people are *not marrying* for the perceived fear of financial inadequacy regarding wedding expenses and child-rearing. The portion of Americans who are married today is at its lowest point since at least 1920. About half — 50.5% — of Americans ages 18 and over were married in 2012, compared with 72.2% of American adults in 1960, according to a Pew Research analysis of Census Bureau data.¹²⁾ This declining tendency for marriage is also evident in Korea. The drastic increase of wedding expenses is one of the reasons. In addition, the cost of raising a child from birth to college graduation is estimated close to \$400,000 (3억896만4000원), which contributes to having less children. This phenomenon is accompanied by an increasingly permissive stance towards divorce. Hence, fewer marriages and more divorces!

Plus, there is an alarming *low birth rate*. In Korea, 1,007,000 were born in the year of 1970, which is a 4.53% growth over the previous year, while only 484,300 were born in 2014, which is barely 1.3% increase over the year 2013. By 2030, the Korean population is projected to be 52 million; however, this number will be dramatically reduced to 40 million

10) *Humanae Vitae*, 12.

11) Benedict XVI states: "If there is a lack of respect for the right to life and to a natural death, if human conception, gestation and birth are made artificial, if human embryos are sacrificed to research, the conscience of society ends up losing the concept of human ecology and, along with it, that of environmental ecology. It is contradictory to insist that future generations respect the natural environment when our educational systems and laws do not help them to respect themselves. The book of nature is one and indivisible: it takes in not only the environment but also life, sexuality, marriage, the family, social relations: in a word, integral human development": *Caritate in Veritate*, 51.

12) Richard Fry, "New census data show more Americans are tying the knot, but mostly it's the college-educated (February 6, 2014)."

in 2045. This has direct ramifications for a stunted economy, declining labor force, and reduced national stature.¹³⁾ No doubt, the low birth rate is related to sterilizations and abortions as well as artificial birth control.

Sterility of life often stems from fear. When we are surrounded by threats and scary statistics, we no longer reach out to others and shun ourselves from fruitful relationships. The more afraid we become, the more we withdraw. Sterility is an experience of not being fully alive and thus of being incapable to give life. Fr. Nouwen calls this sterility a “spiritual woundedness.”¹⁴⁾ Jesus is the healer of this spiritual sterility, sending his creative spirit, the life-giving water, as in the case of a Samaritan woman who after her encounter with Christ is no longer bound by fear and isolation (John 4).

Celebration of a Fruitful, Fertile, and Prolific Life

In confronting many life-negating phenomena, the Catholic doctrine on human life is positive and affirming, while encouraging a fruitful and meaningful life with calm confidence and enthusiasm. The Church invites the faithful and the whole society to overcome an empty barren life in isolation and fear, a life without direction and faith.

Large Families

The current cultural thrust and dictate is the nuclear family consisting of parents and children, usually 1 or 2 at most. Yet there are certain heroic exceptions. In my parish, there are some families with a lot of children: the Kilmers, the McTavishes, the Greens, the Moynihans, the Hadleys, the Marcolins, the Mazariegos, etc. They have eleven, ten, nine, seven... children, respectively. Of course, they stand out in the age of nuclear families. I visit some of them every once in a while and share meals with them. Children are happy and enjoy each other's company in their life's journey and they take care of each other. I

13) 한국경제매거진 제 946호 (2014년 01월 13일), 2020년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인구 감소로 국력 ‘흔들’.”

14) Nouwen, *Lifesigns*, 46-47.

hardly detect any egoism or any sense of entitlement. They are quite content with what they have and are not envious of what other families have. These families are genuinely spiritual. They pray together. They talk about God's goodness and providence openly. They attend Mass together, often on weekdays. Each child's unique and personal spiritual formation is encouraged and practiced. One thing I notice is that none of them plays video games. They hardly watch any TV. Rather, they play card games together and do a lot of outdoor activities, including soccer, baseball, bike riding, swimming, etc. Together they have a lot of fun. Some of the kids learn to play the piano from their neighbor's older kids and they are quite excellent. Some are home schooled. In their home schools, a more classical education is practiced. They deal with primary sources most of the time. They study Greek and Latin along with some contemporary languages. Several of these kids take care of my parish lawns. During the summer they work hard from early in the morning till late in the afternoon.

One of the families was interviewed by several major TV channels. Most of the interviews were pretty positive. But the CNN interview turned out to be quite negative. Instead of the various aspect of a large family, the interviewer was mostly talking about the difficulty of sending all those 11 kids to colleges, implying that the parents were basically irresponsible. I asked a similar question to the children and one of them said that the Lord would provide. She said that with simplicity and conviction and without any hint of anxiety and pretension. What I sense among all of these families is genuine happiness, gratitude, and contentment. Fecundity is a genuine blessing from God to them. The family is the school of humanity and social virtues where all learn to accept, love, and forgive one another. The family for them is the domestic church and also a "field hospital"¹⁵⁾ where they find

15) During his interview in August 2013 with Fr. Antonio Spadaro, SJ, Pope Francis said: "I see clearly that the thing the church needs most today is the ability to heal wounds and to warm the hearts of the faithful; it needs nearness, proximity. I see the church as a field hospital after battle. It is useless to ask a seriously injured person if he has high cholesterol and about the level of his blood sugars! You have to heal his wounds. Then we can talk about everything else. Heal the wounds, heal the wounds.... And you have to start from the ground up": Cardinal Walter Kasper uses Pope Francis' famous designation of the church, in his *The Gospel of the Family*, 14.

security, warmth, and healing.

Adoption

Another sign of a fruitful life is adoption. Adoption is common and ubiquitous in the U.S. in contrast to Korea where it is almost considered a taboo or at least it is extremely rare. My own parish secretary has four adopted children, of which two are Vietnamese and two are African-American. I know another family who has five of their own children and adopted three teenagers from Korea. These adopted children were mentally and physically handicapped. The parents were by no means rich but somehow they decided to welcome these children into their family and take care of them. I know of a U.S. diplomat in a small African country, which is not a cushy assignment by any means but he has volunteered to be there for many years, He is never married but he adopted 19 children. When they reach a certain age, he send them to colleges in the U.S.

The courage and generosity of these people, their selfless and self-giving charity must be the fruits of the Holy Spirit. Their main concern is the welfare of these children, whether they are their own or adopted.

Spiritual Orientation of Parenting

A surprisingly large number of families in the U.S. adopt children. They gladly plunge into the unknown of the newly formed family life through adoption. It is an act of faith, knowing God's presence and providence, imitating His generosity and charity, which gives life and hope to these children and the world.

Common among these parents is their serious concern for the ultimate happiness of their children. Their focus is not confined to a temporary and this worldly success. These parents often teach their children about the needs of others beyond their own families.

When I was about 10 years old, I overheard my father conversing with his friends. At one point of their conversation, my dad said: "I have a temporary custody of my children who are God's children first. My duty is to help them to go to heaven." His primary concern was

not the worldly success, the best school, the best job, money and fame, or leaving an inheritance. Rather, he made sure that we gave thanks to God for the blessings of life through personal prayer life, family prayers, and parish life. A few days before he passed away, all of the siblings were gathering around him and he said with a wry smile, "It must be nice!" "How so?" one of us said. "It's nice that you guys have nothing to fight over after I am gone." And we all shared a laugh. My dad was good at sports, teaching other people, helping others etc. but he was really not good at making money.

Several years ago, I was chatting with someone whom I have never met before. He asked me out of the blue how many children I had. When I said about 8,000, he almost flipped. Of course, I was talking about my parishioners who call me Father. This spiritual Fatherhood is a wonderful blessing for me and hopefully for others. As a priest, I have the privilege of being invited into the inner sanctum of people's souls at their most wonderful and saddest moments. By baptizing their children, celebrating weddings with them, bringing God's healing and forgiveness through penance and anointing, and helping people to encounter Christ in the Eucharist and other occasions, the priest becomes a fruitful and happy Father.

Towards A Full, Fruitful, and Vibrant Life

Jesus says that he came to give the fullness of life (John 10:10). It is an abundant life and integral human fulfillment that he wishes us to acquire and enjoy. "The glory of God is man fully alive, and the life of man is the vision of God," states Irenaeus of Lyons.¹⁶⁾ In a human life that is free, creative, dynamic, fertile, fruitful, and prolific, we witness a life that is a faithful sharing in God's abundance, creativity, and fertility.

Celebrating and promoting this full life is the mission of the church and the family is the domestic church, an *ecclesia in ecclesia*. The family has a social dimension and a mission

16) "The glory of God is man fully alive, and the life of man is the vision of God. If the revelation of God through creation already brings life to all living beings on the earth, how much more will the manifestation of the Father by the Word bring life to those who see God" (AH IV, 20, 7).

for the world in contributing to the establishment of a civilization of love.¹⁷⁾

Fertility is a symbol of hope in the pastoral and liturgical life of the church. The Israelites were fruitful and prolific. “They multiplied and became so very numerous that the land was filled with them... the more they were oppressed, the more they multiplied and spread” (Exodus 1:7, 12). The very survival and existence of Israel as the chosen people of God provides us food for theological and spiritual reflection. God’s covenant with them is irrevocable and their vocation to be a blessing to others remains. They have persevered in the harshest adversities and persecutions, including the Nazi Holocaust. It seems true that the more they were oppressed, the more they were determined to multiply and survive.¹⁸⁾ Beyond anthropocentric calculation, Abraham’s main focus is to obey God even when that involves an acceptance of God’s command, which may appear unreasonable and incomprehensible, as illustrated by the binding of Isaac. This Isaac in turn blesses his son Jacob: “May God Almighty bless you and make you fertile, multiply you that you may become an assembly of peoples” (Gen 28:3).

Unlike Abraham who was unreservedly theocentric, we witness an anthropocentric turn of the modern man, which often results in distance from God and even denial of God’s sovereignty. To this cultural thrust of man’s turn to himself, the fertile families proclaim God’s providence, generosity, and life-giving love.

A metaphorical use of fertility in the New Testament can be found in the parable of the seed of the Word of God that sprouts in abundance (Mark 4:40; Matthew 13:23; Luke 8:15). Will the Word - the will and plan of God - take root in the minds and hearts of people today who often subscribe to the culture of human autonomy? In the New Testament, bearing fruits is an expression for living the righteous life.¹⁹⁾ The righteous life is where all

17) Walter Kasper, *The Gospel of the Family*, 11.

18) Emil Bernhard Cohn states: “The decision to survive, to bring children in the world, to rebuild life in a reborn state and communities throughout the world becomes a ringing affirmation from one side of the Covenant that clearly implies the other side... This perception of the Jewish people-as-a-whole as God’s suffering servant, as witness to a transcendent possibility, is crucial.”: his *This Immortal People: A Short History of the Jewish People* (Mahwah: Paulist Press, 1985), 166-167.

19) Ronald Witherup, “Fertility,” in *The Collegeville Pastoral Dictionary of Biblical Theology*, 333.

relationships are properly ordered, namely, with God, with others, and with nature. This requires a rearranging and reorganizing of priorities and attitude. That is a rerouting of life and returning to the Lord, which Scripture calls repentance or conversion. "Produce good fruit as evidence of your repentance" (Mt 3:8). A fertile life is rooted in a right relationship with God and others. Jesus chooses to come into our broken world and humanity so as to mend and heal everyone. Reconnecting with the giver of life and source of healing is critical: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If you remain in me and I in you, you will bear much fruit;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Jn 15:5)." Apart from God, we really cannot have a meaningful and fruitful life.

God causes growth (1 Cor 3:6). In the symbol and manifestation of fertility such as large families, adoption, creative and hopeful persons, those living according to the Spirit, we continue to find reasons for hope and joy. The will of God who is the source of all life will ultimately be accomplished in the reign of eternal life. Openness to life here and preparation for life eternal ensures a fruitful, fertile, and full life.

*Life has a way of confusing us, Blessing and bruising us. Drink, l'chaim, to life.
God would like us to be joyful even when our hearts lie panting on the floor.*

Closing appeal

1. Fertility is a gift and goal of marriage, bringing for the life and joy to the family and the world. God shares his proprietary power of creation of human life with parents. Children are a living reflection of their love. They are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humanity.
2. In order to celebrate the fullness of life, we need to deepen our appreciation of God's plan and our role in it. This requires freedom from the obsession of being useful and productive, and some free time to reflect the mysteries of life as participating in communion with the self-giving God of life and love in abundance and fecundity. The fruitful love of married couple is to imitate God and his generosity, which paves the

way for holiness for the whole family in their common journey to God.

3. The way to the fecundity of life involves overcoming the symptoms of the sterility of life, such as not getting married, not being open to having multiple children, blindly practicing artificial birth control, resorting to abortion, reluctance to adopt children, and the prejudice against large families.
4. The Catholic Church needs to encourage young people to marry, married couple to be more open and generous by having multiple children, and emphasize the communal search for holiness as families.
5. The cultural and legal prejudices against large families are to be eliminated. The government needs to seriously consider providing more favorable conditions for large families for the good of the society.

The fullness of life is a life according to the Holy Spirit, generously obeying the Holy Spirit, while enjoying the fruit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enerosity,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 (Galatians 5:22).”

결혼 생활의 풍요로움

다산은 생명과 기쁨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혹시 뮤지컬 '지붕 위의 바이올린'을 보셨나요? '지붕 위의 바이올린'에서 주인공 테비에는 딸의 결혼을 허락하고 미래의 사위가 될 사람과 축배를 나눕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축제가 자연스럽게 시작되는데, 이어지는 다음 장면에서 '생명을 위하여!'라는 노래를 반복해서 부릅니다. (르하임(L'chaim)은 히브리어로 '생명을 위하여'라는 의미입니다. 이 노래의 느낌을 좀 더 잘 전달하고자 히브리어로 표현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생명을 위해 건배, 르하임,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르하임, 르하임, 르하임, 생명을 위하여,
인생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한다네,
우리를 축복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지.
생명을 위해 건배, 르하임, 생명을 위하여.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기뻐하기를 바라실거야.
우리의 심장이 지쳐 숨이 차서 바닥에 누워있을 때에도.*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기뻐하기를 바라실 거야. 우리의 심장이 지쳐 숨이 차서 바닥에 누워있을 때에도 이 표현은 아름다운 영적 확신이고, 사랑이신 하느님의 현존과 그분의 섭리를 깊이 깨달은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복잡해져서 때로는 우리를 압도해버리기도 하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어 우리가 기쁘고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없을 때,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절망과 불확실성으로 고통을 받으며, 그 결과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며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행복감의 결핍은 성경과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스스로를 계시하신 하느님을 알지 못함에서 나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쁘게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당신의 넘쳐흐르는 풍요로운 은총에 참여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다산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주요한 표지중의 하나이며, 동시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께 협력하려는 우리의 자발적 의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시대의 저명한 영성 지도자인 헨리 나웬 신부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시의적절한 통찰을 들려줍니다.

“다산은 생명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이들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어린 현존이 드러나는 곳 어디에서나 우리는 생명이 싹틈을 봅니다. 불임과 생산성(productivity)은 모두 그 안에 죽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산은 언제나 새로운 생명, 즉 스스로를 새롭고 신선하며 독특한 방법으로 드러내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어린 아이, 시 한편, 노래 한 소절, 친절한 말 한 마디, 부드러운 포옹, 돌보는 손길, 또는 여러 나라들 사이에 생기는 새로운 친교와 같은 방식입니다.”¹⁾

이와 같이 생명의 풍요로움은 다산 그리고 창조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fecundity는 번식력, 다산성, 생식력, 출생률을 의미하며 비유적으로는 위대한 창의력과 창조력 등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용어는 여러분이 사랑과 생명을 나누고, 서로를 돌보며, 시를 쓰거나 작곡을 하는 창조적 에너지를 갖고 있고, 자신과 사람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아름다움을 파악할 수 있는 지각과 자유를 갖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또한 이 용어는 인간 실존이 지니고 있는 창조적 능력을 축하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헨리 나웬 신부님은 다산을 생산성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생산적이다’는 의미에 대해 널리 퍼진 선입견은 쓸모없음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에서 유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신비를 숙고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나 자유로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풍요로움은 불임과 출산 모두를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다산은 두려움의 질서가 아니라 사랑의 질서에 속해있기 때문입니다.”²⁾ 다산은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분의 선하심에 미약하지만 사랑이 담긴 신뢰를 갖는 것인데, 이는 그분께 우리 자신을 개방하는 것과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셔서 당신 자신을 선사하시는 약함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성부께 스스로를 바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Henri J. M. Nouwen, *Lifesigns: Intimacy, Fecundity, and Ecstasy in Christian Perspective* (New York: Doubleday, 1986), 68.

2) Nouwen, *Lifesigns*, 52.

다산은 결혼의 선물이며 목적

구약 성경에서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을 하느님께서 내리신 벌이라고 하였습니다(창세기 20:17-18). 반면에 신약 성경은 비유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마르코 4:19). 신학자 로널드 위더럽(Ronald Witherup)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부정적 의미에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공허하고, 무미건조하며, 방향을 잃은 삶,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 곳에도 갈 수가 없고, 아무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때 출산을 못하는 것은 죄를 인식하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새롭게 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해 줍니다.”³⁾ 이교도들이 출산을 남신과 여신의 산물이라고 여기는 것과 다르게 유대교는 출산을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강조하였습니다.⁴⁾ “자손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라는 말씀은 천지 창조 때에 하느님께서 하신 명령이고(창세기 1,22.28)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예를 들면 8,17, 9,1.7).

하느님께서 인류의 미래를 남자와 여자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주시는 가장 가치 있는 것, 즉 ‘인간의 생명’을 남자와 여자의 책임에 맡겨주신 것입니다.⁵⁾ 인류의 미래에 대한 책임은 그들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가족이 없다면 미래도 없습니다.

자손을 낳는 것은 결혼의 신성한 부분으로서 하느님 고유의 창조 능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산을 하느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표지로 여기고, 부모의 관대함과 생명에의 열린 마음에 관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부의 일치와 출산의 중요성은 분리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성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부부가 갖는 하느님의 협력자로서의 소명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가장 심오한 실제 안에서, 사랑은 본질적으로 선물입니다. 그리고 부부의 사랑은…둘만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그들이 새 생명을 탄생시킴으로써 하느님의 협력자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부부는 그들 자신을 서로에게 내어주지만, 단지 그들만을 내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함께 내어주게 됩니다. 아이는 그들 사랑의 살아있는 반영이며 결혼을 통한 일치의 영원한 표지이자 아버지와 어머니로

3) Ronald Witherup, “Barrenness,” in *The Collegeville Pastoral Dictionary of Biblical Theology* (The Liturgical Press: Collegeville, 1996), 77.

4) Ronald Witherup, “Fertility,” in *The Collegeville Pastoral Dictionary of Biblical Theology*, 333.

5) Kasper, *The Gospel of the Family* (New York: Paulist Press, 2014), 10.

서 그들 존재의 살아있는, 그리고 분리될 수 없는 총합입니다.” 교황님께서서는 또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육체적인 불임이 배우자들에게 “인간의 생명에 대한 다른 중요한 일들, 예를 들어, 입양이나 다양한 형태의 교육직무, 다른 가족이나 가난하고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을 돕는 일들”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⁶⁾

결혼의 목적을 단지 인간적인 기대와 열망으로 규정하려는 시각이 널리 통용되고 있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가톨릭교회는 상호간의 자기증여인 결혼 안에서 하느님의 창조 계획을 봅니다. 결혼에 관한 가톨릭 교의에 대한 추가적인 도전 중에는 오늘날 결혼을 다른 방식으로 재정의 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는 종종 결혼의 초자연적 목적을 경시하고, 공동선을 무시하며, 자연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동반되어 나타납니다.

이러한 경향을 인식하여, 가톨릭교회는 이성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 뿐 아니라 모든 인간과 우주의 활동에는 하느님의 뜻이 담겨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사물 하나하나가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는 궁극적이고 목적론적인 방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창조 계획안에서 다산은 나중에 추가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선물이고, 결혼의 목적이입니다. 혼인을 이루는 사랑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배우자간의 사랑에 더해지는 존재로서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스스로를 내어주는 바로 그 마음으로부터 싹이 트고 돋아나 그 싹의 완성으로서 맺어진 열매이기 때문입니다.”⁷⁾

삼위일체 하느님의 풍요로움을 나누며 닦아가는 성화의 길

인간 실존의 신비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하느님과 하느님 계획의 신비를 이해해야 합니다. 결혼과 가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문학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의 신학은 가족을 삼위일체 하느님의 친교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예로서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합니다. 생명의 선물은 하느님께서 스스로를 밖에 두시거나 혹은 곁에 두시는 신적인 엑스타시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창조적 사랑이 풍성하게 분출되어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어떤 의미에서 구원경륜의 과분한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창조는... 하느님에 의해 하느님께 주어지고, 오직 그 다음에 삼위일체의 생명 안에서 성령의 사랑을 통하여 피조물

6) *Familiaris Consortio*, 14.

7)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2366.

에게 주어집니다. 생명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언제나 은총으로서 되돌려지고, 전해지며, 받아들여지고 또 떠나게 되는 한에서만 선물입니다.”⁸⁾ 사랑의 표지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려 하지 않거나, 스스로를 온전히 아가페적인 사랑의 섭리에 봉헌하지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이 선물을 보류하려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며 선물을 억누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억압은 생명의 부채를 가져옵니다.

생명의 풍요로움과 다산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하느님의 모상에 가까워지고 더욱 더 하느님을 닮을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크 웰렛(Marc Ouellet) 추기경은 부모로서 갖게 되는 거룩함은 다산으로 완전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거룩함의 시작은 신비이신 하느님께서 삼위일체 안에서 서로 맺고 계시는 내적인 관계로부터 펼쳐집니다... 삼위일체의 삶은 풍요로움 안에서의 일치입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부부와 가족은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주는 선물은 무엇보다도 두 사람이 이루는 공동체에 ‘세 번째’의 존재가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존재는 은총의 선물이고, 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인간적인 친교뿐 아니라 삼위일체 하느님과의 일치에로 그들을 초대하시는 성령의 현존이기도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은총의 기반 위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성스럽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랑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⁹⁾

이러한 공동체적이고 삼위일체적인 사랑의 모델은 거룩함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성가정처럼 가족 안에서 거룩함을 나눈 것으로 알려진 부부와 가족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희망적입니다.

전인적 인간 발달에 기여함

부부의 사랑은 인간의 모든 면과 관련을 맺으며 완전하고 참된 인간 발달에 기여해야 합니다. 혼인 생활의 물질적인 면이 영성적인 차원과 분리될 때, 부부의 일치가 인위적이고 독단적

8) David Bentley Hart, *The Beauty of the Infinite: The Aesthetics of Christian Truth*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3), 268.

9) Marc Ouellet, *Divine Likeness: Toward a Trinitarian Anthropology of the Famil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6), 111. 마크 웰렛 추기경께서는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성부께서는 원천이시고 성자께서는 열매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의 사랑에서 발하신 성령 안에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함께 풍요로움을 나누십니다. 성부와 성자께서는 성령 안에서 일치를 이루십니다.”

인 방식으로 출산에 대해 폐쇄적일 때 분열과 단절이 생깁니다. “부부의 일치와 출산이라는 필수적인 두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혼인 생활은 충분한 의미에서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과 부모가 된다는 기쁜 소명으로 정향되어야 합니다.”¹⁰⁾

그러므로 완전한 인간의 발달은 한 사람의 일생이 잉태로부터 성, 결혼, 가족과 사회관계 등을 거쳐 죽음에 이를 때까지, 슬기 없이 매끈한 천처럼 여겨지고 존중되어야 합니다.¹¹⁾

불임

다산의 반대는 불임인데, 매우 많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충격적인 수의 젊은이들이 결혼 비용이나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경제적인 어려움을 두려워하여 결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혼인한 미국인의 비율은 1920년 이후로 가장 낮습니다. 인구 조사국의 자료를 분석한 퓨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1960년에는 미국 성인의 72.2%가 결혼한 것에 비해, 2012년에는 18세 이상 미국인의 절반가량인 50.5%만 결혼하였습니다.¹²⁾ 이처럼 결혼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은 한국에서도 뚜렷합니다. 결혼 비용의 급격한 증가도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약 40만 달러(4억 원)정도로 예측되는데, 이 점도 아이들을 적게 낳으려는 경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현상과 함께 이혼에 대해 점점 관대해지는 입장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결혼은 점점 줄어들고, 이혼은 점점 늘어납니다!

이에 덧붙여 저출산율에 대한 경고도 있습니다. 1970년에 한국에서는 1,007,000명이 태어나서, 한해 전보다 출생률이 4.53% 성장하였으나, 2014년에는 484,300명이 태어나서 출생률이 2013년에 비해 겨우 1.3% 증가하였습니다. 2030년에는 한국의 인구가 5천 2백만 명이 될 것으

10) *Humanae Vitae*, 12.

11)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자연스럽게 죽을 권리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고, 수태와 임신기간, 그리고 출산이 인공적으로 이루어지며, 인간 배아가 연구 목적으로 희생된다면, 사회적 양심은 인간 생애에 대한 개념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 결국에는 환경 생태까지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시스템과 법률이 미래를 이끌어갈 이들에게 생명과 환경에 대한 존경과 존중을 가르치지 않으면서 그들이 자연 환경을 존중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되는 말입니다. 자연은 하나이며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자연은 환경뿐 아니라 생명, 성, 결혼, 가족, 그리고 사회적 관계까지도 포함합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인간의 개발을 말합니다.” *Caritate in Veritate*, 51.

12) Richard Fry, “New census data show more Americans are tying the knot, but mostly it’s the college-educated (February 6, 2014).”

로 예상되지만, 이 인구수는 2045년에는 4천만 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발전을 둔화시키고, 노동력의 감소와 국가 위상의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¹³⁾ 출산율의 저하가 인위적인 출산 조절 뿐 아니라 불임이나 인공 유산의 시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생명을 잉태하지 않으려는 결정은 두려움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 가지 위협과 무서운 통계 자료에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다가가지 않고, 풍부한 열매를 맺는 관계를 피합니다. 우리는 두려워질수록 점점 더 위축됩니다. 불임은 충만하게 살아있지 않은 경험이며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나웬 신부님은 이러한 불임을 “영적인 상처”라고 하였습니다.¹⁴⁾ 당신을 만난 후에 더 이상 두려움과 소외감에 얽매이지 않게 된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창조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생명을 주는 물을 주셔서 이러한 영적인 메마름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요한 4장).

열매 맺는 삶을 축하하자

생명을 부정하는 다양한 현상에 직면해서 인간 생명에 관한 가톨릭 교리는 긍정적이고 확실하게, 흔들림 없는 자신감과 열의를 갖고 풍부한 열매를 맺는 의미 있는 삶을 격려합니다. 교회는 신자들과 사회 전체를 초대하여 그들이 방향과 신념을 잃고,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공허하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가족

현재의 문화적인 흐름은 많아야 한 두 명의 자녀와 부모로 이루어진 핵가족입니다. 그러나 영웅적으로 예외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제가 사목하는 본당에는 자녀가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킬머 가족, 맥타비시 가족, 그린 가족, 모이니한 가족, 하들리 가족, 마르쿨린 가족, 마자리고 가족 등이 그렇습니다. 이 가족들에는 각각 11명, 10명, 9명, 7명... 등의 자녀가 있습니다. 핵가족 시대에 눈에 띄는 가족들입니다. 저는 이 가족들을 가끔 방문하여 함께 식사를 하곤 합니다. 아이들은 행복해하고, 형제들과 함께하는 자신의 생활을 즐거워하며 서로

13) 한국경제매거진 제 946호 (2014년 01월 13일), 2020년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인구 감소로 국력 ‘흔들’.”

14) Nouwen, *Lifesigns*, 46-47.

를 돌보아 줍니다. 저는 어떠한 이기주의나 자기 권리 주장에 대해서 거의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에 대해 아주 만족해했고, 다른 가족들이 가진 것에 대해 부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영적인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 합니다. 그들은 미사에 함께 참여하는데 평일 미사에도 자주 참여합니다. 각각의 아이들은 고유하고 개별적인 영적 성장을 이루어나가도록 격려와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목한 한 가지는 그들 중 아무도 비디오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텔레비전도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가끔 함께 카드 게임을 하고, 축구, 야구, 자전거타기, 수영 등등의 야외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들은 함께 즐겁게 지냅니다. 아이들 중 몇몇은 이웃의 더 나이 많은 아이들로부터 피아노 치는 법을 배우는데, 아주 잘 칩니다. 몇몇은 집에서 공부를 합니다. 홈스쿨(homeschool)에서는 고전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그들은 가장 본질적인 내용들을 배웁니다.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동시대의 언어들과 함께 배웁니다. 이 아이들 중 몇 명은 성당의 잔디밭을 돌보기도 합니다. 여름에는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곤 합니다.

이 가족들 중 한 가족이 몇 개의 주요 텔레비전 방송 채널들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인터뷰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CNN은 인터뷰를 매우 부정적으로 내보냈습니다. 대가족이 보여주는 다양한 측면 대신에, 인터뷰 질문자는 11명의 자녀들을 대학교에 보내는 것에 대한 어려움에 초점을 맞춰 얘기했는데, 이는 부모가 기본적으로 무책임하다는 점을 암시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저는 비슷한 질문을 아이들에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 중 한 명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하고 확신에 차서 어떠한 불안이나 꾸밈의 기색이 없이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이들 가족들 사이에서 느낀 것은 진정한 행복과 감사와 만족감이었습니다. 다산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참된 축복이었습니다. 가족은 인간성과 사회적인 덕목을 배우는 학교이고, 그 곳에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용서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들에게 가족은 지역 교회이고, 안전과 따스함을 느끼고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야전 병원”¹⁵⁾이기도 합니다.

15) 2013년 8월 안토니오 스파다로 신부와의 인터뷰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하고 신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해지고 가까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전쟁터의 야전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그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지 혈당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선 상처를 치료해주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밖의 다른 것에 대해 물어야 합니다. 먼저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가장 본질적인 것에서

입양

열매 맺는 삶의 또 다른 표지는 입양입니다. 입양이 한국에서는 거의 금기시되고, 매우 드문 것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에서는 일반적이고 흔합니다. 제가 사목하는 성당의 사무장은 4명의 아이들을 입양했는데, 두 명은 베트남인이고, 두 명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입니다. 제가 아는 다른 가족은 5명의 자녀들이 있는데도 한국에서 3명의 십대 아이들을 입양했습니다. 입양한 아이들은 정신적·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결코 부유하지 않았지만 이 아이들을 기꺼이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잘 돌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아프리카 작은 나라의 미국 외교관은 업무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 여러 해 동안 머물기를 자원하였습니다. 그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19명의 아이들을 입양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미국에 있는 대학교로 보냅니다.

이들의 용기와 관대함, 이타적인 마음과 자기희생의 사랑은 성령의 열매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자신의 자녀와 입양한 자녀 모두의 행복입니다.

부모 역할에 대한 영적 방향

놀랍게도 미국의 많은 가족이 아이들을 입양합니다. 이들은 입양을 통해 새로 만들어진 미지의 가족생활에 기쁘게 뛰어듭니다. 이는 하느님의 존재와 섭리를 알고,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닮으려는 믿음의 행동으로, 입양한 자녀들과 이 세상에 생명과 희망을 줍니다.

이 부모들의 공통점은 자녀들의 궁극적인 행복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심은 일시적이거나 세속적인 성공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들 가족만이 아닌 다른 이들의 필요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제가 10살이었을 때, 아버지께서 친구 분들과 나누시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시던 중에 아버지는: “나는 내 자녀이기에 앞서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양육하고 있어. 나의 임무는 그 아이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이 세상의 성공, 좋은 학교, 좋은 직업, 돈이나 명성, 유산을 남기는 것 등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개인의 기도 생활, 가족 기도, 성당에서의 생활을 통

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Cardinal Walter Kasper uses Pope Francis’ famous designation of the church, in his *The Gospel of the Family*, 14.

해 삶에서 느끼는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모든 형제들이 아버지 주위에 모였을 때 아버지는 입가에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좋을 거야!” 우리 중의 누군가가 여쭙보았습니다. “어째서요?” “내가 죽고 난 후에 너희들이 다투어야 할 재산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 잘 되었지.” 그 말씀에 우리는 모두 함께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운동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시거나 돕는 일들은 잘 하셨지만, 재산을 모으는 일에는 소질이 없으셨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처음 만난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느닷없이 제게 아이가 몇 명인지 물었습니다. 제가 약 8천명이라고 얘기했더니,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저는 그를 신부라고 부르는 본당 신자 분들에 대해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아버지의 역할은 제게는 아주 근사한 축복이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러기를 희망합니다. 사제로서 저는 사람들의 가장 신나는 순간과 가장 슬픈 순간에 그들 영혼 내면의 성스러운 곳으로 초대되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결혼을 주례하고, 회개와 기쁨 바름을 통해 하느님의 치유와 용서를 전하고, 성체성사와 다른 성사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사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행복한 아버지가 되어갑니다.

충만하게 열매를 맺는 활기찬 생활을 향하여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요한 10,10). 그 분은 우리가 풍요로운 생명과 완전한 인간의 충만함을 얻고 기뻐하기를 바라십니다. 리옹의 주교 이레네오께서는 “하느님의 영광은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고, 사람의 생명은 하느님의 비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¹⁶⁾ 자유롭고, 창조적이며, 역동적이고, 비옥하며, 열매를 맺고 아이를 많이 낳는 인간의 삶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풍요로움과 창조성과 비옥함에 충실하게 참여하는 삶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충만한 삶을 축하하고 증진시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가족은 작은 교회, *교회 안의 교회*입니다. 가족에는 사회적 차원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사랑의 문명을 세상에 건설하는 데 기여하는 사명입니다.¹⁷⁾

16) “하느님의 영광은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고, 사람의 생명은 하느님의 비전이다. 하느님께서 창조를 통해 지구상의 모든 존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하느님을 찾는 이들에게는 말씀이신 성자를 통해서 얼마나 더 생명을 풍요롭게 해 주시겠는가” (AH IV, 20, 7).

다산은 교회의 사목과 전례 생활에서 희망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손을 많이 낳고 번성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손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가득 차다...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더욱 퍼져나갔다(탈출기 1,7.12).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의 생존과 존재 자체는 우리가 신학적이고 영성적으로 스스로를 비추어볼 수 있도록 해 줍니다. 하느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계약은 번복될 수 없는 것이며, 다른 민족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들의 소명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포함하여 가장 가혹한 역경과 종교적 박해를 극복하였습니다. 그들이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하였고 살아남았다는 것은 진실이라 생각합니다.¹⁸⁾ 인간 중심주의적인 계산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하느님께 대한 순명이었고, 이사악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것처럼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조차도 하느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사악이 그의 아들 야곱을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어, 네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하시며, 네가 민족들의 무리가 되게 해 주실 것이다.” (창세기 28,3).

전적으로 하느님 중심으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달리 현대인들은 인간중심주의로 전환하여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고, 심지어는 하느님의 통치권을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신을 중심에 두는 문화 안에서 다산의 풍요로움을 가진 가족은 하느님의 섭리와 자비, 그리고 생명을 주는 사랑을 드러냅니다.

신약 성경에서 다산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은 하느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자라나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마르코 4,20, 마태오 13,23, 루카 8,15). 오늘날 인간 중심의 문화를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하느님의 말씀이, 하느님의 뜻과 계획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표시입니다.¹⁹⁾ 올바른 삶은 모든 관계들, 즉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가 고유한 질서 안에 있는 삶입니다. 이는 우선순위와 태도를 재조정하고 새롭게 정비할 것을 요구합니다. 삶의 여정을 전환하여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참회 혹은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

17) Walter Kasper, *The Gospel of the Family*, 11.

18) 에밀 버하드 콘은 말합니다: “세상 곳곳에서 살아남고 아이들을 낳으며 다시 태어난 국가와 공동체들 안에서 생명을 재건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하느님과의 신성한 계약에서 나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느님의 고난 받는 종과 초월성의 목격증인으로서 자신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인식이 결정적입니다.” his *This Immortal People: A Short History of the Jewish People* (Mahwah: Paulist Press, 1985), 166-167.

19) Ronald Witherup, “Fertility,” in *The Collegeville Pastoral Dictionary of Biblical Theology*, 333.

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마태오 3,8). 다산의 삶은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에 뿌리를 둡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파괴된 세계와 인류에게 오셔서 우리 모두를 고치시고 낮게 해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자 치유의 원천이신 분과의 관계회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요한 15,5).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참으로 의미 있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성장하게 하십니다(1코린토 3,6). 자손이 번성함을 나타내는 표지와 상징들, 예를 들면 대가족, 입양, 창조적이고 희망적인 사람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갖고 기뻐하게 되는 이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의 뜻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삶에 스스로를 개방하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은 풍부한 열매를 맺는 비옥하고 충만한 삶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한다네,
우리를 축복하기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지.
생명을 위해 견배, 르하임, 생명을 위하여.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기뻐하길 바라실거야
우리의 심장이 지쳐 숨이 차서 바닥에 누워있을 때에도*

글을 마치며

1. 다산은 결혼의 선물이자 목적으로, 가족과 세상에 생명과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만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 창조의 고유한 능력을 부모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아이들은 부부 사랑의 살아있는 반영입니다. 아이들은 인류의 현재이며 미래입니다.

2. 생명의 충만함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계획과 우리의 역할에 관하여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안에서 스스로를 내어주시는 생명과 사랑의 하느님과의 친교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신비를 성찰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부부의 사랑은 하느님과 그분의 자비로움을 닮아가는 것으로, 온 가족이 하느님께로 향하는 일상의 여정 속에서 성화의 길을 닦아 나가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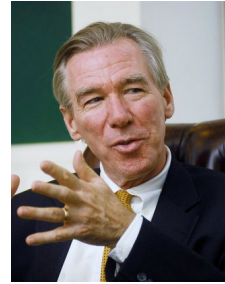
3. 생명의 풍요로움을 살아가는 방법은 결혼을 하지 않거나, 많은 자녀를 갖지 않으려 하거나, 인위적인 출산 조절, 인공 유산, 아이를 입양하는 일을 꺼리거나 대가족에 대한 편견을 갖는 등 생명을 황폐하게 하는 현상들을 극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²⁰⁾

4. 가톨릭교회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도록, 결혼한 이들은 많은 자녀를 갖는 것에 좀 더 개방적이고 관대해지도록, 또한 가족으로서의 영적인 거룩함을 함께 찾아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5. 대가족에 대한 문화적, 법적 편견은 사라져야 합니다. 정부는 사회의 선익을 위하여 대가족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충만한 삶은 성령을 따르고, 관대하게 성령의 뜻에 순명하며, 성령의 열매인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갈라티아 5,22)를 기뻐하는 삶입니다.

20) 한국에는 생명을 부정하는 다양한 표지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군대 안에서의 지속적인 폭력, 학교에서의 왕따 현상, 저명한 인사들의 자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낙태 시설 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간 300,000만 건 이상의 낙태를 허용하는 가족계획이 인간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비용의 45%를 연방정부와 낙태 유도약 비용까지 부담하는 오바마 정부의 건강 보험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John H. Garvey 총장

Prof. John H. Garvey (President, CUA)

■ Education

- Harvard Law School, J.D. (cum laude), Harvard Law Review: Treasurer (1974)
- Harvard Divinity School, Candidate for M.T.S. degree (1970-71)
- University of Notre Dame, A.B. (summa cum laude) (1970)

■ Employment

-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ident (2010-)
- Boston College Law School, Dean (1999-2010)
- Notre Dame Law School, Professor (1994-99)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Visiting Professor (1985-86)
- University of Kentucky College of Law, Professor (1976-94)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Assistant to Solicitor General (1981-84)
- Morrison & Foerster, San Francisco, California, Associate (1975-76)
-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Second Circuit, Law Clerk to Irving R. Kaufman (1974-75)

■ Honors

● Chairs, Honorary Societies

- John J. Keane University Professor, Catholic University (2010-)
- Ashland Professor of Law, University of Kentucky (1990-94)
- Wendell Cherry Professor of Law, University of Kentucky(1986-90)
- Law Alumni Professor of Law, University of Kentucky(1981-85)
- Phi Beta Kappa, University of Notre Dame(1970)

● Awards, Fellowships

- Catholic Press Association Award, Sexuality and the U.S. Catholic Church (2006)
- Alpha Sigma Nu Book Award, Religion and the Constitution (2004)
- Duncan Faculty Award (excellence in teaching), University of Kentucky (1993)
-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University of Kentucky (1989-90)
-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Fellow (1982-1983) (declined)
-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Summer Stipend (1980)
- Danforth Foundation, Fellow (1970-1971)

■ Publications

● Books

- Religion and the Constitution, Aspen, 3rd ed., 2011 (coauthor)
- Sexuality and the U.S. Catholic Church, Herder & Herder, 2007 (coauthor)
- What Are Freedoms For?,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 Modern Constitutional Theory, West Publishing, 5th ed., 2004 (coauthor)
- The First Amendment, West Publishing, 2nd ed., 1996 (coauthor)

● Book Chapters

- *Foreword*, in A Reason Open to God,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13
- *Men Only*, in Morality, Harm, and the Law, Westview Press, 1994
- *Freedom and Representation*, in Kindred Matters,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 *Fundamentalism and Politics* in Fundamentalisms and the State, Chicago University Press, 1993
- *Fundamentalism and American Law* in the same volume, Chicago University Press, 1993

The Changing American Family

Thank you for your invitation to speak at the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Your President spoke at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during my inaugural year, and it is an honor for me to be able to return the favor.

I have been asked to share some thoughts about marriage and family. It is a subject I have thought a lot about in recent years. I have been married for 39 years. My wife and I have five children and 16 grandchildren. Though our grandchildren are still very young, we find that they are growing up in a world very different from the one we, and even our own children, were raised in.

Let me begin by painting a picture of those two different worlds. American television is a mirror we hold up to ourselves. Broadcast and cable companies measure audience approval ratings. The most important measure of success for a television show is how many people watch it. So popular television shows tell us something about ourselves.

50 Years of Television Families

1. One of the dominant television narrative forms has been the situation comedy ('sitcom') – a genre that has weekly episodes with the same characters, setting, and often storyline. Many popular sitcoms have been domestic comedies. Those produced in the 1950's and 1960's usually featured married couples with two or three young or teenage children: *I Love Lucy* (1951-1960), *Ozzie and Harriet* (1952-1966), *Father Knows Best* (1954-1960), *Leave it to Beaver* (1957-1963), *The Donna Reed Show* (1958-1966), *The Dick van Dyke Show* (1961-1966).¹⁾

1) Though there were variations on this family structure, marriage was always understood as the

In a typical episode some problem would arise within the family. It would be resolved by the show's end, often through the moral growth of one of the characters, and family harmony would be restored. In the *Leave it to Beaver* episode "Music Lesson," for example, Beaver gets cut on the first day of band tryouts. He doesn't want to disappoint his parents, so he doesn't tell them, and continues to bring his clarinet to school. He learns his lesson when his mother decides to attend a band concert.

These early domestic sitcoms made several assumptions about what families are like. First, families are built by a father and a mother who are married to one another. Marriage is a permanent commitment that holds the family together. There are single-parent families. (*The Andy Griffith Show* and *My Three Sons* were two popular illustrations.) But these were remnants of intact families left when one spouse died.

Second, children are born into and raised in intact families. In rare cases such a family might adopt a child.²⁾ But unmarried men and women do not have children.

Third, the topic of sex simply does not come up. People don't make jokes about it, because it is a serious matter. People don't even discuss it in public, because it is a private concern shared by mothers and fathers and not by other people.

2. This family format endured in the domestic sitcoms of the 1970's and 1980's. The families were typically larger (five, six, or even seven children). And the shows were willing to take on more serious issues than Beaver's music tryout. But series like *The Waltons* (1971-1981), *Little House on the Prairie* (1974-1983), and *The Cosby Show* (1984-1992) were built around a loving, married mother and father and their offspring. *The Brady Bunch* (1969-1974) introduced a blended family – a widower with his three children married a woman who also had three children. The producer wanted the woman to be a divorcee, but

foundation. Some shows, like *The Honeymooners* (1955-1956), involved a husband and wife without children. Others involved single parents, usually widowers, with children: *Andy Griffith* (1960-1968), *My Three Sons* (1960-1972).

2) Trisha was written into the cast of *The Donna Reed Show* as an adopted daughter after Shelley Fabares left the show to pursue her own career.

the network wouldn't allow it.

3. *Friends* (1994-2004), the most influential series of the 1990's, proposed the idea that men and women can be happier with friendship and casual sex than they are with marriages and families. *Friends* followed the lives of six twenty-somethings (Ross, Phoebe, Rachel, Chandler, Monica, and Joey) getting their start in New York City. It endorsed an idealized view of the single life. Casual sex was a constant focus of conversation and activity (though it was far more mild than the HBO counterpart *Sex and the City*). Characters would drift in and out of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and with outside characters. Marriages would occur and break up. One of Ross's three wives left him for a woman. Ross and Rachel accidentally got married in Las Vegas.

Though more than a half dozen children were born in the series, none were to married parents. Phoebe carried triplets as a surrogate mother for her brother, who was married to a woman past child-bearing age. Ross's first child (who all but disappeared from the show after the first few seasons) was born to his lesbian ex-wife. His second child was born to co-star Rachel, the result of a one-night stand between other relationships. Chandler and Monica could not have children, so their children were adopted from a pregnant teenager.

Although *Friends* was eager to promote this alternative lifestyle, it was too timid to address it with even a hint of realism. The characters might get pregnant or divorced, but their lives barely missed a beat. Once the group had talked it out over wine or coffee, no problem had a lasting impact, no sin had a consequence. Every kind of behavior had a place in the flexible 90's morality, so no one ever needed to feel bad about what they had done.

4. Contemporary domestic sitcoms like *Modern Family* (2009-) and *Parenthood* (2010-) take a more realistic view of life than *Friends*, though the families they follow are very different from what we saw two generations, or even one generation, ago. Jay, the patriarch in *Modern Family*, is an older divorced man remarried to a much younger divorced woman. His daughter Claire has been married for 20 years and has three children. His son Mitch is

gay. Mitch and his partner of eight years adopt a daughter from Viet Nam in the pilot episode. They are portrayed as caring fathers.

Parenthood is a story about three generations of the Braverman family. The patriarch and matriarch, Zeke and Camille, have been married for 46 years and have four children. Both have had affairs during the course of the marriage. The oldest son, Adam, is a happily married father of three. Daughter Sarah is a single mother of two; her ex-husband was a substance abuser. Son Crosby learns in the pilot episode that he has a five-year-old son by a former lover. He has another affair in season 2, before finally marrying his son's mother in season 3. The youngest daughter, Julia, a mother of two, is a busy lawyer with a stay-at-home husband. In season 5 he moves out after she has several affairs.

These current series portray the family as an important, though somewhat malleable and impermanent, structure. In the typical form a man and a woman are married to one another and living with their biological children. But only three of the eight couples on these two shows fit that description (Claire and her husband in *Modern Family*; Zeke and Camille, Adam and his wife in *Parenthood*). Couples may be straight or gay, married or not. They are in principle monogamous, but that is an ideal that is hard to achieve. Families form, break up, and reform. Parents might be married or not when they have children. They might raise the children they have, or someone else might.

Uncoupling Marriage, Sex, and Children

The changes we see in TV families match what we see in the real world. The first assumption early sitcoms made about families was that they are built by a father and a mother who are married to one another. Between 1970 and 2010 the number of marriages per 1000 adult women in America declined by more than 50%.³⁾ This was due in part to women postponing the age at which they marry. But it was also due to an increase in the rate of divorce,⁴⁾ and to increasing numbers of people who cohabit without marrying. "More than 60

3) The National Marriage Project, *The State of Our Unions* 62 (2012).

percent of first marriages are now preceded by living together, compared to virtually none fifty years ago.”⁵⁾

The second assumption early sitcoms made was that children are born into and raised in intact nuclear families. But in 2010 nearly half of first births in America were to unmarried women. Almost three-fourths of first births to women under 25 were to single women.⁶⁾

It is harder to measure change in the third point we see in old domestic sitcoms (that the topic of sex does not come up). But a moment’s reflection about conversations in the workplace, in schools, on television and radio talk shows, and in popular print media will show that we live in a culture obsessed with sex – who’s having it with whom, and when and where and how.

In sociological terms this is nothing short of a revolution. We are witnessing a radical transformation in an institution that has been the foundation of our social, religious, and civic life. I don’t have time or wisdom enough to examine the effects of this change on the larger social structures built upon the family.⁷⁾ Nor do I know enough to draw all the social vectors that have combined to push us in this direction. For purposes of this lecture I want to pick out just one: the changes in our behavior made possible by the invention of an effective form of artificial contraception.

The pill was first approved by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or use as a contraceptive in 1960. This allowed people to separate sex from children. And that uncoupling changed three things: sex itself, children, and relationships between men and women. Though the pill promised to change all three for the better, though *The Economist* called it the most important scientific advance of the 20th century,⁸⁾ contraception has in fact led to a cheapening of sex, difficulties in the way men and women relate to one another, and

4) *Id.* at 67.

5) *Id.* at 76.

6) <http://www.childstats.gov/americaschildren/famsoc2.asp>

7) For example, an interesting new book argues that the decline in religion in the West followed, and was caused by, the decline of the family. The bonds of marriage and child-rearing help keep people in the pews on Sunday. When those bonds are broken, religion has a hard time sustaining itself. Mary Eberstadt, *How the West Really Lost God* (2013).

8) *The Liberator*, *The Economist* (Dec. 23, 1999).

above all, harm to children.

This seems almost counterintuitive. When the early advocates of contraception made the public case for its legalization, their promise was “every child a wanted child.” In those more innocent times we pictured married couples wanting to bring children into the world, but doing so in a way that would not jeopardize the mother’s health or strain the family’s resources to an insupportable degree.⁹⁾ Contraception, it was promised, would allow husbands and wives to engage in sexual activity without having to plan on the possibility of a pregnancy every time. Pope Paul VI’s 1968 encyclical *Humanae Vitae* expressed the appeal of such a vision:¹⁰⁾

Given the conditions of life today, and given the importance that conjugal relations have for harmony between husband and wife and for their mutual fidelity, would not a revision of . . . ethical norms . . . be perhaps advisable, especially when one considers that they cannot be observed without sacrifices, sometimes heroic sacrifices?

But in changing pregnancy (by effectively separating conception from sexual activity) we changed sex. The weighty consequences associated with the possibility of conception once made sex a really significant activity – as significant as the life that might follow from it. For that reason sex was generally something premeditated. Most obviously, people refrained from it outside of marriage. Its physical, economic, social, and psychological dimensions were a part of the consideration of sex, and having sex was not to be taken lightly. This was our social practice, enforced by notions of virtue, counsels of prudence, legal rules, and social

9) <http://www.plannedparenthood.org/planned-parenthood-massachusetts/who-we-are/our-history/pplm-wanting-every-child-be-wanted-child/>This anecdote on the Planned Parenthood website illustrates the point:

One desperate young Boston mother wrote: I am only 21. I was married at age 18 and started carrying my first child after only one period. I am expecting my third child the same month my oldest will be only three. My husband is making \$14.00 a week. If you could only help me I would be eternally grateful. Heaven knows after this one I don't want to bring more helpless children into the world and not be able to provide for them right.

10) Pope Paul VI, *Humanae Vitae* § 3 (1968).

taboos. So closely were sex and marriage linked that sex was referred to as the “marital act.” English and American common law used the term “marital rights” to refer to a husband’s right to sexual relations with his wife. (In this regard the common law was sexist. A woman did not have a right to sexual relations with her husband.)

Contraception took what was once a single contract linking sex to marriage and babies, and made it into three separate contracts. Sex is one thing, having babies another, and making a lifelong commitment still a third. Whereas a sexual union once implied a commitment not only to a possible baby, but also to one’s partner as the mother or father of the child, contraceptive sex carries no such commitment. All that is implied is a shared pleasurable experience for as long as one’s partner wants it.

If a baby does enter this picture, it has nothing to do with the sex. It is the subject of an entirely new and separate agreement, one about parenthood, and possibly (but not necessarily) a relationship between partners. Sex is now about two people, not three.

At the same time, contraceptive sex changed how those two people relate to one another. Old-fashioned sex required one to think about the other as procreator (i.e., as a potential mother or father). Contraceptive sex removed that obligation. If sex is the only thing on the table, one need not consider the wider context of the relationship: the emotional, intellectual, spiritual, moral compatibility of one’s partner; her financial and social situation; one’s own ability to make a serious commitment of time and energy and love. The other party only needs to be seen as sexually desirable for this union, if that’s not too enduring a word for what is often a one-night stand. This has some social and moral implications I will say more about. My point here is just that by changing sex, we fundamentally altered the way men and women relate to one another in romantic and sexual relationships. This is really important, given how essential those relationships are to the health and structure of individuals, communities, and society.

Let me turn now to how separating sex from children has affected children and parents, and everyone around them.

Children

The new sexual contract has had a profound impact on the way we view children. The alluring promise of early contraception advocates, to make every child a wanted child, was that sex on these terms would create a more supportive environment for child-rearing. Margaret Sanger's campaign was as much about the well-being of children as of women. A wanted child was more likely to be nurtured, supported, and provided for in all her social, financial, emotional, and physical needs than an unwanted one.

As things turned out, contraception had the opposite effect. If by a supportive, nurturing environment we mean a stable family with a mother and a father, the kind depicted in domestic sitcoms in the 1950's and 1960's, the widespread use of contraception has been counterproductive. "The Pill and its associated movement, the sexual revolution, contributed to the weakening of family bonds as no other single technological force in history"11) More children are being born into unstable families. According to recent data from the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the percentage of all births to unmarried women has risen from 18% in 1980 to 41% in 2011.12) To understand why, we have to think again about what happens when sex is separated from the commitments associated with children. Children were once seen as the fruit of a relationship, and that relationship was characterized by one very specific activity: sex. If you were going to have sex, you had to be prepared to welcome a child, and the best way to do that was to enter into a committed, lifelong relationship. The relationship, the sex, and the child all went together.

When contraception uncoupled sex both from the relationship of people bound to one another, and from the creation of children, it made children extraneous to sex. If a baby resulted from failed contraception, it was a mistake rather than a natural expectation. At the same time, contraception encouraged the expectation that sex of any kind -- uncontracepted sex and even, on a certain view, sex within a marriage -- should not create an expectation

11) *How the West Really Lost God*, 135.

12) <http://www.childstats.gov/americaschildren/famsoc2.asp>

of enduring commitment.

It's not hard to see how this new way of approaching sex quickly became linked to a rise in single parenthood. With contraception as a way of life, sex is a recreational activity that carries no expectation of lifelong commitment to one's partner or to raising a child. The commitment question arises only after a child is conceived. And since committing to marriage and child-rearing is more work and less fun than sex, it's hardly surprising that men walk away, leaving mothers to raise children alone (or with the government's help). Crosby Braverman in *Parenthood* did not even know he had a son until the boy was five years old.

George Akerlof explored the unexpected relation between contraception and single parenthood in a seminal paper in the mid-1990s. Akerlof observed a curious phenomenon at the beginning of his paper. Out-of-wedlock births nearly doubled among African Americans between 1965 and 1990, and more than quintupled among whites (rising from 3.1% to 18%) during the same period – the time between *Leave it to Beaver* and *Friends*. The finding is counterintuitive, when you recall that contraception gained wider acceptance during those years and abortion became legal. Akerlof also noted a drop-off in another social phenomenon: so-called “shotgun marriages.” “For whites the shotgun marriage ratio began its decline at almost the same time as the advent of female contraception for unmarried women and the legalization of abortion.”¹³⁾ So contraception did not change the fact of unwanted pregnancies, but it did change how we dealt with them. It eliminated the expectation that a pregnancy meant a marriage would follow.

The effects of singleton parenting are bleak. We know, for instance, that children raised by a mother and a father who are married to one another are better positioned to succeed than those who are not.¹⁴⁾ Children reared in intact homes are more successful academically and more healthy emotionally; they have better familial and sexual development, and are less

13) George Akerlof, Janet Yellen, and Michael Katz “An Analysis of Out-of-Wedlock Childbearing in the United Stat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1, No. 2 (May, 1996)) p. 279.

14) *The State of our Unions, 2012*, a publication of The National Marriage Project (www.stateofourunions.org) Jeffrey Rosenberg and W. Bradford Wilcox, *The Importance of Fathers in the Healthy Development of Children*, a publication of the Office on Child Abuse and Neglect

likely to end up in jail.¹⁵⁾ They are more likely to report high self-esteem, and less likely to wind up pregnant as teenagers. They are also less likely to be abused or neglected.¹⁶⁾

The new arrangements that contraception has given rise to (single mothers, single fathers, mothers with live-in boyfriends, fathers with live-in girlfriends) all fall short of the stable, nurturing environment that married couples provide for children.¹⁷⁾ Biological fathers are more involved and affectionate with their children than cohabiting partners.¹⁸⁾ Social science confirms a conclusion drawn by nearly every civilization in recorded history: children do best with a mother and a father who are committed to one another and to raising their children.

In these arrangements the big losers are not the men and women seeking their bliss, but the children born into an unstable environment. Contraception promised to raise the standard of living for children, to make every child a wanted child. But it didn't. More unwanted children are born because of it, and those who are wanted are often born into homes without the two parents they need.

Parents

At the same time, contraception does not seem to have delivered the goods it promised to women. Women were supposed to be (along with wanted children) the lucky beneficiaries of contraception. It promised them greater control of their bodies, and therefore more freedom of choice about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y would have children. This greater freedom was

15) Ryan T. Anderson *Marriage: What It Is, Why It Matters, and the Consequences of Redefining It* (<http://www.heritage.org/research/reports/2013/03/marriage-what-it-is-why-it-matters-and-the-consequences-of-redefining-it>)

16) Bradford Wilcox and Robin Fretwell Wilson *Bringing Up Baby: Adoption, Marriage, and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No. 2006-28) 903-904.

17) <http://www.washingtonpost.com/posteverything/wp/2014/06/10/the-best-way-to-end-violence-against-women-stop-taking-lovers-and-get-married/>

18) Bradford Wilcox and Robin Fretwell Wilson *Bringing Up Baby: Adoption, Marriage, and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No. 2006-28) 897.

supposed to help them prevent pregnancies that would leave them overtaxed, financially or emotionally constrained, forced to raise a child in poverty, forced to compromise that child's upbringing, and so on.

It is a great and sad irony that contraception did not do these things for women. By changing the terms of the sex contract, contraception left women who got pregnant more vulnerable than they once were. Contraception effectively moved most of the responsibility for a child from those who engage in sex to those who get pregnant. And since those who get pregnant tend to be women, it is they who are disproportionately hurt by the shift.

Once sex is untied from babies, responsibility for babies is unlinked from sex. The question of what to do with the baby (abort it, put it up for adoption, raise it) is now the woman's exclusive choice¹⁹⁾ and her exclusive responsibility. In 2012, 24% of children were living with only their mothers, while only about 4% of children were living with only a father.²⁰⁾ The standard single parent is not Andy Griffith but Sarah Braverman. Though it supposedly gave women more choices with regard to sex and children, contraception cancelled the expectation that fathers would be responsible for an equal share in raising them. Women can choose to mother babies they conceive, but they have a hard time requiring fathers with whom they are only casually acquainted to do their part. As a result, many more women find themselves pregnant without the support needed to raise a child.

I said a moment ago that the life prospects of children raised by a single parent (usually a mother) are diminished. But it's important to see that the new arrangements hurt women and men too. Separating sexual activity from children (and from the promise of a monogamous commitment) has changed us. Commitments are character-forming. Both the commitment to a marriage and the commitment to parenthood have an important effect on becoming full-blown adults. Cultures throughout history have celebrated those who have the courage and maturity to take on the responsibilities of marriage and children. They have recognized the implications of such commitments for citizenship and membership in a

19) *Planned Parenthood of Central Missouri v. Danforth*, 428 U.S. 52 (1976).

20) <http://www.childstats.gov/americaschildren/famsoc2.asp>

religious community, for building healthy societies, and for forming people in virtue.

The separation of sex, commitment, and babies has compromised this important step in character development. Sex is still considered a rite of passage, but it is separate from the morally challenging commitments that gave it real significance. As a result, young people develop different moral habits around sex, and these habits make the commitment to lifelong marriage more difficult. Even people interested in marriage and children in the long run (and most people are) now think they can have casual sex for a decade or two without serious repercussions.

This is a naïve moral view. It ignores the effects that habits (good and bad) have on our patterns of behavior. Habitual casual sex makes a person good at casual sex. It does not prepare him or her for the kind of monogamous, self-giving relationship required of a parent and spouse. Likewise, the discipline required to wait for sex until marriage is good preparation for the discipline required to remain faithful in a marriage. The honoring of potential children expressed by avoiding sex and the risk of pregnancy before marriage forms habits associated with being a good parent.

Dispensing with the important moral growth that used to be associated with sex helps explain two phenomena. The first and most obvious is the prevalence of infidelity and divorce. When sex, commitment, and children are habitually separated it is hard to put them back together. We become accustomed to thinking of our sex lives as only accidentally related to commitment and children. To use the language of contracts again, we find it plausible to cancel our contracts on sex and commitment without cancelling our contract on raising children. This is at least in part because contraception has taught us to view sex as separate from responsibility to other people.

The second effect is on dating and selecting a spouse. When sex and babies are connected, dating is a process of looking for a partner who exhibits the virtues of a good spouse and parent. One asks whether a partner will be a good provider, whether he has good character, whether he is capable of making a lifelong commitment.

When sex and children are separate, the qualities sought in a sex partner tend to be more

superficial. Good sex doesn't require good character or lifelong fidelity. Lucretius argued that people enjoyed sex more if it was uncomplicated by any romantic attraction.²¹⁾ Over time the qualities that we develop a taste for in a contraceptive culture are not those we associate with lasting love. There tends to be a heightened emphasis on physical attributes, and on fleeting emotional satisfaction. For many people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finding a significant other, or even just a date on Friday night, means spending time at the gym or the spa, not becoming more interesting or morally good. The upshot is a sexual culture stuck in a perpetual adolescence that never matures into the kind of sexual culture that can support families and future generations.

The 2007 film *Juno* illustrates the point nicely. It tells the story of Juno MacGuff, a quirky teenager who gets pregnant in high school and decides to find a family for the baby rather than abort it. Mark and Vanessa Loring seem to be the perfect upper-middle class couple, eager to adopt her child. They cannot have biological children, we learn, and Vanessa is dying to be a mother. But as the baby's birth draws closer, Mark starts to back out. After a fight with his wife he explains "I never promised I'd be a good father." In the end Mark bails, not only on the baby but also on the marriage, and Vanessa is left to raise the child alone. The tragedy of contraception is not just that it increased the Junos in the world; it also increased the Marks.

Conclusion

I want to conclude with a few thoughts on what all of this means for Catholics. The first is about surviving this culture. I have made the case that contraception pulls apart three things that ought to go together – sex, commitment, and children – and that this is harmful for sustaining healthy families. It is the message about sex that Catholics have heard for two millennia. Paul VI affirmed it in *Humanae Vitae*. But it's a message that has little traction in recent decades.

21) Lucretius, *On the Nature of Things* bk. IV.

The reality is that Catholics today who choose not to contracept will find themselves in the minority, even within their church. This makes it harder, especially on the generations of Catholics who have grown up accustomed not only to contraception, but to its many bad consequences: single parent homes; cohabiting parents; abortion and the morning-after pill; the prevalence of casual premarital sex; and the change in attitude toward sex and relationships and children that I have been discussing. Catholics who want to raise children who will one day grow up to be good parents have to be aware of how saturated the culture is with these attitudes toward sex, and to counteract them with a better message.

But it is not enough for Catholics to circle the wagons and protect our own. Our faith requires us to try to persuade others of the truth. And we have a special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care for children. An optimist might hope that future generations will see what a mess we've made of things, and try to put sex and children back together. I hope so. One step in that direction would be reaching young people with this message before they get hypnotized by the broader sexual culture. We try to do this in our churches and schools; sometimes by advocating for political policies.

But the best way to change the sexual culture is through the example of having families. As long as it is just a message about sex – and one with less immediate appeal to young people than its rival view – it won't have much force. When the message is embodied by families who model the love, support, and generosity that marriage and children bring to a sexual relationship,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saving sex for marriage, the message is harder to ignore. Having families like that – and supporting those families in our churches and communities – is our best hope for bringing sex, commitment, and children back together.

John Garvey

President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October 2, 2014

변화하는 미국 가정

Bernard Wonkil Lee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 포럼에 초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곳 가톨릭대학교 총장님이 제가 미국 가톨릭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던 해에 우리 학교에서 연설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제가 그 호의에 답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포럼에서 결혼과 가족을 주제로 한 발표를 부탁 받았는데, 이 주제는 최근 몇 년간 제가 많이 생각해 오던 것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39년이 되었고 우리 부부는 다섯 명의 자녀와 열여섯 명의 손자손녀가 있습니다. 손자손녀들이 아직은 많이 어리지만 이 아이들은 우리가 자랐던,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이 자랐던 세계와 매우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다른 세계에 대한 묘사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지요. 미국 텔레비전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방송국과 케이블 회사에서 시청률을 조사하는데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시청률, 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 50년 간 텔레비전에 등장한 가족의 모습

1. 동일한 등장인물과 설정, 기본 줄거리를 가진 에피소드가 매주 방영되는 장르인 시트콤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텔레비전 서술 구조 중 하나입니다. 다수의 인기 시트콤은 가족 코미디입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제작된 다음과 같은 시트콤에는 주로 결혼한 부부와 두세 명의 어린 자녀 또는 십대 자녀가 등장했습니다. *I Love Lucy* (1951-1960), *Ozzie and Harriet* (1952-1966), *Father Knows Best* (1954-1960), *Leave it to Beaver* (1957-1963), *The Donna Reed Show* (1958-1966), *The Dick van Dyke Show* (1961-1966).¹⁾

전형적인 에피소드를 보면, 먼저 가족 내에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종종 등장인물 중 한 명

1) 가족 구조에 다소 차이가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결혼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The Honeymooners* (1955-1956)와 같은 프로그램은 아이가 없는 부부를 다루기도 했다. *Andy Griffith* (1960-1968), *My Three Sons* (1960-1972)와 같은 프로그램에는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 주로 배우자와 사별한 남편이 등장한다.

의 도덕적 성장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가족들이 화목을 되찾으면서 에피소드가 마무리됩니다. 예를 들어 *Leave it to Beaver*의 에피소드 “음악 레슨”에서 Beaver는 학교 음악 밴드 첫날 탈락합니다. Beaver는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부모님에게 말씀드리지 않고 계속 학교에 클라리넷을 가지고 갑니다. 결국 엄마가 밴드 콘서트에 가기로 하자 그때 Beaver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초기 가족 시트콤은 가족의 모습에 대해 몇 가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족은 결혼한 부모에 의해 형성됩니다. 결혼은 가족을 결속하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한부모 가정도 있지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의 예로 *The Andy Griffith Show*와 *My Three Sons*가 있습니다.) 이들은 한쪽 배우자가 죽은 뒤 남겨진 가족들입니다.

둘째, 아이들은 친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랍니다. 드물게는 그런 가족들이 아이를 입양하기도 하지만²⁾ 미혼의 남녀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셋째, 성(性)과 관련된 화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은 진지한 문제이므로 사람들이 성에 대해 농담하지 않습니다. 성은 부부만이 공유하는 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 이러한 가족 형태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가족 시트콤에서도 계속됩니다. 이 당시 등장하는 가족은 보통 대가족이며 (자녀가 다섯, 여섯, 심지어 일곱 명까지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은 Beaver의 “음악 레슨”보다 더 진지한 사안에 대해 다루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The Waltons* (1971-1981), *Little House on the Prairie* (1974-1983), *The Cosby Show* (1984-1992)와 같은 프로그램은 다정한 부모와 그들의 자녀를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The Brady Bunch* (1969-1974)는 배우자와 사별한 아이 셋의 아빠가 아이 셋을 가진 여자와 결혼하는 혼합 가족을 소개하였습니다. 담당 프로듀서는 여자를 이혼한 여성으로 설정하려고 했지만 방송국에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3. 1990년대 가장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이었던 *Friends* (1994-2004)는 남녀가 결혼과 가족보다 우정과 가벼운 성으로 더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보여주었습니다. *Friends*는 뉴욕에서

2) *The Donna Reed Show*의 Shelley Fabares가 자신의 경력을 추구하기 위해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후 Trisha라는 인물이 입양 딸로 등장했다.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내딛는 여섯 명(Ross, Phoebe, Rachel, Chandler, Monica, Joey)의 이십대 젊은이의 삶을 다룹니다. 이 프로그램은 독신생활을 이상화한 관점을 지지합니다. 가벼운 성은 끊임없이 대화와 활동의 주제로 나오고 (HBO의 대응 프로그램인 *Sex and the City*보다는 훨씬 약하지만) 등장인물들은 서로 간에, 그리고 외부 인물들과 연애하다 헤어지다를 계속합니다. 결혼을 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Ross의 세 명의 부인 중 한 명은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져 Ross를 떠납니다. Ross와 Rachel은 우발적으로 라스베가스에서 결혼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여섯 명 이상의 아이들이 태어나지만 이들 중 아무도 결혼한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Phoebe는 가임기가 지난 여성과 결혼한 오빠의 대리모로서 세쌍둥이를 낳습니다. Ross의 첫 아이(처음 몇 시즌에서만 나오고 거의 사라진)는 레즈비언인 전 부인에게서 태어납니다. Ross의 둘째 아이는 하룻밤 관계의 결과로 공동 주역인 Rachel에게서 태어납니다. Chandler와 Monica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십대 임신부로부터 아이를 입양합니다.

*Friends*가 이러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고자 했지만 그런 문제를 리얼리즘에 입각해서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임신도 하고 이혼도 하지만 이들의 삶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와인이나 커피를 마시면서 같이 얘기하고 나면 어떤 문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고, 어떤 도덕적 죄에도 부정적 결과가 따르지 않습니다. 90년대의 느슨한 도덕 안에서는 온갖 유형의 행동이 설 자리가 있었기에 아무도 등장인물의 행동에 대해 기분나빠해야 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4. *Modern Family* (2009-), *Parenthood* (2010-)와 같은 현대 가족 시트콤의 등장 가족은 우리가 두 세대, 아니 한 세대 전에 보던 가족과 매우 다르긴 하지만 *Friends*보다는 삶에 대해 더 현실적인 관점을 취합니다. *Modern Family*의 가장인 Jay는 이혼남인데 나이가 훨씬 적은 이혼녀와 재혼합니다. 그의 딸 Claire는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고 세 아이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 Mitch는 동성애자이고 8년간 사귀 파트너와 실험 방송분에서 베트남 여자아이를 딸로 입양합니다. 이들은 자상한 아버지로 그려집니다.

*Parenthood*는 Braverman 가족 삼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Zeke와 Camille는 결혼한 지 46년이 되었으며 네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둘 다 결혼 생활 중에 외도를 했습니다. 맏아들인 Adam은 세 아이의 아버지로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딸 Sarah는 두 아이를 혼자서 키우고 있고 그녀의 전 남편은 약물 중독자입니다. 아들 Crosby는 이 실험 방송분에서 옛

연인과의 사이에 다섯 살짜리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시즌 2에서 또 한 번의 외도를 하고 시즌 3에서 마침내 아들의 엄마와 결혼을 합니다. 막내딸 Julia는 아이가 둘 있는 바쁜 변호사이고 남편은 집에서 살림을 합니다. 시즌 5에서 Julia가 몇 번 외도를 하자 남편은 집을 나갑니다.

최근의 이런 프로그램들은 가족을 다소 가변적이고 비영구적이긴 하지만 중요한 집단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가족 형태에서는 결혼한 남녀가 친자녀와 함께 삽니다. 이 두 프로그램의 여덟 쌍 커플 중 오직 세 쌍만이 이러한 형태의 가족입니다(*Modern Family*의 Claire와 그녀의 남편, *Parenthood*의 Zeke와 Camille, Adam과 그의 아내). 이성커플도 있고 동성커플도 있으며, 결혼을 한 커플도 있고 하지 않은 커플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들은 일부일처제이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이상적인 일입니다. 가족이 형성되고 해체되고 다시 형성됩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가 결혼을 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직접 키우고 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키우고 있기도 합니다.

결혼과 성과 자녀의 분리

TV에 등장하는 가족의 변화는 현실 세계에서의 가족 변화와 비슷합니다. 초기 시트콤에서 발견되는 가족에 대한 첫 번째 가정은 가족이란 결혼한 부모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1970부터 2010년 사이에 미국 성인 여성 1,000명당 결혼 건수는 50%이상 감소하였습니다.³⁾ 어느 정도는 여성들이 결혼 시기를 미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혼율의 증가와⁴⁾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람들의 증가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재 초혼의 60% 이상이 동거에서 이어진 것인데 50년 전에는 이런 현상이 거의 없었습니다.”⁵⁾

초기 시트콤의 두 번째 가정은 아이들이 친부모가 함께 사는 핵가족에서 태어나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0년 미국에서 태어나는 첫째 아이의 거의 절반이 미혼모 자녀였습니다. 첫 출산을 하는 25세 이하 여성의 경우 거의 75%가 미혼모였습니다.⁶⁾

3) The National Marriage Project, *The State of Our Unions* 62 (2012).

4) 위의 책 67

5) 위의 책 76

6) <http://www.childstats.gov/americaschildren/famsoc2.asp>

예전 가족 시트콤의 세 번째 가정(성을 화제로 삼지 않는다.)에서의 변화는 측정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직장과 학교,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토크쇼, 대중적인 인쇄 매체에 등장하는 대화를 잠깐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성에 집착하는 문화에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회학적 용어를 빌자면 이것은 혁명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생활, 종교생활, 시민생활의 근간을 이루던 제도에서의 근본적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가족을 근간으로 한 더 큰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만큼 충분한 시간과 지혜가 저에게는 없습니다.⁷⁾ 우리를 이러한 방향으로 몰아간 모든 관련된 사회적 매개체를 도출해낼 만큼 많이 알지도 못합니다. 이 발표를 위해 한 가지만 선택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효과적인 인공피임법의 발명이 가져온 우리 행동의 변화가 그것입니다.

피임약은 1960년 미국 식품의약품청에서 피임 용도로 처음 허가를 받았습니다. 피임약으로 인해 사람들은 성과 아이를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리는 성, 아이, 남녀의 관계, 이 세 가지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피임약은 이 세 가지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킨다고 약속했지만, 그리고 *The Economist*에서 피임약을 20세기 가장 중요한 과학적 진보라고 칭송했지만⁸⁾, 피임은 사실상 성의 가치를 떨어뜨렸고, 남녀의 유대 관계를 어렵게 만들었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는 직관에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초기의 피임 지지자들은 피임의 합법화를 주장하면서 “모든 아이는 원해서 낳은 아이가 될 것이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지금보다 순수했던 그 시기, 우리가 상상한 것은 엄마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가정이 지탱하지 못할 만큼 가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⁹⁾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어하는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피임 덕분에 매번 임신의 가능성을 계획할 필요 없이 부부가 성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약속되었습니다. 1968년

7) 예를 들어 최근의 한 흥미로운 책에서는 서구 사회에서의 종교의 쇠퇴가 가족 쇠퇴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결혼과 자녀 양육의 결합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요일에 교회에 나가도록 한다. 그러한 결합이 깨지면 종교는 지탱하기 힘들게 된다. Mary Eberstadt, *How the West Really Lost God* (2013).

8) *The Liberator*, *The Economist* (Dec. 23, 1999).

9) <http://www.plannedparenthood.org/planned-parenthood-massachusetts/who-we-are/our-history/pplm-wanting-every-child-be-wanted-child/>이 Planned Parenthood (가족 계획) 웹사이트에 있는 이 이야기는 이 점을 잘 보여준다.

보스턴에 사는 한 절박한 젊은 엄마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겨우 21살입니다. 18살에 결혼했고 곧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첫째가 세 살이 되는 달에 셋째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14를 벌니다. 도와주신다면 평생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맹세코 이 아이 이후엔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면서 속수무책으로 아이를 또 세상에 내보내길 원하지 않습니다.”

교황 바오로 VI세는 회칙 「인간생명(Humanae Vitae)」에서 그러한 관점이 꽤 호소력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¹⁰⁾

현재의 생활 조건으로 보거나 부부의 화목과 신의를 보존하기 위한 부부 관계의 의의를 인정한다면, 큰 희생 때로는 영웅적 희생 없이는 지킬 수 없는 현재의 도덕률을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성행위와 임신을 효과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임신을 변화시키면서 우리는 성을 변화시켰습니다. 전에는 임신 가능성과 연관된 중대한 결과 때문에 성은 매우 중요한—결과적으로 생길 수 있는 생명만큼 중요한—행위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성은 일반적으로 미리 숙고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히 사람들은 혼외 성관계를 삼갔습니다. 성과 관련된 육체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학적 차원을 고려했었고, 성행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다. 이는 도덕의 개념, 신중함에 대한 조언, 법적 규정, 사회적 금기에 의해 시행되는 우리의 사회적 관례였습니다. 성과 결혼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성을 “결혼생활의 행위”라고 지칭하였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관습법에서는 남편이 아내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지칭할 때 “결혼생활의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관습법은 성차별적입니다. 여성에게는 남편과 성관계를 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성과 결혼과 아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피임은 이 세 가지를 분리시켰습니다. 성과 아이를 갖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며 평생 배우자에게 충실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성적인 결합이 태어날 아이와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시사했지만 피임을 하는 성관계에는 그러한 책임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함축된 의미는 그저 서로 원할 때 공유하는 쾌락적인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는 완전히 새로운 별개의 합의 대상이고, 그 합의는 부모되기,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성은 세 사람이 아닌, 두 사람과 관련된 일입니다.

또한 피임을 하는 성관계는 두 사람이 서로 관계 맺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상대방을 아이를 함께 낳는 사람(즉, 잠재적인 어머니나 아버지)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임으로 인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성만이 유일한 고려 대상일 뿐이지 상대방이 정서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으로 나와 잘 맞는지, 상대방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은 어떠한

10) 교황 바오로 VI세, Humanae Vitae §3 (1968).

지, 내가 진지하게 관계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등 관계를 둘러싼 다른 것들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결합에서는 단지 상대방이 성적으로 매력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사회적, 도덕적 함축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요점은 성의 의미가 바뀌면서 남녀가 로맨틱하고 성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와 관계 맺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 사회의 건강과 구성에 이러한 관계가 얼마나 필수적인지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성과 출산의 분리가 아이들, 부모, 그리고 그들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이

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든 아이가 부모가 원해서 태어나게 한다는 초기 피임 지지자들의 매력적인 약속은 피임을 통해 더 나은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Margaret Sanger의 캠페인은 여성의 복지만큼 아이들의 복지에 관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부모가 원해서 태어난 아이는 원치 않는데 태어난 아이보다 사회적, 재정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더 잘 보살핌을 받고 지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밝혀졌듯이 피임은 반대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잘 보살피주는 양육 환경이란 것이 1950년대, 1960년대 가족 시트콤에 보듯 부모가 친자녀를 기르는 안정적인 가정을 의미한다면, 피임약의 광범위한 사용은 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피임약, 그리고 이와 연관된 운동인 성의 혁명은 어떤 과학기술력보다도 가족의 유대를 약화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¹¹⁾ 더 많은 아이들이 불안정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국립보건통계센터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혼모 출산이 1980년 18%에서 2011년 41%로 증가하였습니다.¹²⁾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성이 아이와 연결된 책임과 분리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에는 아이가 관계의 열매라고 여겨졌고 그 관계는 ‘성’이라는 매우 특징적인 행위에 의해 특징지어졌습니다. 성관계를 가지려면 아이를 맞을 준비를 해야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평생 지속될 헌신적 관계로 들어

11) *How the West Really Lost God*, 135.

12) <http://www.childstats.gov/americaschildren/famsoc2.asp>

가는 것이었습니다. 관계, 성, 그리고 아이가 모두 함께 왔습니다.

피임으로 인해 성이 서로 결속된 사람들의 관계로부터, 그리고 아이의 출산으로부터 분리되자 아이는 더 이상 성과 관련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실패한 피임의 결과로 생기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기보다 실수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피임은 어떤 종류의 성관계도—피임을 하지 않는 성관계와 심지어 어떤 관점으로 보면 결혼 생활에서의 성관계까지도—지속적인 헌신에 대한 기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성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한부모 가정의 증가가 관련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피임이 하나의 생활 방식이 되면서 성은 상대방에 대한 평생의 헌신이나 아이 양육에 대한 어떤 기대도 수반하지 않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여겨집니다. 책임과 헌신은 임신이 된 후에야 문제가 됩니다. 결혼생활과 자녀 양육에 헌신하는 것은 성행위보다 더 힘들고 재미 없기 때문에 남자가 떠나버리고 엄마가 혼자 (혹은 정부의 보조로)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Parenthood*에서 Crosby Braverman은 아들이 다섯 살이 될 때까지 본인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1990년대 중반 George Akerlof는 이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자신의 논문에서 피임과 한부모 현상 사이의 예상치 못한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Akerlof는 논문 초반부에서 흥미로운 현상을 관찰합니다. 1965년부터 1990년 사이 흑인들의 혼외 출생은 거의 두 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에—*Leave it to Beaver*와 *Friends* 사이—백인들 사이에서는 다섯 배가 넘게 증가하였습니다(3.1%에서 18%로 증가). 이 시기에 피임약이 널리 보급되었고 낙태가 합법화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결과는 직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Akerlof는 또 다른 사회 현상인 소위 “여자가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결혼”이 줄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백인들 사이에서 여자의 임신으로 인한 강제 결혼 비율이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는 미혼여성들의 피임 시행 및 낙태의 합법화 시기와 일치합니다.”¹³⁾ 그러므로 피임약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에 대처하는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임신은 곧 결혼을 의미한다는 기대가 없어졌습니다.

미혼 부모의 영향은 암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결혼한 부부가 키운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성공에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¹⁴⁾ 결혼한 부부가 키운 아이가 학업

13) George Akerlof, Janet Yellen, and Michael Katz “An Analysis of Out-of-Wedlock Childbearing in the United Stat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1, No.2 (May,1996)) p.279.

14) *The State of our Unions, 2012*, a publication of The National Marriage Project (www.stateofourunions.com).

면에서 더 우수하고 정서적으로도 더 건강합니다. 더 나은 가족 발달과 성적 발달을 보이며 감옥에 갈 확률도 낮습니다.¹⁵⁾ 이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으며 십대에 임신할 확률이 낮습니다. 학대당하거나 방치당할 확률도 적습니다.¹⁶⁾

피임으로 인해 나타난 새로운 가족구성(편모, 편부, 남자친구와 동거하는 엄마,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아빠)은 결혼한 부부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환경에 비해 불안정하고 보살핌을 충분히 주지 못합니다.¹⁷⁾ 동거 파트너보다 친아버지가 아이들과 더 가깝게 지내고 아이들에게 다정합니다.¹⁸⁾ 서로에게 충실하고 자녀 양육에도 충실한 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들이 가장 잘 자란다는 사실은 역사 속 거의 모든 문명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결론입니다.

이러한 가족구성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남녀가 아니라 불안정한 환경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입니다. 피임은 아이들의 생활수준을 높여줄 것이며 모든 아이가 원해서 태어나는 아이가 되게 한다고 약속하였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피임 때문에 원치 않는 아이들이 더 많이 태어나고 있으며 원해서 낳은 아이들도 종종 아이들에게 필요한 양쪽 부모 중 한쪽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부모

또한 피임은 약속과는 달리 여성들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약속대로라면 여성은 피임의 큰 수혜자가 됐어야 합니다. 피임은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를 더 잘 통제하고 그 결과 아이를 가지는 상황에 대해 더 큰 선택의 자유를 갖게 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더 큰 자유가 여성들이 흡사당하고, 경제적, 정서적으로 제약을 당하고, 어쩔 수 없이 가난 속에서

org) Jeffrey Rosenberg and W. Bradford Wilcox, *The Importance of Fathers in the Healthy Development of Children*, a publication of the Office on Child Abuse and Neglect

15) Ryan T. Anderson *Marriage: What It Is, Why It Matters, and the Consequences of Redefining It* (<http://www.heritage.org/research/reports/2013/03/marriage-what-it-is-why-it-matters-and-the-consequences-of-redefining-it>)

16) Bradford Wilcox and Robin Fretwell Wilson *Bringing Up Baby: Adoption, Marriage, and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No. 2006-28) 903-904.

17) <http://www.washingtonpost.com/posteverything/wp/2014/06/10/the-best-way-to-end-violence-against-women-stop-taking-lovers-and-get-married/>

18) Bradford Wilcox and Robin Fretwell Wilson *Bringing Up Baby: Adoption, Marriage, and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No.2006-28) 897.

아이를 키우고, 아이의 양육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임신을 방지할 것이라 기대되었습니다.

피임이 여성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해 주지 못했다는 사실은 슬픈 아이러니입니다. 피임이 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놓으면서 임신한 여성은 예전보다 더 취약해졌습니다. 피임으로 인해 아이에 대한 책임이 성관계 당사자로부터 임신한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사람은 여자이다 보니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성이 아이로부터 분리되면 아이에 대한 책임도 성과 분리됩니다.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낙태시킬 것인가, 다른 곳에 입양시킬 것인가, 직접 키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이제 전적으로 여성의 선택이며 여성의 책임이 되었습니다.¹⁹⁾ 2012년 현재 엄마하고만 사는 아이들은 24%였고 아빠하고만 사는 아이들은 4%였습니다.²⁰⁾ 표준적인 한부모는 Andy Griffith가 아니라 Sarah Braverman인 것입니다. 피임이 여성들에게 성과 아이와 관련하여 더 많은 선택권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양육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기대를 없애버렸습니다. 여성들은 임신한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로 결심할 수 있지만 약간 안면만 있을 뿐인 남성에게 아버지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힘듭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아이 양육에 필요한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부모(주로 엄마)에 의해 양육된 아이는 장래 전망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가족구성이 아이뿐만 아니라 남녀에게도 해가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과 아이의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책임과 헌신의) 분리는 우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책임과 헌신은 인격 형성에 관한 것입니다. 결혼에 충실하고 자녀 양육에 책임을 다하는 것은 완전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의 문화 공동체에서는 결혼과 자녀에 대해 기꺼이 책임을 다하는 용기와 성숙함을 지닌 사람들을 찬양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책임과 헌신이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종교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자격에, 건강한 사회의 형성에, 인격을 갖춘 인간의 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과 책임과 아이의 분리는 인성 발달의 이러한 중요한 과정을 손상시켰습니다. 성은 여전히

19) Planned Parenthood of Central Missouri v. Danforth, 428 U.S. 52 (1976).

20) <http://www.childstats.gov/americaschildren/famsoc2.asp>

통과의례로 인식되지만 성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했던, 도덕적으로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책임과는 별개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젊은이들은 성과 관련하여 예전과는 다른 도덕적 습관을 발달시키는데, 이러한 습관은 평생 지속되는 결혼에 대한 헌신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데) 심각한 과장 없이 일이십 년 가벼운 성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모르는 단순한 도덕적 관점입니다. 그런 생각은 습관이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우리의 행동 패턴에 끼치는 영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가벼운 성관계는 사람을 가벼운 성관계에만 익숙하게 만들 뿐, 부모나 배우자로서 갖추어야 할 헌신적인, 자기희생적인 관계에 대비해 그 사람을 준비시키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결혼 때까지 성관계를 기다리고 절제하는 훈련은 나중에 결혼생활 중에도 신의와 정절을 지킬 수 있게 대비하는 좋은 준비가 됩니다. 결혼 전에 성관계와 임신의 위험을 피함으로써 잠재적 자녀에게 존중을 표하는 것은 좋은 부모와 관련된 습관을 형성시킵니다.

성과 결부되었던 도덕적 성숙이 없어지면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배우자에 대한 부정과 이혼이 많아졌습니다. 성과 책임과 아이의 분리가 일상적인 것이 될 때, 그것을 다시 결속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생활이 뜻하지 않은 경우나 책임과 아이와 연관된다고 생각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피임으로 인해 우리가 성을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과 별개의 문제로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영향은 연애와 배우자 선택입니다. 성과 자녀가 연결되어 있을 때 연애란 좋은 배우자로서, 좋은 부모로서의 덕목을 지닌 파트너를 찾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상대가 좋은 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좋은 성품을 지녔는지, 평생 책임을 다 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성과 아이가 분리되면 성 상대자에게서 찾는 특성은 더 표면적인 것이 되게 됩니다. 좋은 성관계가 훌륭한 성품이나 평생의 배우자에 대한 정절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Lucretius는 사람들이 로맨틱한 매력만 있는 단순한 성을 더 즐긴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²¹⁾ 그동안 피임 문화에서 우리가 선호하게 된 특징들은 영원한 사랑의 특징과는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육체적인 측면과 순간적인 정서적 만족감이 주 관심의 대상입니다. 이삼십 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애인을 찾는 것, 아니면 그저 금요일 저녁 데이트 상대를 찾는 것은 헬스클럽이나 스파에서 시간을 보내는 정도를 의미할 뿐, 더 흥미롭지도, 도덕적으로 더 고귀하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 성문화

21) Lucretius, On the Nature of Things bk. IV.

는 영원히 청소년기에 머물러 있고 가족과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성숙한 성문화로 바뀌지 못합니다.

2007년 영화 *Juno*는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임신한 아이를 낙태시키지 않고 아이에게 가족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피자 십대 고등학생 Juno MacGuff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완벽한 상위 중산층 부부로 보이는 Mark와 Vanessa Loring이 Juno의 아이를 입양하길 원합니다. 이 부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이고, Vanessa는 엄마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출산이 다가오자 Mark는 입양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아내와 싸운 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약속한 적 없어.” 마침내 Mark는 떠나버리고 Vanessa는 혼자 남아 아이를 키웁니다. 피임의 비극은 Juno와 같은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Mark도 많아집니다.

결론

이 모든 것이 가톨릭 신자에게 무엇을 의미하지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러한 문화에 영향을 받지 말고 곳곳이 생활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피임은 함께 가야 하는 세 가지—성, 책임, 아이—를 분리시키고, 이러한 분리는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해를 끼칩니다. 이것이 가톨릭 신자들이 2,000년 동안 들어온 성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교황 바오로 VI세는 「인간생명」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십 년 간 이 메시지는 거의 영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피임을 하지 않는 오늘날의 가톨릭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조차 소수집단에 속하는 현실입니다. 피임뿐만 아니라 피임의 많은 부정적 결과—한부모 가정, 동거 부모, 낙태 및 사후피임약, 가벼운 혼전 성관계의 유행, 성과 관계와 아이를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서의 변화—에 자라면서 이미 익숙해진 세대의 가톨릭 신자들에게 이것은 특히 더 힘든 일입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자라서 좋은 부모가 되기를 바라는 가톨릭 신자들은 우리 문화가 이러한 성에 대한 태도에 얼마나 물들어있는지 인식해야 하고, 더 나은 메시지를 가지고 그것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톨릭 신자라면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만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알도록 설득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돌봐야 할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관론자라면 미래 세대가 우리가

망쳐놓은 것을 보고 다시 성과 아이를 결합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성문화에 몰들기 전에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그 방향으로 내딛는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정치적 정책을 촉구하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와 학교 안에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문화를 바꾸는 최선의 방법은 가정을 꾸리는 모범을 통해서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성에 대한 메시지—경쟁 관점보다 젊은이들이 덜 매력적으로 느끼는 메시지—에 그친다면 그다지 설득력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혼전 순결과 더불어 결혼과 아이와 성의 결합으로부터 생겨난 사랑과 지지, 관용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가족들에 의해 구현된다면, 그 메시지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가정을 꾸리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서 그러한 가정을 지지하는 것, 이것이 성과 책임과 아이의 재결합에 대해 우리가 갖는 최선의 희망입니다.

John Garvey

총장

미국 가톨릭대학교

2014년 10월 2일



Session 2

혼인과 출산에 대한 성찰 | **진교훈** 교수

A Reflection on Marriage and Procreation | **Emeritus Prof. Kyohun Chin**

사회자 정윤경



정윤경 교수 (가톨릭대 심리학 전공)
Prof. Yoonkyung Jeong (Psychology, CUK)

<학력>

서울대 심리학사
서울대 심리학 석사
University of Chicago 발달 심리학 Ph.D

<주요저서>

아동 사고의 발달(아카데미 프레스),
발달 심리학(시그마 프레스),
위험한 칭찬(답소)

발 표 자 진 교 훈



진교훈 명예교수 (서울대)
Emeritus Prof. Kyohun Chin (Seoul National University)

<학력>

- 1960, 서울대학교 문리대 철학과 졸업
- 1972, 오스트리아 Wien 대학교 철학부 철학과 (철학박사)

<경력>

- 1973-1976, 경희대학교 문리과대학 부교수
- 1973-1989, 가톨릭대학교 신학부 강사
- 1977-1983, 중앙대학교 문리과대학 철학과 교수
- 1983-2003,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 1992, 독일 Essen대학, Regensburg대학 방문교수(DAAD)
- 1999-2000, 오스트리아 빈(Wien)대학 철학과 및 의학사 교실 초빙교수

<수상>

- 1994, 서우 철학상 저술부문 수상
- 2003, 가톨릭 학술상 수상
- 2010, 생명의 신비상 학술분야 인문과학분야

〈저서 및 논문〉

■ 단독저서

- 1982 『철학적 인간학 연구 (I)』, 경문사.
- 1994 『철학적 인간학 연구 (II)』, 경문사.
- 1998 『환경윤리 : 동서양의 자연보전과 생명존중』, 민음사.
- 2002 『의학적 인간학』, 서울대학교출판부.
- 2003 『현대사회윤리연구』, 울력
- 2006 『살며 기도하며』, 가람문화사
- 2006 『살며 생각하며』, 가람문화사

그 외 철학적 인간학과 환경윤리학, 사회윤리학, 문화윤리학, 생명윤리학, 직업윤리, 종교철학에 관한 450여 편의 논문(글)이 있음; 서울, Berlin, Bochum, Halle, Wien, Turku(Finland), Tokyo, Fukuoka, Brazilia등 국제학술대회에서 생명윤리학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음.

가정 공동체: 혼인과 출산

I. 들어가는 말

먼저 우리는 왜 이 시점에서 가정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강조하고 이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를 거시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열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크나 큰 변혁이 일어나고 있으며, 드디어 사회의 근본질서가 붕괴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와 문화의 발전과 보호와 전승은 **가정**을 그 기저로 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사회의 모태(母胎)라고 할 가정이 급속도로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 시대에 팽배하고 있는 개인중심주의와 황금만능주의가 가정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합리적인 것(논리적인 정합성)만을 정당시하는 유물론적인 행동과학자들의 발호와 그들과의 타협으로 말미암아 공동선을 지향하는 인격공동체가 부정되고 종래에는 가정의 신성성(神聖性)이 파괴되고 가정조차도 이해가 얽힌 상업적인 계약에 불과한 것이 되어 버리고, 종내에는 인간 모두가 편히 살 수 있는 아늑한 보금자리로부터 쫓겨나서 안정감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가정¹⁾은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다. 부부는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을 통해 본성적으로 자녀를 낳아 기르며 자녀들의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혼인과 출산**이라는 전승되어 온 가치들을 상실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개인주의**는 인간의 사회성을 통한 **공동선을 도외시하고 하느님의 질서인 가족공동체를 배제하기 때문에 반자연법적이**

1) 가족(家族)은 부부를 기초로 하여 한 집안을 이루는 사람들이며, 가정(家庭)은 한 가족이 살립하고 있는 집안, 부부를 중심으로 혈연관계자가 함께 살고 있는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6조3항 참조

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가정공동체가 해체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비롯한다.

다윈(C. Darwin)으로 하여금 진화론에 확신을 갖게 한 말사스의 『인구론』³⁾에서 “인구증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함으로 **인구증가**가 가난의 근원적 원인”이라고 주장한 이래, 많은 나라에서 산아제한을 국가의 중요한 인구정책으로 삼아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던 시절에, 비오 12세 교황은 장차 가정해체현상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견하고 “결혼(**혼인**)⁴⁾과 가정이 붕괴되어 있는 민족은 조만간 멸망을 면치 못한다.”⁵⁾ 또 “만일 가정이 더 이상 사회의 기초가 되지 못하고 모든 교육과 문화의 첫째 터전이 되지 못한다면, 그 결과로서 비인격화와 **대중화**가 되고 말 것이다.”⁶⁾ 고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 왜냐하면 이웃에 대한 사랑, 이해, 용화, 정의, **연대성, 효성, 순종**과 명령의 기능 등 하나의 사회가 존립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사회윤리의 덕목을 인간은 **가정**에서 습득하기 때문이다.

가정공동체는 **혼인과** 혼인의 결실인 **출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혼인율과 출산율은 급속도로 하강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독거노인을 비롯한 1인 가구(one person household)의 급증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생명**과 **사회**의 **근간**인 가정이 해체의 위기를 맞고 있다. 피임, 이혼, 동성연애와 동성결혼, 혼인을 하지 않는 동거, 만혼, 성문란(紊亂) 등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출산감소**가 사회의 재앙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럼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정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혼인과 출산의 본래적 의의를 천착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과제라고 하겠다.

이 발표는 먼저 II에서 한국의 가정위기의 실태를 혼인율과 이혼율, 그리고 출산율급감과 일인가구 증대에서 살펴보고, 그 다음 혼인과 출산의 본래적인 의미를 자연법적인 관점에서 규명하려고 한다.

2) 진교훈, 「왜 서양 근세에서 자연법사상은 쇠퇴하였는가?」, 『이성과 신앙』, 제 55호, 2013, 168-180 참고;

3) Thomas Robert Malthus(1766~1834),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1798

4) 남자가 장가들고(婚), 여자가 시집가는 가는 것(姻)이 혼인(婚姻)이다. 최근에 혼인을 결혼으로 대체해서 사용하기도 하는 데, 결혼은 일본어에서 온 말로서 남성위주의 뜻이 담겨 있음으로 혼인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비오 12세, 연설(Ansprache), 1.6.1941; 18.9.1951.

6) 비오 12세, 연설, 19.3.1953

II. 한국의 가정위기의 실태

1. 혼인율과 이혼율

2014년 2월 2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혼인 건수는 32만 2천 8백 건으로 전년대비 4천 3백 건이며,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粗)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은 6.4건으로 전년대비 0.1건 감소했다. 2014년 6월 26일 여성가족부의 '2014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초혼 연령은 1990년 24.8세에서 **2013년** 29.6세로 높아졌다. 남성도 27.8세에서 32.2세로 높아졌다.

이혼 건수는 11만 5천 3백 건으로 2012년에 비해 1천 건, 0.9% 증가했다. 조(粗)이혼율(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은 2.3건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이혼부부의 평균혼인지속기간은 14.1년으로 전년대비 0.4년 증가했다.⁷⁾

이처럼 혼인율과 이혼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혼인의 신성성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며 전통적인 가정과 혼인에 대한 가치관이 크게 쇠퇴했기 때문이다. 이혼이 법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한 것은 서양에서도 18세기에 개인주의가 일으킨 계몽사상(주의)은 혼인에 관하여 배우자 쌍방의 의사만 있다면 언제라도 해소 할 수 있는 민사계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부터였다. 1792년 프랑스혁명법령은 혼인을 해소할 수 없다고 하는 종래의 교회의 가르침은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어느 배우자건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이 법은 1938년 독일 나치스의 혼인법에 계수되었다.

2. 출산율

2013년 우리나라는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粗출생률)가 8.6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가임여성(15세~49세)의 평생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초(超)저출산국(1.30명부터)에 진입했다.

통계청이 4월 22일 발표한 '2013년 출생·사망통계 잠정치'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43만 6천 600명으로 전년(48만 4천 600명)보다 9.9%(4만 8천 명)감소했다. 통계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7) 출처: 통계청, 2013년 혼인·이혼 통계

1.7명이다. 한국은 OECD 34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고서 2011년 1.24명, 2012년 1.30명으로 서서히 회복하다 지난해 ‘초저출산’의 기준선인 1.30명 아래로 다시 떨어졌다. 2014년 1~4월 출생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00명이 더 떨어져 **올해 합계출산율은 1.17명**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생아 감소는 출산율 하락과 직결된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조(粗)출산율일 뿐만 아니라 전체인구의 감소를 나타내며 가정해체의 전조로 보여 진다. 통계청 윤연옥 인구동향과장은 **"29~33세의 주(主)출산 인구가 감소했고, 초혼 연령이 증가하면서 둘째 아이를 낳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미혼자 수도 늘고 있으며, 만혼이 증가하면서 산모의 평균 연령은 31.84세로 0.22세 올랐으며, 산모 평균 연령은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산모 5명 중 1명은 35세 이상 고령산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산모 구성비는 전년보다 1.5%포인트 오른 20.2%로 역대 가장 높았다. 지난해는 2012년 흑룡 해의 출산 열풍의 기저효과로 더욱 출산이 저조했다"**고 분석했다.

출산 순위로는 첫째아기가 22만4천700명으로 전년보다 9.7% 줄었다. 둘째아기는 9.8% 줄어든 16만5천900명이었는데, 이는 1981년 이후 가장 적은 숫자다. 셋째아기 이상도 4만5천300명으로 10.5% 감소했다.

그러면 이러한 출산율 감소의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종교성의 소멸로 가정의 신성성이 도외시 되면서 출산기피증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증가로 만혼이 점증하고 그 결과로 출산이 줄게 된다.

셋째,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사랑의 보금자리인 주택난이 심각해지면서 출산이 기피되고 있다.

넷째,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출산을 두려워한다.

다섯째,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부부생활중심이 중시되면서 출산이 기피되고 있다.

3. ‘1인가구’의 실태

인간은 혼인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창조하며, 이 창조된 가정 속에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다음 세대를 재생산한다. 즉 인간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며 욕구와 의무의 균형 속에 각자 부여된 역할을 수행해 가면서 성숙된 인격체로 완성되며, 또한 사회 구성원을 생산하며 사회화시킨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사회의 가치평가가 부를 기준으로

삼는 물질만능주의로 흐르게 되어 안정된 전통문화가 소멸되고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만연되고, 그 결과 인간소외와 사회해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1인가구의 증대는 이러한 가정 해체현상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1인가구는 한 명으로 구성된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 즉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거나 경제생활을 공유하지 않은 가구를 의미한다. 예컨대, 독거노인, 별거를 선택해 단독으로 가구를 구성한 세대, 기러기 가족(기러기아빠), 주말 부부, 이혼이나 사별 등의 이유로 혼자 사는 경우 등 다양하다. 독거노인, 독신여성, 저소득층 등은 고독사를 비롯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냉대를 받고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고 비참하게 살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로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인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홀로 사는 독거노인 '1인 가구' 수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고령가구 수는 2000년 173만 가구에서 2010년 298만 가구로 증가하였고, 고령가구중 노인 1인가구인 독거노인의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여 2000년 54만 가구에서 2010년 102만 가구로 지난 10년간 2.8%p 상승하였다. 노인 1인 가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고령화 시대의 정책적 관심집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는 1인 가구의 원인으로 실업자의 증가, 집값폭등,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의 증가로 말미암은 만혼, 자식의 부모 부양회피, 극단적인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만연과 심화 등을 꼽을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가정공동체의 의의와 혼인의 신성성에 대한 이해부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혼인의 자연법적 의미

1. 혼인의 의미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항구적인 부부가 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성공동체(性共同體)이다. 남녀가 혼인(婚姻)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전제는 남자와 여자라는 성(性)의 상이(相異)에서 오는 성적인 사랑이다. 그러므로 남녀의 성은 혼인(婚姻)을 전제로 한 것이며 그 혼인을 통하여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인격적 일치(一致)를 이룸으로써 각자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고 자녀를 출산(出產 procreatio)하고, 그 자녀를 교육하게 하는 하느님(하늘)이 정한 질

서이다.

우리는 혼인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한 눈에 보지 못하고 혼인의 의미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나누어 살펴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의 혼인**의 전체의 여러 가지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혼인의 의미를 양성의 결합에 의한 성공동체(性共同體)로서 **성과 혼인의 관계와 성적 수치심과 혼인보호**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인간학에서 본 성과 혼인의 관계

성(性)은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생활의 존재양식이며, 생물학적 성 충동 뿐만 아니라 감정과 성향 그리고 하느님과 의 관계를 포함하는 남녀 간에 상이한 특성이다. 성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며 남자와 여자의 기능이 다르고, 부와 모, 남편과 부인의 기능이 서로 다르지만 **같은 인격의 존엄성과 평등한 인격적 권리를** 가진다.⁸⁾

성 그 자체는 악마로부터 받은 악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선(善)이다. 성적 욕구(성충동)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정신적 신체적 **일치**를 이루기 위하여 쾌락적이고 황홀한 상태에서 이 쾌락을 극대화하려는 자극을 수반한 욕망이다. 여기서 일치(또는 합일)라는 말은 성윤리의 중심이 되는 공동체의 개념과 상관된다. 그러나 성적 쾌락은 일시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이지 않다. 이 성적 쾌락은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하강하는 흥분인데, 인간은 누구나 항상 흥분 상태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흥분 상태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기를 원하며 아쉬움을 느낀다. 성욕의 일시적 성질은 이율배반적인 인척(引斥)법칙, 즉 한편으로는 끌어당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밀어내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성충동은 한편으로는 순간의 동물적 쾌락을 추구하여 쾌감의 절정에 이르겠지만, 쾌감의 절정에 도달한 후에는 즉시 혐오감과 같은 반발작용을 수반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흥분이 사라진 후에도 충족감과 감사의 느낌을 계속 가지고 싶어 하게 만든다. 여기에 성욕의 신비가 감추어져 있다⁹⁾.

8) 국제법의 아버지라고 불리어지는 Francisco de Vitoria(1483-1546)가 夫權優位制에 반하여 남녀의 평등 사상을 처음으로 제기하고, “여성은 남성의 시녀가 아니라 (non serva) 동반자(socia)”라고 공언하였다. *Relectio de Matrimonio* 1557, p. 2, n.7

9) H. Schelsky, “Die sozialen Formen der sexuellen Beziehungen,” in H. Giese(hrsg), *Die Sexualität des Menschen, Handbuch der medizinischen Sexualforschung*, Hamburg, 1945, S, 242 참조

성의 신비는 영육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한 남성형 또는 한 여성형을 부여하고, 그 양성은 하나의 깊고 긴장에 찬 관계를 부여한다. 남성과 여성은 이 관계를 유혹과 약속과 책임으로 체험한다. 그러나 그들의 상호관심은 때로는 고상하고 몰아적이지만, 때로는 방탕하고 이기적이기도 하며, 불안에 떨기도 하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싶어 하기도 할 때도 있으며, 충동적이기도 하다.

성행위는 남녀가 서로 자신을 증여하는 헌신적인 영육의 표현이며, 상호완성에 이르기 위한 상보성(相補性)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성행위는 자제와 헌신 같은 윤리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성행위는 이성과 하나가 되는 혼인과 내면적으로 관계되고 있다. 성행위가 자기애(自己愛)에 멈을 때 이기적으로 되며, 종래에는 남성이나 여성의 성 능력에 까지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며 건강을 해친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성 충동은 어떤 방식으로든 제어되어야 한다. 성 능력은 혼인과 관련되는 인간본성의 하나로 자신을 초월하여 **인류를 존속**하게 하고 남녀 간에 서로를 위한 성적 헌신행위이며, 사랑의 공동체인 부부관계를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통하여 성숙시키는 신비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인간의 성 능력은 기계적이고 자동적인 **동물의 성본능과는 달리** 정신적 가치의식과 **책임의식**에 의하여 인내하고, 조절하고, **순결**로 승화시킬 수 있는 고귀한 기능이다.¹⁰⁾

남녀 간의 성욕을 도덕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것이 혼인이다. 인간의 성행위는 혼인에 의하여 부부애와 자녀의 **출산(出産)** 및 교육의 책임과 결부되어 있는 것임으로 이를 분리하여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만일 성행위가 본래의 의미를 망각하고 이기적, 관능적 쾌락으로 타락되면 천박하고 무책임한 짓이 될 뿐만 아니라 **혼인과 가정을 파괴**하고 양성이 지니고 있는 고귀한 **궁지를 잃고 인간의 삶의 질서를 유린**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연법**은 성을 하느님의 고귀한 선물이라고 하면서도 남녀를 불문하고 **혼인을 통한 부부애와 자녀출산을 위한 성행위**가 아닌 모든 성적 행위를 단죄한다.¹¹⁾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성의 자유, '성해방'의 사조는 수많은 비극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부도덕한 온갖 성행위; 혼외 성교, 동성애 등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랑과는 무관한 인륜을 거스르는 크게 잘못된 수치스러운 행위라고 할 수 있

10) 진교훈, 「성욕의 인간학적 이해」, 『현대사회윤리연구』, 울력, 2003, 455 쪽 참조

11) 이태제, 『법철학사와 자연법론』, 법문사1987, 277쪽 참조

을 것이다.

2) 성적 수치심과 혼인보호

인간의 본성에는 수치심이 있다. 수치심에는 도덕적으로 잘못을 범했을 때 느끼는 정신적(도덕적) 수치심, 의식주 등 문화생활에서 타인과 비교할 때 열등의식이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수치심 외에 **성적 수치심**이 있다.

인간이 **성적 수치심**을 가지는 것은 교육이나 습관의 결과만이 아니라 인간 본래의 감정(마음)으로서, 한갓된 동물적인 본능적인 영역으로 타락하지 않으려는 하나의 자연적인 방어의식의 표현이다.¹²⁾ 이 수치심은 성적 성숙을 향하는 과정에 따라 생겨나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대체로 5살 경에 싹트기 시작하고 10세가 되면 거의 모든 아이들이 이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¹³⁾

성적 수치심은 그 표현에 차이가 있을 뿐, 나체생활을 하는 인종에게도 있다고 한다. 이것은 순결을 보존하여 장차 혼인을 준비하고 또 혼인생활의 순결을 보존하기 위하여 인간에게 주어진 본래적인 방어의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겠다. 성적 수치심에는 삼가는 것과 예비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성적 수치심은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방법으로 결합을 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성적 수치심은 자신을 보호하는 **억제**와 혼인을 할 때 깨끗하게 증여할 가치의 적립(예비)을 말한다. 그러므로 성적 수치심은 동물적인 충동생활에 대한 자기 보호이다.¹⁴⁾ 따라서 동시에 성적 수치심은 사랑이 **성숙할 기간**, 즉 예비 기간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를 반성하는 능력을 상실한 정신이상자이거나 잘못된 **세뇌**(洗腦)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적 수치심의 외적 표현방식은 한 시대의 사회적 풍조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며 쉽게 변질되기도 한다. 특히 성을 상품화하는 상업적인 선전이나 그릇된 성지식은 성적 수치심을 둔감하게 만든다. 이데올로기와 결합된 악질적인 성해방운동은 사이버 예술의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고상한** 성적 수치심을 파괴하고 있다. 혼인의

12) T. Muncker, *Die psychologischen Grundlagen der katholischen Sittenlehre*, 4. Aufl. Düsseldorf, 1953, S. 285 참조

13) J. Kardinal Höffner, *Christliche Gesellschaftslehre*, 1975, 박영도 역, 『그리스도교사회론』, 분도출판사, 1979, 90쪽 참조.

14) E. Massure, "Die Vergeistigung der Ehe", in J. Voller(hrsg), *Vom Wesen und Geheimnis der Familie*, Salzburg, 1957, S. 225

신성성과 가정질서의 방파제로서 성적 수치심의 파괴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사회해체현상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¹⁵⁾ 성적 수치심은 순결과 정결을 자연스럽게 보호해주는 **하느님의 선물**이다. 오늘날 성적 수치심을 잃고 치부를 함부로 노출하거나 노출하게 하는 것과 더나가 포르노제작과 유포와 판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것임으로 이는 마땅히 엄단되어야 할 것이다¹⁶⁾.

2. 혼인의 목적과 출산의 의미

동방사상에서는 혼인은 인륜(人倫)의 시단(始端)이며, **천륜(天倫)**이라고 하였다.¹⁷⁾ 그래서 역경에서는 “한 쌍의 남녀가 부부의 의(義)를 바르게(定正)한다는 것은 바로 천지가 정위(正位)해서 만물을 화육(化育)하는 대의(大義)와 똑 같은 것이다.”¹⁸⁾라고 하였다.

예기(禮記)에서 “혼례는 “두 좋은 성(姓)을 합하여 위로는 종묘(宗廟)를 받들고 아래로는 후대를 계승하는 데 있다.”¹⁹⁾ 또 “천지가 화합하지 않으면 만물이 생성되지 않으며, 부부가 화합하지 못하면 만세에 이어질 후사(後嗣)가 없게 된다.”²⁰⁾고 혼인의 목적이 **출산**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맹자는 ‘대를 이어 갈 자손이 없는’, 즉 “무후무사(無後無嗣)를 가장 큰 불효”²¹⁾라고 단정하기에 이르렀다. 공자는 부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 축출하는 “婦有七出”을 말하면서 자손을 낳지 못하는 여인을 축출하는 “무자거(無子去)”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매우 몰인정한 비인도적이지만 후사가 없게 되어 저지르는 불효의 막중함을 일깨워주려고 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빙후란은 이를 두고, “유가에서는 생물학적 기능을 조상의 도래요, 자기 생명의 연장으로 생각하였으니, 자식을 낳아서 양육하는 것은 새로운 자기를 생물학적으로 불사(不死)케 하자는 것이다.”²²⁾라고 하였다.

그리스도교에서는 혼인의 목적을 두 가지로 본다. 그 하나는 종족의 존속을 위한 **출산(procreation)**이고, 다른 하나는 부부간에 **인격적 일치**를 이루는 **사랑**이다. 아우구스티누스

15) 진교훈, 「성욕의 인간학적 이해」, 『현대사회윤리연구』, 울력, 2003, 456쪽, 참고

16) 진교훈, 앞의 책, 「V, 왜 도색물의 제작과 판매가 금지되어야 하는 가?」, 459-468 쪽, 참고

17) 中庸 12章, “君子之道 造端乎夫婦”

18) 易經 家人象辭, “男女正 天地大義”

19) 禮記 婚義, “婚禮者將合二姓之好 上以事宗廟下以繼後世也”

20) 禮記 哀公問, “天地不合萬物不生 大婚萬歲之嗣也”

21) 孟子 離婁章 (上), “不孝有三 無後爲大”

22) 憑友蘭, 『中國哲學史』 (上), 臺灣, 商務印書館, P.430

Augustinus, 354-430)를 비롯한 교부들은 혼인에 의한 성욕의 만족은 항상 자녀의 출산과 결부되어 있어야 정당화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성욕의 만족만을 위한 부부의 성행위도 단죄하였다. 그러나 12세기 말에 들어서서 알베르투스 마그누스(Albertus Magnus, 1193-1280)가, 그 후 13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토마스 아퀴나스가 부부행위를 공개적으로 선이라고하기에 이르렀다. 그래도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는 남녀의 결합은 자녀의 출산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고²³⁾, 혼인의 주된 목적은 자녀의 출산과 자녀의 교육이라고 하였다.²⁴⁾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서서는 혼인의 목적은 부부로서의 사랑이며, 자녀의 출산은 부부사랑의 결과라는 견해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²⁵⁾

만일 혼인이 출산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부부는 혼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혼인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되어 그 부부에게 엄청난 심적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 그러나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해서 그 혼인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부의 임의로 출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혼인과 부부애(夫婦愛)는 자녀의 출산과 그 교육을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자녀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부간의 사랑은 혼인에 합당한 지위를 보유한다고 공표하였다.²⁶⁾ 그러나 자녀의 출산이 혼인의 주된 목적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부부간의 사랑만이 중시되고 자녀의 출산을 기피²⁷⁾하고, 피임과 심지어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반생명적인 작태가 유행하고 있는 것은 가정공동체와 인류의 존속에 크나큰 위협이 되고 있다. 부부애의 결실(結實)이 자녀임으로 부부간의 사랑과 자녀의 출산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하느님은 분명하게 “자식을 낳고 번성하라”(창세기 1장 28절)고 명령하신다. 이 말씀이 성서의 계명 중에서 최초의 것이 된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 생식(출산)은 인간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를 사람이 자의대로 좌우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혼인을 하고서 출산을 함부로 방해하는 이기주의는 혼인과 가정을 결합시키는 하느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23) Thomas Aquinas, *Ethicorum*, VIII, 12; J. Messner, *Naturrecht*의 영문판, *Social Ethics*, Herder, 1949, p. 287-289 참고

24)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ca*, III, Suppl. q.65, 1, c.

25) Jacue Leclercq, *Leçons de droit naturel*, tm I. 1947, Louvain, p. 190 참조

26) 사목헌장 50 참조

27)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6월 2일 미사강론에서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들을 출산함으로써 교회가 열매를 맺듯이 결혼도 새 생명을 잉태할 때 온전한 의미를 갖는 것이며, 결혼하고도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는 교회의 가르침에 의심을 던진다. 결국에는 이런 결혼생활에 남는 것은 늙은 후 쓰러린 고독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의 권고, 『복음의 기쁨』에서도 혼인의 중요성에 관해서 역설했다.

된다. 자녀를 가지고 안 가지는 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혼인이 중요한 것은 약조(foedus) 내지 계약(contractus)으로서만이 아니라 **성사(聖事, sacramentum)**라는 것이다. 인간이 만든 제도나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변경될 수도 있으나 성사는 하느님에 의해 정해진 **자연법 질서**임으로 변경될 수 없는 것이다. 혼인에 있어서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와 자녀의 **출산**과 혼인의 불가해소성(不可解消性)은 하느님이 정한 질서이다.²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혼율이 증가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며 반인륜적인 것이며, 또한 출산을 기피하는 풍조는 가정해체와 사회 붕괴의 조짐이다. 그러므로 혼인과 가정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중대사가 아닐 수 없다.

3. 자연법과 가정공동체의 질서

자연법은 가정을 인간사회의 기본공동체로 보고, 그 속에서 인간이 출생하고 양육될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인격성숙과 사회구현을 할 수 있는 필수공동체라고 본다. 인간은 본래 가정에서 출생되고 가정에서 보호되고 양육되도록 되어 있다. 자녀에 대한 모성애와 부성애는 학습에 의한 것도 관습에 따르는 것도 아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부모가 임의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인간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천성(天性; 본성)을 지니고 있다. 자녀도 부모의 사랑 속에서 육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정신적, 도덕적 인격을 완성시켜나간다. 이 가정공동체 속에 **질서와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한다.

모든 집단과 공동체에 질서가 있어야 하듯이 가정공동체에도 질서가 있어야만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간에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가족 간에 질서, 즉 가정윤리에는 부부간의 윤리, 부모의 윤리, 자녀의 윤리, 형제자매간의 윤리, 친족 간의 윤리가 있다.²⁹⁾

28) Leo XIII, *Rerum Novarum*, 1891 “하느님의 권위에 의하여 결정된 혼인의 주요 의미는 무슨 형식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혼인제도는 국가보다도 먼저 있었으므로 그의 확실하고 고유한 권리와 의무는 어떤 방법으로도든 국가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역대 교황의 회칙들; 레오 13세의 *Arcanum Divinae Sapientiae*(1880), 비오 11세의 *Casti Connubii*(1930), 비오 12세의 성명 AAS 43(1951):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들, 『현대세계의 사목헌장』(1965) 제2부 6개조, 그리고 『교회헌장』, 『평신도 사도직교령』. 『전례헌장』에서도 혼인성사를 다루고 있다.

V. 나가는 말

가정이 혼인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혼인과 출산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혼인율과 출산율은 가정공동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최저상태에 있다.

가정과 혼인에 대한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교신자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다. 몇몇 주교회의에서도 이에 관해서 살펴본 바 있으며, 가정과 혼인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들이 민족들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으로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가정윤리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일부의 그리스도교신자들까지도 거부하는 이유는 진정한 그리스도교신자들의 체험, 즉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와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몇몇 주교회의는 제시한바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정과 혼인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 근거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널리 퍼져 있고 모든 것에 침투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들; 대중매체의 영향; 쾌락주의적인 문화; 가치상대주의; 유물론 ; 개인주의; 점증하는 세속화; 이기적인 의도에서 도덕의 과도한 자유로 끌고 가는 견해들의 우세; 상호인간관계의 단절: 최종적인 결단을 거부하고 ‘단숨에’(ex und hopp) ‘모든 것이 즉시로’ 결정되는 “피상적인 사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자주 주의를 환기시키곤 하는 길을 잃어버린 “과소비문화”와 “임시적인 문화”에 근거를 두는 가치관들이다.³⁰⁾

그러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정공동체의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첫째로, 혼인과 가정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둘째로, 아이를 낳고 잘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가정을 해치는 외적 세력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가정보호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³¹⁾

29) 진교훈, 「가정의 근원적 의미: 가정윤리의 기초」, 『현대 사회 윤리연구』, 울력, 2003, 323-347 참조

30) 2014년 주교 시노드의 “가정에 관한 사목적 요청” 의안; Die Pastoralen Herausforderungen im Hinblick auf die Familie, instrumentum Laboris, Vatikanstadt, 2014, 제 15 항 참조

31) J. Höffner, *Christliche Gesellschaftslehre*, 1975; 제1장 혼인과 가정; 가정정책의 과제 참조

<가정 공동체: 혼인과 출산>에 대한 토론문

이미숙 교수

(가톨릭대 아동학 전공)

진교훈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생각할 때, 가정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혼인과 출산의 본래적 의미를 성찰하고 가정공동체의 해체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교수님의 지적에 대해 가정학자인 저 역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통계자료를 통해 초혼연령의 상승, 이혼율 증가, 출산을 급감, 그리고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우리 사회의 가정공동체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확인시켜 주셨으며, 저에게는 혼인과 출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자연법에 기초하여 깊이 성찰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전공 분야가 달라서 토론이라기보다는 진교훈 교수님께서 원고 마지막 부분에 제시하신 가정공동체의 위기 극복 방안과 관련하여 저의 의견을 추가하는 것으로 논의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즉, 첫째, 혼인과 가정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며, 둘째, 아이를 낳고 잘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가정을 해치는 외적 세력을 막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정보호정책을 수립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들 2개 방안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함께 연결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는 일입니다. 교육은 가정과 학교를 비롯한 수많은 곳에서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도 인간의 존엄성은 가정에서부터 비롯한다..... 인간은 사회윤리의 덕목을 가정에서 습득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에게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과 가정이 중요하다고 부모가 단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은 자녀들의 마음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오히려 가정생활 곳곳에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가족관련 교과목에서는 민족명절인 설날과 추석을 지내면서 학생들이 각자가 느낀 주관적 소감을 간략하게 써보고 토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비슷한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극단적인 상황들 또한 적지 않게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명절에 3대 가족이 모여 차례 상을 준비할 때 가장 연장자인 조부께서 남녀 모두에게 역할을 분담시킴으로써 언제나 평화롭고 즐거운 모임이 되도록 하고, 차례를 마친 후엔 서둘러 아들과 며느리를 며느리의 친정으로 보낸다고 보고한 학생은 자신도 빨리 결혼하여 자녀도 여럿 낳아 부모님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했습니다. 반면, 자신의 어머니는 며느리로서 일만 하고 심지어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도록 명절에 친정을 한 번도 가지 못했다고 보고한 학생은 자신은 장차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으며 자녀를 낳아 대물림시키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픈 극도의 비극적 상황을 보고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진교훈 교수님께서서는 결혼이라는 용어가 일본어에서 온 말로 남성위주의 뜻이 담겨 있으므로, 남자가 장가들고 여자가 시집가는 것인 혼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습니다. 즉 혼인이 남성위주가 아닌 양성평등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때, 위의 사례처럼 혼인으로 인해 여성의 삶이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고 실천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혼인이 양성평등의 가치 위에 굳건히 뿌리내릴 때 자녀들은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혼인감소 내지 저출산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 것이라 봅니다. 나아가 학교교육을 통하여 결혼과 가족의 가치 그리고 예비부모교육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이를 낳고 잘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가정을 해치는 외적 세력을 막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정보호정책을 수립하는 방안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국가의 장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미 10년 전부터 정부와 사회 각 분야에서는 대책 마련에 부심해왔습니다. 연간 정부예산 10조원을 투입했음에도 2013년 합계출산율이 1.18명으로 나타나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20년 내지 30년 후에나 그 효과가 나타나므로 아직 더 기다려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도한 육아비용과 사교육비, 심각한 취업난, 과중한 결혼비용과 주거비용, 장기근로시간,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육아휴직복지의 최저수준 등은 우리 사회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를 낳고 잘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못 된다는 뜻입니다. 세계적으로 출산율 회복에 성공

한 가장 성공적 모델로 스웨덴을 들 수 있는데, 아이를 낳고 잘 기를 수 있는 육아 환경을 조성한 덕분입니다. 특히, 양성평등을 기본 가치로 내세운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실행하였으며, 출산과 양육은 남녀 모두의 일로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스웨덴 아빠들의 85%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 아빠들은 2%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에서 육아는 여전히 여성의 몫이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저출산 극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출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정책변화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50년 전만 해도,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등의 표어를 사용하면서 강력한 출산억제 정책을 실시했었습니다. 진교훈 교수님은 출산을 기피하는 풍조는 가정 해체와 사회 붕괴의 조짐이므로.....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중대사라고 지적하셨는데, 당시의 사회 상황에 따라 출산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아이를 낳고 잘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보다 효과적인 출산장려정책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서 제 의견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책의 실효성을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인간존중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생산노동력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기저기 단편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세운다면 그것은 인간을 단지 도구와 수단으로 보는 것이며,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간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회,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회로 나아갈 때 비로소 혼인과 출산은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게 될 것이며, 아이를 낳고 잘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좀 더 섬세한 정책들을 다방면에서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행복하고 자유로우며 양성이 평등한 사랑의 가정공동체를 이루고 자녀는 그 속에서 사랑과 공감, 이타심을 배우며 궁극적으로는 공동체 사회에 기여하는 진정한 인간으로 완성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진교훈 교수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초적 공동체인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주는 우리 사회, 안심하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우리 사회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저의 짧은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ssion 3

인간학연구소 심포지엄
Symposium hosted by Research Institute of Anthropology

혼인과 출산 : 그리스도교 윤리와 성 (性) | 이인국 교수

조선 후기 왕실 여성의 저출산과 유교적 생활세계 | 김지영 교수

88만원 세대의 사랑과 결혼 문화 분석 | 한금윤 박사

Marriage and Procreation : Christian Ethics and Human Sexuality | **Prof. Paul Inkook Lee**

Low Birthrate and Confucian Lifestyle of the Royal Women in Joseon Dynasty | **Prof. Jiyoung Kim**

Culture of Love and Marriage in the 880,000 Won Generation | **Dr. Keumyoun Han**

사 회 자 최 선 경



최선경 교수 (가톨릭대 ELP학부대학)
Prof. Seonkyung Choi (The ELP College, CUK)

최선경 교수는 연세대학교에서 국문학을 공부하고 문학박사학위(2002)를 받았다. 세부전공은 한국고전문학이다. 여러 대학에서 강의하였으며 현재 가톨릭대학교 ELP학부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고전문학, 수사학, 사고력과 소통능력 함양을 목표로 한 교양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다. 『삼국유사와 여성』(2003), 『향가의 제의적 이해』(2006), 『향가의 수사와 상상력』(2010), 『문제해결과 의사소통』(2007), 『학술적 글쓰기』(2009), 『읽는 저자, 쓰는 독자』(2013) 등의 저서가 있다.



조정환 교수 (가톨릭대 ELP학부대학장)
Prof. Jeonghwan Cho (Dean of The ELP College, CUK)

- 1969 서울 출생
- 1992. 2 가톨릭대학교 신학 학사
- 1994.11 가톨릭대학교 신학 석사
- 1995. 7 사제서품
- 1995.11 서울대교구 대치동 본당 보좌신부
- 1999.11 서울대교구 화곡본동 보좌신부
- 2003.11 로마 교황청립 테레시아눔대학 그리스도교 인간학 석사(S.T.L)
- 2005.11 로마 교황청립 테레시아눔대학 그리스도교 인간학 박사(S.T.D)
- 2007. 3 가톨릭대학교 교수
- 2007. 9 가톨릭대학교 인간학교육원 교학부장
- 2010. 3 가톨릭대학교 인간학교육원장
- 2012. 3 가톨릭대학교 ELP 학부대학장
- 2012. 3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소장

■ 연구물

- 신학 안에 ‘인간학적 전환(la svolta antropologica)’과 ‘신학적 인간학(antropologiateologica)’의 태동
- 제2차 바티칸공의회 “사목헌장(Gaudium et spes)”에 나타난 인간학적 이해

- 인간의 그리스도적인 차원에 관한 연구-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Gaudium et spes)’ 22항을 중심으로
- 인간의 공동체적인 성격에 대한 연구
- 현대 가톨릭교회의 인간관에 대한 고찰
- 그리스도교 인간학의 관점에서 살펴본 김수환 추기경의 인간관에 대한 고찰- 인간 존엄성을 중심으로
- 김수환 추기경의 사상에 나타난 인간 관계성에 대한 연구

발 표 자 이 인 국



이인국 교수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Prof. Paul Inkook Lee (Graduate School for Life, CUK)

<학력>

- 1963-1965 서울특별시, 연세대학교, 학사
- 1965-1969 서울특별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Medical Doctor
- 2008-2009 서울특별시,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생명윤리학 석사과정 수료
- 2010. 2. 생명윤리학 석사학위 취득
- 2010-2013 Regina Apostolorum Pontifical University, Rome, Italy, 생명윤리학 박사과정 수료
- 2013. 10. 생명윤리학 박사학위 취득

<임상수련>

- 1969-1970 서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인턴 수료
- 1970-1971 서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외과 레지던트
- 1971-1972 미국, 코네티컷주, Bridgeport,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Bridgeport 병원, 산부인과 인턴 수료
- 1972-1975 미국, 미조리주, 세인트루이스, 세인트루이스 의과대학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수료

<경력>

- 1989-2003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남가주외과대학 산부인과학 임상교수
 1994-1997 한국, 서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 임상교수
 1998-2003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 교수
 2003-2005 미국, 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 토마스제퍼슨 의과대학 산부인과학 임상교수
 2005-2007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 교수

<발표논문>

1. Comparative and feasibility Study of Laparoscopic Assisted Hysterectomy versus Total Abdominal Hysterectomy, J Am Assoc Laparosc 1995;2(4);24
2. Advantages of Total Laparoscopic Hysterectomy, J Am Assoc Laparosc 1996;3:24
3. Total Laparoscopic Intrafascial Hysterectomy, International Congress of Gynecologic Endoscopy, 25th Annual Meeting, Chicago, Illinois, Sept. 24-29, 1996, J Am Assoc Laparosc 1996;3(4):S25
4. Total Laparoscopic Intrafascial Hysterectomy, Gynecol Endos 1997;5:219
5. A New Technique of Laparoscopic Hysterectomy, J Am Assoc Laparosc 1997; Aug.4(4):S43
6. New Technique of Total Laparoscopic Hysterectomy, J Am Assoc Laparosc 1997;4(4);S60
7. Minilaparoscopy to Reduce Complications from Cannula Insertion in Patients with previous Pelvic and Abdominal surgery, J Am Assoc Laparosc 1998;5(3):24
8. Experience with 1000 Laparoscopic Hysterectomies, J Am Assoc Laparosc 1998; 5(3);S26
9. Minilaparoscopy to reduce Complication from Cannula Insertion, J Am Assoc Laparosc 1999;6(1);91
10. Preliminary Experience with Uterine Artery Ligation for Symptomatic Uterine Leiomyomas, J Am Assoc Laparosc 1999;6;24
11. Uterine Artery Ligation for Symptomatic Leiomyomas, J Am Assoc Laparosc 2000;7(3):32
12. Gonadotrophin-Releasing Hormone Agonist(Goserelin) and Hormone Add-Back Therapy for Endometriosis. A 12 Months Study, J Am Assoc Laparosc 2001;8:34

혼인과 출산: 그리스도교 윤리와 성(性)

1. 들어가는 말

생명윤리의 세속화와 정치,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인권, 특히 자유권의 행사와 철저한 이기주의와 윤리적 상대주의적 오류 안에서 인간의 성에 대한 인식은 놀라울 정도로 변질되었다.¹⁾ 그로 인한 인간관계 특히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혼인에 대한 인식과 자녀 출산에 있어서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 현실이다. 작금에 주요 공중과 방송에서 보이는 드라마 내용에는 혼전 성행위는 당연할 뿐 아니라 혼전 임신과 태어난 자녀 사이에 일어나는 각종 에피소드가 아무런 여과 없이 자연스러운 일상사로 비추어진다. 나아가서 혼전 임신은 소위 “혼숫감”이라 분류되기도 하는 현실이다. 나아가서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정 파괴 내지는 구성원 간의 혼란 등 혼인과 가정의 소중한 가치의 상실, 사회의 문제, 그리고 꾸준히 상승하는 이혼의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혼인과 출산에 대하여 그 진정한 의미와 책임감 있는 부모의 역할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겠다.

미국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매년 6백만 임신 중에 절반은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거나 바라지 않은 임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도 이런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에 동반하여 의약계에서는 피임 내지는 낙태에 대한 더욱 발전된 신약의 개발과 홍보 전략을 통해 의료의 산업화에 일조를 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경제적 요건의 제약을 이유로 이들 신약들을 허용할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그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아울러 일반 시민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청소년들에 대한 요즈음 대부분의 소위 “성교육” 과정에서는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점, 여성의 생리 변화, 임신, 피임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인 듯하다. 이에 반하여 진정한 성교육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장함과 아울러 인간의 몸과 그의 신학적 의미, 결혼과 부부행위의 의미, 나아가서 부부 행위와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한 윤리적 성찰을 기울여 보고자 한다.

1) S.J. Tham, *The Secularization of Bioethics: A Critical History*, UPRA Press, Roma 2007.

2. 결혼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결혼이란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는 것’이고 부부란 ‘남편과 아내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남편(아내)은 혼인을 하여 여자(남자)의 짝이 된 남자(여자)를 그 여자(남자)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며 남자는 남성(男性)으로 태어난 사람, 한 여자의 남편이나 애인을 이르는 말이고 남성이란 성(性)의 측면에서 남자를 이르는 말로 표현된다.²⁾

2.1. 결혼의 신학적 의미

교회의 가르침에 의하면, 세례로써 남자와 여자는 진정 새롭고 영원한 계약, 그리스도와 교회의 부부다운 계약 안에 확실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바로 이 영원한 개입으로 인해서, 창조주가 세운 부부생활과 사랑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부부적 사랑으로 격상되고, 그분의 구원의 힘으로 유지되고 풍요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아가서 교회는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인간성 안에 사랑과 일치, 소명, 능력, 책임을 부여하셨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인 가정은 성장 과정에 있는 인간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점진적 교육과 교리교육을 통해서 그를 인간적이고 그리스도적인 완전한 성숙으로 끌어올리도록 부름 받은 첫 번째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³⁾ 이 내용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의 결합에 관한 인류의 최고(最古) 기록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과 3장에 아주 아름답게 기록 되어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 빛과 어둠, 땅과 바다,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 나무, 해와 달 그리고 별들, 온갖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온갖 새들, 그리고 땅에는 온갖 들짐승들을 제 종류대로 만드신 후 엿새날에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사람은 모든 들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인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시어 그를 잠들게 하신 다음,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

2) 국어사전, <http://www.naver.com>

3)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가정 공동체』, 1981.

람에게 데려오시자,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사람과 그 아내는 둘 다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맨 처음 사람인 아담은 하느님과 아주 친숙한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첫 인간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부르지만 그 중에는 어느 것도 자신과 똑 같은 피조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첫 인간만이 하느님 앞에 있고 하느님과 독특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모든 피조물 중에서 첫 인간만이 하느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만이 독특한 방식으로 하느님 현존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느님을 알 수 있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특별한 위치와 인격적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또한 첫 인간은 자신과 같은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에덴동산의 외로운 혼자였습니다. 이것이 요한 바오로 2세가 말씀하시는 “원고독 original solitude”이라는 것입니다.⁴⁾

하느님께서서는 첫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그의 협력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아담은 그와 똑 같은 육체를 알아차리고, 그 육체가 자신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앞에 서있는 그녀가 사람임을 알아차리고, 그 남자는 그 여자에게 매료되어 그 여자와 하나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의 외로운 삶에서 벗어나 그녀와 한 몸이 되어 자신의 충만함을 찾게 됩니다.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는 한 몸이 됩니다. 남자는 여자를 만나 있는 그대로의 여자를 받아들입니다. 남자는 그녀가 자신을 보완해 한 인간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여자는 남자가 자기 스스로를 초월하여 완전함에 이르도록 도와줍니다. 반대로 한 남자는 한 여자가 완전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줍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이것을 “원일치 original unity”라고 부릅니다. 남자와 여자는 온전히 내어주고 받아들임의 근원적 체험으로써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느끼고 체험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줌으로써, 다르게 표현하여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 의

4) John Paul II, *Man and Woman, He Created Them, A Theology of the Body*, trans. M. Waldstein, Pauline Books and Media, Boston, MA 2006, 146-154.

지적으로 또한 깊은 사랑으로 우리의 개인적 즐거움을 희생함으로써 깊은 만족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일치”가 의미하는 것입니다.⁵⁾

“원고독”과 “원일치”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을 당신 모습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스스로가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분은 서로 다른 위격으로 구분되고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일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서로 구분되지만 불가분한 관계적 존재들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인간의 원경험은 “원벌거벗음 original nakedness”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사람과 그 아내는 둘 다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벌거벗음의 경험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시냇가에서 벌거벗고 물장구 치던 기억, 아니면 무더운 여름에 벌거벗고 샤워하던 기억 등은 우리를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로 되돌려 놓습니다. 자신의 육체나 다른 이의 육체에 대해서도 아무런 금기를 갖고 있지 않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자유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원벌거벗음”의 체험은 자유와 함께 일어납니다. 우리는 자유롭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으며, 진정한 자유는 다른 이에 대한 사랑에 승복하기로 결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랑과 그 사랑과 함께 일어나는 선택을 받아들임으로써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이에게 내어줌으로써 성숙하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자신을 서로에게 내어주기 위해 자유를 활용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은 자유롭고 성숙한 인간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사랑에 온전히 종속시킵니다.⁶⁾

육체적이며 동시에 영적인 인간 몸의 상징적 본성으로 인해 그들은 신체적 매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매력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결혼을 하여 성교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함께할 때, 그들은 상징적 존재로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어루만지고, 사랑의 언어로 속삭입니다. 이러한 행위와 언어를 통해 그들은 서로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이처럼 성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비롭고 아름다운 행위인 것입니다. 성교는 가벼운 실내 유희나 영혼을 팔아먹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성교란 ‘몸짓 언어’라

5) Id., 156-167.

6) Id., 169-177.

는 언어의 독특한 하나의 형태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몸은 가시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깊은 내면의 자아 (의지, 지성, 기억), 즉 내적 실재를 알려주며 인간 인격의 전부를 현존하게 한다. 인간의 몸은 사랑, 곧 인간의 심오한 영적 실재를 그 몸 안에 그리고 그 몸을 통해서 표현하게 되는 것이며, 영속적인 관계를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교를 통하여 인간은 감각적 즐거움의 언어뿐만 아니라 영적 언어, 사랑의 언어를 통해 소통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신체를 지닌 인격으로서 서로를 애무하고, 서로에게 귀 기울이고, 서로에게 들어가고 받아들임으로써, 가장 친밀한 방법으로 감각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⁷⁾

2.2. 혼인 계약과 이혼

결혼 예식은 남자와 여자 두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동의 혹은 결합을 서약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은 물건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온전히 내어주고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기로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일부가 아닌 모든 것을 내어주어 한 몸을 이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전 존재를 내어주고 받았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느님은 여러 방식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계약을 맺었으며, 신약성경에서 새로운 계약은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결정적인 방식 안에서 맺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찬예식을 통해 이 계약을 기념하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 주셨으며, 우리들의 이러한 참여는 완전하게 사실적이며 능동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가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현실화하며 다른 민족들에게는 하느님의 살아 있는 표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이 세상에 현존하실 수 있습니다.

성사로서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로운 계약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 이 새로운 계약에서 나타나는 자기 증여의 사랑을 현실화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혼인을 함으로써 새로운 계약의 성사적 축복을 받으며, 남녀가 계약에 참여함으로써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신실함을 공유하도록 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담에게 여인을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은 여인을 받아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혼인을 창조하셨고 그 혼인을 계약으로 세우셨습니다. 혼인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하느님의 창조행위입니다. 부부 간의 신실한 사랑을 체험함으로써

7) Id.

써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혼인은 하느님의 신실함, 곧 하느님과의 계약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모든 남자와 여자는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하느님을 이 세상에 현존하게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더욱 굳건하고 명료한 하느님의 모상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일체 안에서 근본적인 사랑의 일치이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역시 일치와 우정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하느님처럼 살도록 부르심 받았습시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혼인으로 하나가 될 때, 그들은 조금 더 굳건하고 명료한 하느님의 모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고독안에서가 아닌 친교 안에서 하느님의 모상이 됩니다. 따라서 혼인은 두 사람이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그분을 세상에 현존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죽음에 이를 때까지 일생 동안 함께할 것을 서로에게 서약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성교라는 행위를 통해 그 혼인을 완결시킵니다. 서약과 성교라는 두 개의 구분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행위를 통해, 한 몸의 일치는 성립되며 혼인 계약이 실현되는 것입니다.⁸⁾

이와 같이 성은 상징적이고 혼인유대적이기 때문에 완전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혼례를 올릴 때 주고받는 서약의 말을 필요로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혼인 이전에 성관계를 가질 때, 그들은 성적인 쾌락을 사랑으로 혼돈하기 쉽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아닌 육체적 욕망에 빠져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성교라는 것은 깊고도 영속적인 서약을 동반해야 합니다. 이 서약이 혼인입니다. 혼인 안에서의 일치의 근원적인 체험으로서의 성교가 아닌 혼인 전의 성관계는, 자신의 한 부분은 이 사람에게 남겨 두고, 자신의 다른 부분은 저 사람에게 남겨 두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자신의 내면 안에서 자신을 분열시키며, 삶을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반면에 순결과 동정은 이러한 위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보호 장치인 것입니다.

이혼에 관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태복음 19장 (마르 10: 1-12; 루카 16, 18)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사이드들이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되느냐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습니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8)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가정 공동체』, 1981.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 가지 다른 해석이 있다. 첫 번째 해석은 ‘교부들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것인데 불륜 (adultery)을 저지른 경우에 이혼이 허락되지만, 그렇다고 재혼을 허락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부부는 헤어질 수는 있지만 혼인 관계를 깰 수는 없다는 해석이다.⁹⁾ 두 번째 해석은 ‘레위인의 법’에 의한 해석으로 마태 19:9에 쓰인 불륜(unchastity)을 근친상간(incest)의 경우와 같이 결혼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 결국 이 경우에는 결혼이 무효화됨으로써 결혼이 아예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설명된다.¹⁰⁾ 세 번째의 해석은 ‘노코멘트’의 시각으로 예수님께서서는 구약 성경 신명기 24:1에 기록되어 있는 이혼의 사유에 대해서 아예 이야기 하시기를 거부했다는 견해다. 즉 예수는 모세의 이혼 허락에 대해 명확히 설명 하거나 또는 재확인 하지 않으므로써 이혼을 철폐했다는 해석이다. 결국 예수님은 부부간의 사랑과 충실함으로 표현되는 결혼의 원래의 순수성을 재확립하셨다고 말 할 수 있다.¹¹⁾

부부의 일치는 단일성만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상호 교환이므로, 자녀의 행복이 요구하듯이, 부부의 완전한 신의와 그 일치의 불가해소성으로도 특정 지어집니다. 혼인의 불가해소성은 부부의 인간적이고 완전한 자기봉헌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자녀들의 행복이 요청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계시에서 나타난 하느님의 계획안에서 궁극적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느님 자신이 인간에 대하여, 또한 예수님이 교회에 대하여 품으신 절대적으로 충실한 사랑의 징표, 결실, 요구 조건으로서의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하느님께서 원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¹²⁾

3. 출산

가장 심오한 의미에서 사랑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부부애는 한 몸이 되게 하는 상호 인식으로 부부를 이끌어가지만 부부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부 간의 사랑은 그들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을 갖게 하며, 부부는 새로운 인간의 생명을 전달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는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며 동시에 자녀도 주는 것입니다.

9) 바오로 사도는 아내와 남편은 헤어져서는 안되지만, 만일 헤어졌으면 혼자 지내든가 남편과 화해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1 코린 7:10-11)
 10) 사도 15:20, 29; 레위 18:6-18; 1 코린 5:1-2.
 11) 신약 성경에서 혼인한 부부를 예수와 교회의 관계와 그의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설명하고 있다. (에페 5:21-33)
 12)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가정 공동체』, 1981.

다. 남자와 여자가 정당한 부부생활을 통하여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성(性)은, 결코 생물학적인 현상만은 아니고, 인간의 가장 깊은 존재와 관련이 됩니다. 성은 남자와 여자가 죽을 때까지 서로에게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자기 증여의 징표로써 사랑의 결실일 경우에만 진정으로 인간적입니다. 부부애가 요구하는 이 전체성은 또한 책임 있는 출산의 요청과도 부합합니다. 하느님께서 말씀 하십니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 1: 28)

또한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인간 자신의 생명에 대한 욕구와, 생식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자연적인 성향이 있으며, 이 자연적 성향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 생명과 생식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인간은 행위를 한다고 설명합니다.¹³⁾

3.1. 피임

이러한 인간 본성에 위배하여 생식을 방해하는 행위를 우리는 피임이라고 합니다. 피임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성기를 여자의 몸에서 빼내어 체외에서 사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자가 여자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콘돔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남자는 영구적인 정관절제수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질 또는 자궁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피임약을 복용하거나, 더 나아가 불임수술(난관절제술)이라는 영구 피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피임 방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금욕 이외에는 확실한 피임 방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 실패율이 높아질 수 있으며 나아가서 피임에 의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피임약의 경우 장기간 복용할 때 뇌의 지속적인 억제 작용으로 인한 이차적 무월경이 초래되며, 불임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궁 내강에 루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자궁 내막 혹은 복강 내의 염증이 유발되기도 하며 그 결과로 나팔관이 막히거나 나팔관 내벽의 손상으로 이차 불임증 혹은 나팔관 임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행위에는 둘이 하나 됨과 아울러 새 생명의 탄생이라는 의미가 있음을 성찰하였다. 성은 새로운 인간 존재의 실존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생명의 탄생을 위한 인간의 행

13) M. Rhoheimer, *Natural Law and Practical Reason, A Thomistic View of Moral Autonomy*, trans. G. Malsbary, Fordham University Press, New York 2000, 110-134.

위는 협조자의 역할을 할 뿐 하느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것은 인간의 영혼은 인간의 힘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신의 개입이 없이는 인간 스스로는 인간 생명을 조절할 수 없으며 부모로서의 위엄도 갖게 될 수 없다. 새로운 생명이 실존하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무로부터 영혼을 창조하셔야만 합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적 사랑이라는 공간 안에서 창조하시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고의로 하느님의 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는 피임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에 대한 책임에 열려있어야 합니다. 피임은 부부 행위에서 받게 되는 아이라는 축복을 막는 행위입니다.

인간은 동물들과는 달리 성적으로 상징적임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성행위 안에서 결합함으로써, 남편과 아내는 동물들의 번식 세계와는 다른 출산을 향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육체적 존재인 또 다른 성숙한 인간과 하느님께 그들 스스로를 열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혼인 유대적인 특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자유롭게 자신을 부부 서로에게 내어주고 받아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의 몸과 상징성을 파괴하는 어떤 피임의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혼인유대적인 인간 몸의 특성에 반대되는 피임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기 보다는 오히려 서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인간 생명』 16항에 의하면 피임을 지향하는 부부관계는 부부애를 손상시킬 뿐 아니라 부부의 책임을 감소시키며 그들을 개인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지게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이러한 이유에 근거하여 자연출산조절법 이외의 유산(낙태)이나 불임 수술을 포함한 어떠한 피임의 행위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¹⁴⁾

3.2. 사후피임약(Morning-after Pill)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피임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도 단지 성폭력 피해자의 임신 방지를 위한 사후피임약 사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의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사후피임약 판매를 용이하게 하자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에 소위 “사후피임약 morning-after pill”이라는 응급 피임약(레보노제스트렐, 울리프리스탈-엘라, 미페프리스톤, 유즈페)이 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약들은 아무런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행위를 한 후 임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교 후 3-5일 이내에 복용하는 호르몬 제품이다. 일반 피임약에 비해 적어도 10~30배 더 많은 고용량의 호르몬제를 포함한 이런 약

14) Pope Paul VI, *Humanae Vitae*, 14.

들은 종류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여자의 난소에서 배란을 억제 시키거나, 자궁 내벽에 영향을 주어 수정된 배아가 자궁에 착상하는 것을 방지하여 낙태를 유발시키는 약이다.¹⁵⁾

피임에 실패할 경우 원하지 않는 임신이 되므로 그것이 낙태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낙태 행위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 이외에 의학적인 부작용 역시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다량의 여성 호르몬을 투입하기 때문에 여러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흔하게는 두통, 어지럼증, 울렁거림, 부정 출혈이 동반되기도 한다. 특히 약물을 복용한다 해도 많은 경우 불완전한 유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필요하기도 한다. 수술 후 후유증 역시 낙태의 경우에서와 같은 다양한 부작용 내지는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런 약품들이 초래하는 문제의 심각성은 생명의 파괴뿐만 아니라 문란한 성문화를 조장해 불건전한 사회를 만든다는 데 있다. 소위 원하지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해 사후피임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성관계를 증가시켜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낙태를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아직 올바른 성의식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자칫 다량의 여성 호르몬제를 남용할 수도 있다. 고용량의 호르몬제를 상습적으로 복용할 경우 여성, 특히 청소년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책임의식도 약화될 수 있다.

3.3. 자연출산조절법

자연출산조절법에 관한 자세한 학문적 뒷받침 또는 실행에 대한 언급은 여기에서 다루지 않겠다. 오직 이 방법의 윤리적 타당성을 위한 기초적인 부분만을 다루기로 한다. 원래 “자연가족 계획 Natural Family Planning” (점액 관찰법, 기초 체온법, 빌링스 방법)이라고 알려진 이 방법은 가톨릭교회에서 유일하게 받아들이는 자연적인 출산조절방법이다. 건강한 여성은 정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난소에서 배란이 되며, 그 시기에 성관계를 할 경우에 남자의 정자와 결합(수정)하여 임신이 이루어지게 된다. 정상적인 여성의 경우 다음 달 생리가 시작되기 전 2주(14일)에 배란이 되며 배란 시기를 기준하여 5-6일(정자의 수명) 이전부터 배란 후 1-2일(난자의 수명)

15) A. Kim - M.B. Bridgeman, “Ulipristal Acetate (ella), A Selective Progesterone Receptor Modulator For Emergency Contraception”, *Drug Forecast* 36(6) (2011), 325-331; A. Koyama - L. Hagopian - J. Linden, “Emerging Options for Emergency Contraception”, *Clinical Medicine Insights: Reproductive Health* 7 (2013), 23-35.

사이의 7-8일 동안이 임신 가능한 기간입니다. 자연출산조절법이란 배란 전후의 자궁 경부에서 생성되는 점액질의 성질을 관찰하거나(점액 관찰법, 빌링스 방법), 기초 체온을 측정(배란 후에 난소에서 증가하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기초 체온이 섭씨 1도 정도 상승하게 된다.)하여 임신 가능 기간을 분별하고 그 기간 동안 부부간의 금욕(abstinence)을 시행하여 임신-출산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성교할 때마다 임신을 의도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성찰 해보아야 합니다. 성은 아름다운 것이고 남편과 부인은 성교를 하는 데 어떠한 다른 이유도 필요치 않습니다. 성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행위에는 '하나 됨'의 의미와 '출산'의 의미가 있으며, 또한 거기에 따르는 '책임감 있는 부모의 역할'을 잊지 말아야 한다.¹⁶⁾ 남편과 아내에게는 아이라는 선물을 받음과 동시에 그 자녀를 키우고 교육 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다.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아울러 사회적인 부모의 책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인간 행위에서 행위자는 자유의지에 의해 결정한 행동과 그 행동에 따르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것과 같이,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얻게 되는 선물인 아이의 숫자를 결정하는 일은 그 자유가 주어진 부부의 몫으로 돌아가야 함은 마땅한 일이다. 교회는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혼인과 부부애는 그 성격상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지향한다. 과연 자녀들은 혼인의 가장 뛰어난 선물이며 부모의 행복을 위해 크게 이바지한다” (사목 헌장, 50-51항, AAS58, 1996). 이는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객관적 윤리 질서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질서 안에서 하느님과 자신들, 가족, 그리고 인간 사회에 대한 부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다.

생명의 탄생에 위한 인간 이성작용에 의한 인간 행위를 위해서는 두 가지 다른 덕(virtue)이 필요하다. 첫 째는 부부간의 신의와 평등함을 통한 '정의' (justice)라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덕은 '정결' (chastity)이라 하겠다.¹⁷⁾ 이 두 가지 덕에 의해서 인간의 성은 형성되고 보존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결이란 단순한 금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사랑을 통한 책임 있는 출산을 향한 부부간의 금욕(abstinence)을 의미하며, 이러한 행위야말로 신의 창조와 구속 사업에 협조하는 일이며 자신들에게나 부부 서로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가족과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 있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인간생명의 희칙

16) M. Rhoheimer, *Natural Law and Practical Reason, A Thomistic View of Moral Autonomy*, trans. G. Malsbary, Fordham University Press, New York 2000, 110-113.

17) Id., 112.

(*Humanae Vitae*)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인 조건 아래에서 남편과 아내는 더 많은 자녀의 부양을 위한 의도적이고도 이타적인 결정을 함으로써, 또는 매우 심각한 이유들과 도덕 법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일시적 혹은 불확정한 기간 동안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피함으로써 책임 있는 부모의 역할은 실행 된다.

(*Humanae Vitae* 10)

자연출산조절의 가치와 의미는 하느님께서 주신 생식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인간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아이를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데 있다. 이것은 생식력을 파괴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아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 잘 기를 수 있는 방법이며, 부부 상호간의 존중과 여성의 건강까지 배려한 방법이다. 이와 같이 생명의 탄생에 대한 열린 마음과 책임 있는 부모의 역할을 위하여 자연출산조절을 하는 부부간의 행위야말로 진정 부부간의 사랑을 더욱 아름답고 튼튼하게 이어준다고 말할 수 있다. 참다운 부부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자연출산조절방법을 실행하는 남편과 아내의 출산 행위야말로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성숙된 부부행위라 하겠다.

3.4. 낙태(임신중절)

민주주의의 발달과 아울러 개인의 자율성 보장 등 극도로 발달된 개인주의와 상대주의의 결과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큰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심각한 가정의 파괴 또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 현실이다. 보건복지부와 고려 대학교의 2005년에 실시된 공동 연구 발표 자료에 의하면, 총 342,433건의 낙태가 이루어졌다. 이 보고에 의하면 낙태의 시술 건수는 정상적인 출산율의 두 배에 가까운 빈도로 낙태가 이루어진 것이다. 최근에 보고된 낙태 시술의 빈도에 대한 학문적인 자료는 충분하지 않으나, 낙태의 추세가 조금 줄어드는 추세가 있다 하더라도 연간 150만 - 200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진다는 추산이다. 이 숫자는 매 20초 마다 1건의 낙태와 하루 6,000건의 낙태가 이루어진다는 현실이다. 이 숫자는 우리나라가 가히 낙태 천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쓰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낙태에 대한 결정이 쉽게 내려지는 이유로 여러 주장들이 있다. 그 이유에는 남아선호 사상, 낙태 관련법규의 사문화(死文化), 피임에 대한 무지, 성도덕의 문란, 청소년 성문제, 퇴폐

문화의 확산, 생명 경시 풍조, 의료의 윤리 부재 등 다양하다. 이런 다양한 이유들에 대하여 본 발표에서는 지면과 시간의 제약으로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낙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생각해보기로 한다.

첫 째, 다수의 환자, 특히 어린 청소년의 경우 낙태 시술 전에 낙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낙태가 합법적으로 인정이 된 사건은 1973년 *Roe vs. Wade*라 할 수 있다.¹⁸⁾ 당시에 낙태 수술을 받았던 Ms. Roe의 진술에 의하면 수술 전에 아무도 그녀에게 수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후유증, 수술 이외의 다른 선택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Ms. Roe는 미국에서 낙태 반대 그룹에서 열심히 생명 보호 운동에 앞장서서 일하고 있다. 수술의 후유증에는 자궁내막 염증, 만성 골반염, 자궁 파열, 출혈, 조산, 습관성 유산, 불임, 나팔관 임신 등 신체적인 후유증과, 우울증, 불안, 불면증, 자살 충동 등의 많은 정신적인 문제들이 있다. (슬라이드 참조)

또 다른 문제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논의에서 논의 대상이 빗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윤리학자도 생명을 중시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논의의 초점이 인간의 생명이 어느 시점에서 시작하느냐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낙태 찬성론자와 낙태 반대론자 간의 주요한 의견 차이는 우리가 사람을 죽여야 하는가가 아니라, 태아가 정말 사람인가에서 발생한다. 그것은 사안의 사실에 관한 논쟁이지,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의 원리에 관한 논쟁이 아니다. 따라서 윤리적 상대주의 옹호론자들은 도덕 원리들의 적용은 그 문화에 기인한다는 도덕 원리의 문화에 대한 약한 의존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도덕 원리가 약한 정도의 의존성을 갖는다는 사실이 곧 윤리적 상대주의가 타당함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¹⁹⁾ 여기에서 우리는 인격의 의미에 대한 간단한 고찰을 할 필요성이 있다.

3.5. 인격이란?

인간(인격)이 언제부터 시작 되는가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인격의 정의로부터 시작해 보기로 한다. 철학자 보에티우스는 “[인격은] 이성적 본성의 개별적 실체”라고 정의 하였다.²⁰⁾ 이후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보에티우스의 인격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여 “[인격은]

18) *Roe vs. Wade*, 410 U.S. 113(1973).

19) L.P. Pojman - J. Fieser, *Ethics, Discovering Right and Wrong*, CENGAGE Learning Korea Ltd, Seoul, Korea 20096, 64-65.

20) A.M.S Boethius, “Contra Eutychem et Nestorium”, in *The theological tractates, The Opuscula Sacra*,

이성적 본성을 가진 자립하는 개별 실체”라고 그 정의를 더 분명히 하였다(*ST*, I. q. 29. a. 2, ad 3). 토마스의 존재론적 원리(질료 형상론 Hylomorphic theory)에 의하면, 인간은 육체(질료)와 영혼(형상)의 합일체이다. 영혼에 의해 육체가 육체로서 존재하게 되는데(제 1 현실태 first actuality or first act), 제1 현실태는 능동적 잠재성(active potentiality)을 가지고 있다. 제1 현실태(될 잠재성)의 활동 중심의 위치는 그것의 실체적 형상, 즉 인간에서 그것은 이성적 영혼이다. 제2 현실태는 어떤 부가적인 원인을 통하여 얻어지는 제1 현실태의 작용이다. 능동적 잠재성에 비교해서 어느 것은 외부의 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것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수동적 잠재성(passive potentiality)을 갖는다. 이성적 영혼이 어느 특정 육체를 형상화하기에 요구되는 것은 육체는 단지 이성적 영혼에 고유한 실행(성장적, 감각적, 이성적)을 하는 능동적 잠재성만을 필요로 한다. 이런 작용들의 실제 실행들은 영혼의 존재에는 우유적(accident)일 뿐이다(*QDA*, XII). 그러므로 이성적 영혼이 인간 육체의 실체적 형상이기 때문에 생명, 감각, 이성적 사고를 위한 능동적 잠재성을 가진 인간 육체의 존재는 이성적 영혼에 의해 형상화 되는 것이 수반된다. 그런 작용이 실재로 인간 육체 내에서 이성적 영혼이 육체를 형상화하도록 실행되었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²¹⁾ 발달하는 인간 육체에서 이성적 영혼의 적절한 수행 능력은 육체가 이성적 영혼을 실제 형상으로 갖기 위해서는 육체는 적절한 유기체를 가질 때에 가능하게 된다 (*QDP*, III. 12). “그러므로 이성적 영혼은 감각에 적절한 기관인 육체에 결합 하여야 한다”(*ST*, Ia. 76. 5; *ST*, Ia. 55. 2). 이성적 영혼이 존재하고 그리하여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단지 이성적 영혼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수행 능력을 가진 인간의 육체일 뿐이다 (*SCG*, II. 59). 인간 육체와 이성적 영혼의 결합은 직접적이며, 이 결합에 기초해서 인간 배아는 인격이라고 불릴 수 있다 (*ST*, I. 76).

개별적 실체의 논증에서 조셉 단실 Joseph Donceel²²⁾과 로버트 파스나우 Robert Pasnau²³⁾ 등은 대뇌의 피질이 형성되기 이전은 영혼의 주입이 가능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노만 포드 Norman Ford 등은 뇌와 척추가 형성되어 개체수가 확실하게 되는 원시선 (Primitive streak)이

trans. H.F. Stewart, A Digireads.com Book, 2007, 29.

21) J.T. Eberl, “Thomistic Principles and Bioethics”, in M.J. Cherry - A.S. Iltis (ed), *Routledge Annals of Bioethics*,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London and New York 2006, 27-28.

22) J. Donceel, “Immediate animation and delayed hominization”, *Theological Studies*, 31(1), 1970, 76-105; *The National Catholic Bioethics Quarterly* 3 (2003), 767-786.

23) R. Pasnau, “Souls and the beginning of life: a reply to Haldane and Lee”, *Philosophy* 78 (2003), 521-531.

발현되는 시점인 수정 후 14일 이후에야 비로소 개별 인간이 성립된다고 주장한다.²⁴⁾ 이와 반해서 베네딕트 애쉬리 Benedict Ashley는 유기체적 실체로서의 동물의 실체성과 제1 기관(primary organ)을 주장한다.²⁵⁾ DNA²⁶⁾로 이루어진 접합체(zygote)의 핵(nucleus)을 배아의 생물학적 기능을 조절하는 “통제 센터”로 지적 하며 수정 이후부터 접합체는 통일된 개별적 실체임을 주장하면서 토마스의 주장을 뒷받침 한다.²⁷⁾ 토마스는 제1 기관은 유기체적 실체로서 동물 통일성의 기초로서 동물 영혼이 주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단언한다(QDA. IX. ad 13; X. ad 4; X. ad 11; XI. ad 16).²⁸⁾ 사실 위에 언급한 모든 학자는 발달하는 배아가 이성적 영혼을 가지게 되기에 필요한 각기 다른 제1 기관에 대해 주장 한다. 단실(Donceel)과 파스나우(Pasnau)는 기능을 가진 대뇌 피질이 형성된 뇌를, 포드(Ford)는 뇌와 척추를 형성하는 원시선(embryonic axis)을, 그리고 애쉬리(Ashley)는 접합체의 핵을 원시선과 뇌, 신경 계통이 만들어지게 되는 제1 기관으로 주장한다. 접합체의 핵은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배아의 신진대사를 관장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배아의 이성적 수행에 관계되는 조직을 형성하는 후기발생원기(epigenetic primordium)²⁹⁾이며 원시선에서 생성되는 대뇌 피질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애쉬리는 “배아의 핵은 뇌, 제1 기관, 지성을 위한 도구 등을 소유한 성숙된 인간 육체를 만들 수 있는 유전자 또는 정보(형상인 formal cause)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인간 유기체의 성숙된 발달을 위한 원칙적인 능동인(작용인 efficient cause)이다.”라고 말한다.³⁰⁾ 정상적인 환경에서 인간 접합체는 실제로 생각하는 이성적 인간이 되기 위한 능동적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배아가 이성적

24) N.M. Ford, “When did I begin? Conception of Human Individual in History”, *Philosophy and Sc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1988.

25) B. Ashley, “A critique of the theory of delayed hominization”, in D. McCarthy - A. Moraczewski (edd), *An Ethical Evaluation of Fetal Experimentation: An Interdisciplinary Study*, St. Louis 1976, 123-124.

26) DNA는 디옥시리보핵산(Dioxyribonucleic acid)의 약어로 모든 생명체와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의 발달과 기능에 이용되는 유전자 정보와 그 지시를 담고 있다.

27) B. Ashley, “A critique of the theory of delayed hominization”, in D. McCarthy - A. Moraczewski (edd), *An Ethical Evaluation of Fetal Experimentation: An Interdisciplinary Study*, St. Louis 1976, 123-124.

28) 토마스는 제1 기관에 의해서 영혼의 힘이 육체의 다른 부분들이 표현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토마스는 심장을 제1 기관으로 이해했으며, 현대 과학은 뇌(brain)를 제1 기관으로 이해한다.

29) 후기 발생원기(epigenetic primordium)이란 이것에서부터 특정한 조직, 장기 혹은 장기계통들이 방해를 받지 않는 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30) B. Ashley - A. Moraczewski, “Cloning, Aquinas, and the embryonic person”, *The National Catholic Bioethics Quarterly* 1 (2001), 199-200.

영혼에 의해 형상화 되었다고 결론 짓기에 충분하다. 토마스의 존재론적 원리들을 현대 발생학적 지식에 적용하여 볼 때 인간은 수정 순간부터 인격체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현대 발생학적 이론에 의하면 23개의 염색체³¹⁾를 가진 정자와 같은 숫자의 염색체를 가진 난자의 결합(수정)으로 접합체(zygote)는 인간으로서 필요한 모두 46개의 염색체를 갖게 되며 태아는 여성의 자궁 안에서 성장하여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수정 후 38주 후, 혹은 마지막 정상 월경일로부터 40주 후에 출산하게 된다. 이것은 베네딕트 애쉬리 Benedict Ashley의 주장을 뒷받침 해주는 과학적 근거가 된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규명 또는 해명을 문제 삼을 때 그것은 본질의 의미에 대한 물음도 된다. 본질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그 본질을 획득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제기된다. 넓은 의미의 본질은 인간의 현상방법과 진보방법에 대한 폭넓은 묘사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는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인간의 존재성을 결정짓는 요소를 외면하는 외적이고 표면적인 서술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는 달리 철학적인 엄밀한 의미에서 본질은 무엇을 통해 어떤 것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의미 한다. 즉 무엇을 그리고 무엇으로 인해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론적으로 구성되는가 하는 물음이다. 인간의 본질은 인간의 의식 안에, 자유의 실천 안에, 인간이 소유한 가능성들의 실현 안에,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진보 안에 그리고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업적 안에서 발전한다. 의식적이고 자유로운 자아 위임 안에서 자신을 완성시키는 개별적인 자아 존재로서의 인간의 육과 영이 드러내는 본질 단일성을 우리는 ‘인격’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하면 인격이란 자아 존재의 중심으로부터 전체성을 실현하고 자기 자신을 전체성으로 체험하는 개별 인간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총체 실재를 가리키는 것이다.³²⁾

3.6. 이중효과(결과)의 원리

인간 행위에 대한 윤리적 판단에는 행위에 관련한 모든 요소들을 검토해야 한다. 행위의 윤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자체의 본성, 행위의 의도, 행위의 결과, 수단(방법), 그리고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보아야 한다. 간혹 인간의 행위에 있어서 한 행위에서 서로 다른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가 동시에 초래될 수 있다. 이 원칙은 행위자가 간접적으로 의도된 악한 결과에 대하

31) 염색체는 핵 안에 존재하며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조절하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DNA 이중 나선형으로 구조를 이루며 그 기능은 개체 발생과 성장 과정에서 유전 물질을 딸세포에 전하고 세대간에 유전 물질의 재조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32) 에머리히 코레이트, 『인간이란 무엇인가』, 안명옥 옮김, 성바오로출판사 서울 1994, 209-257.

여 어떤 조건하에서 죄책이 없고 또 어떤 조건하에서 그런 결과가 허용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준다. 이 경우 윤리성을 판단해주는 윤리원칙을 이중효과(결과)의 원리라고 부른다.³³⁾ 여기에는 전통적으로 네 가지 조건들이 있다. 이 원칙의 전제 조건은 1) 악한 결과와 선한 결과가 적어도 동시에 그 행위에서부터 직접 나와야 한다. 동시가 아닐 때는 직접적인 결과가 선해야 한다. 그것이 악한 결과라면 결코 안 된다. 행위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야 한다. 즉, 행위의 대상이 악한 성격을 지닌, 허용될 수 없는 것이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자궁암에 걸린 산모의 생명이 자궁을 제거 하지 않으면 위독할 경우 자궁을 제거함과 동시에 태아는 죽게 된다. 이 경우 자궁을 들어내는 행위 자체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궁암을 제거하는 것으로 선한 행동이라 말할 수 있다. 가톨릭 윤리신학에서 허용될 수 없는 대상들은 낙태, 자살, 간음, 하느님에 대한 모독 등이다. 2) 선한 결과를 초래하기 위해서 악한 수단을 이용할 수 없다. 즉 결과와 수단 모두가 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임신한 여성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감소를 위하여 낙태를 할 경우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며 이 수단은 악한 것으로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3) 행위자의 지향(의도, intention)이 선해야 한다. 즉, 행위자는 악한 결과를 의도하지 말아야 한다. 전쟁 중에 군사 시설을 폭격하면 시민들도 어느 정도 희생될 수 있다. 폭격의 직접적인 목적과 대상은 주요 군사시설의 파괴이므로 시민들의 죽음은 간접적인 결과이다. 폭격하는 자는 군사 목표의 파괴만을 지향한 것이지 시민들의 살상을 지향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군사 목표를 이미 파괴했으면, 나머지 폭탄을 시민들의 생활 지역에 투하하지 말아야 한다. 4) 간접적인 악한 결과를 허용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와 동등하게 중대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즉, 첫째로 희생되는 가치와 적어도 동등한 가치가 위태롭게 될 때, 둘째로 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당장 다른 덜 해로운 방법이 없을 때라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에 제시된 네 가지 조건하에서 악한 결과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어떤 행동에서 부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악한 결과 때문에 더 큰 선을 행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 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는 등의 모든 교통수단은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거대한 기술의 이익은 건강의 위험과 환경오염을 동반할 수 있다. 만일 이런 일들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의도된 악한 결과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모험적인 일들은 대부분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허용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악한 결과의 위험들을 허용하지 않는 극단적 성격을 지닌 윤리 사상을 지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33) K.H. 페쉬케, 『그리스도교 윤리학, 제 1권 기초 윤리신학』, 김창훈 옮김, 분도출판사, 1990, 362-364.

하지만 낙태의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많은 경우 임신한 여성은 사회적인 이유, 경제적 이유,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낙태 수술을 하게 된다. 결국 낙태를 함으로써 이런 이유들이 해소되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낙태 수술을 받는다. 이 경우 낙태의 행위가 윤리적으로 타당한 행위인가를 이중효과의 원리를 적용해 보기로 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낙태 수술과 그로 인해 얻어지는 결과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직접적인 결과인 낙태는 태아를 죽이는-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행위로서 선하다 할 수 없다. 또한 (간접적)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명을 죽이는 악한 낙태 행위를 사용함으로써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행위이며, 낙태 수술 이외의 대안으로 출산 후 양자 입양 등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나아가서 생명을 죽이는 행위와 사회적, 경제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와 비교해 볼 때 생명을 죽이는 행위가 다른 이유 보다 결코 덜 중요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음으로써 낙태의 행위는 결코 윤리적으로 선한 행위라 할 수 없는 악행(惡行)이라 할 수 있다.

4. 생식의학에서 논쟁의 쟁점들

임신의 과정을 상세히 다룰 필요는 없겠으나, 임신의 대략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여성의 난소에서 만들어진 난자가 나팔관 안으로 들어가 남자의 정자와 만나 수정이 이루어지고 이 수정란은 세포수가 증식, 자라나면서 대략 5-6일 동안 나팔관을 통해 자궁 내강을 향해 이동한 후 자궁 내벽에 착상이 되어 정상적으로 태어는 약 9개월 간 엄마의 자궁 안에서 자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임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 중에는 남성의 정자의 질적인 문제, 여성의 자궁경부가 막혀 정자가 나팔관을 향해 올라가지 못할 경우, 나팔관이 막혀 난소가 나팔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경우, 수정된 배아가 자궁에 착상하지 못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현대 의학, 특히 생명의학의 급속한 발전은 인간 출산 행위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기에 이르렀다. 예로는 인공 수정, 시험관 아기, 착상전유전자검사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4.1. 보조생식술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³⁴⁾

먼저 보조생식술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이라는 용어부터 살펴보겠다. 과학주의의 급속한 발전과 기계주의적 사고방식은 인간 생명의 탄생을 신의 창조 사업에 협조하는 인간의 행위에서 번식의 개념이 들어가는 재 (re) 생산 (produce, production)의 개념으로 전락 시켜 버렸다. 이는 마치 1932년에 출간된 Aldous Huxley의 소설, *Brave New World*에 등장하는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한 로봇 인간의 생산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양상이다.³⁵⁾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부부 간의 온전한 사랑의 행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한 생명의 출산은 재생산(reproduction) 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procreation) 된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여겨진다.

보조생식술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 ▶ In vitro fertilization (IVF, 시험관 아기)
- ▶ Gamete intrafallopian transfer (GIFT)
- ▶ Intracytoplasmic sperm injection (ICSI)
- ▶ Microepididymal sperm aspiration (MESA)
- ▶ Percutaneous sperm aspiration (PESA)
- ▶ Testicular sperm aspiration (TESA)
- ▶ Gamete or embryo donation
- ▶ Surrogacy
- ▶ Assisted hatching (AH)
- ▶ 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PGD)
- ▶ Immature and mature oocyte freezing and vitrification (cryopreservation)

시험관 아기란 여성에게 많은 양의 여성 호르몬 등을 투여한 후 과배란을 유도하여 난자를 채취, 남성의 정자를 인위적으로 난자에 주입 시켜 실험실에서 배양을 한 후 일정 시기에 다시 자궁 안에 수정된 배아를 주입, 착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의료 행위이다. 이 과정에서 흔히 수

34) D.K. Gardner - A. Weissman - C.M. Howles - Z. Shoham (edd.), *Textbook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iques*, CRC Press, Boca Raton, FA 20124.본 발제의 보조생식술과 임신에 관련한 의학적인 자료는 이 책에서 인용되었음.

35) A. Huxley, *Brave New World*, Harper Perennial Modern Classics; Reprint edition (October 17, 2006).

정된 배아를 자궁에 주입하기 전에 배아의 세포 일부분을 채취, 유전자 검사를 거친 다음에 유전적 문제가 없는 배아만을 선별하여 자궁에 주입, 착상 시키는 행위를 착상전유전자검사라고 한다. 이 모든 과정은 마치 공장(실험실)에서 이 부품과 저 부품을 맞추어 어느 한 제품을 생산해 내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옳지 않은 인간의 행위로서 비판 받아 마땅하다. 그것은 인간 배아를 마치 단순한 실험실의 ‘실험 재료’와 같이 취급하는 행위로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직접적인 차별 행위인 것이다. 보조생식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난자, 정자 기증의 윤리성, 수정란 혹은 잔여 배아에 대한 윤리성, 배아의 파괴에 대한 윤리성, 우생학적 선별에 관한 윤리성, 유전자 조작, 인간의 클론, 대리모나 미스맘 등 비정상적인 가정에 대한 윤리성 등)에서 초래되는 인간학적, 철학적, 나아가서 사회학적인 문제들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아주 중대한 사항이다. 인격의 고귀함과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우리의 냉철한 판단과 인식은 양보할 수 없는 인간 존엄성과 인간 존재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여성 개인의 자유의지를 내세우면서 비윤리적인 수단을 합리화 하는 보조생식술 또는 착상전유전자검사 등은 근본적인 인간 존엄성에 대한 도전으로써 비도덕적인 인간의 행위라 할 수 있다.

4.2. 착상전유전자검사

시험관 아기 기술에서 유전적 결함이 없는 배아를 선택하여 자궁에 착상시킴으로써 유전적 질환을 예방하겠다는 목적으로, 수정된 배아를 실험실에서 배양하여 배아가 8 세포기로 자라났을 때 할구(blastomere), 또는 배반포(blastocyst)에서 일부 세포를 떼어내 염색체 검사를 한다.

이 경우 할구나 배반포의 세포들은 다분화 가능성(pluripotency)을 갖는 세포로서 장차 몸의 각종 장기로 자랄 수 있는 특성을 나타낸다.

현재 가장 흔히 사용되는 유전자 검사 중에 유방암과 난소암을 유발하는 유전자(BRCA1, BRCA2) 검사가 있다. 유방암을 유발시키는 원인 중 약 10% 정도에서 유전적 성향을 보인다 할 수 있다. 이 유전자(BRCA1, BRCA2)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암이 발생하기 전에 유방과 난소를 절제하여 장차 암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치료를 할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시험관 아기를 시행하는 경우에 착상전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이 유전자를 찾아낼 수 있으며 이 유전자를 보유하지 않은 배아만을 착상시켜 앞으로 유방암 발생을 줄일 수 있다 하겠다.

착상전유전자검사에는 많은 부작용(난소 과배란 증후군, 난자 채취 시 출혈 및 염증 유발, 자궁 밖 임신, 자연유산, 임신 중 합병증 증가, 태아의 기형)이 따른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착상전

유전자검사와 관련되는 윤리적 측면만을 살펴보겠다. 먼저 배아 파괴로 인한 인간 존엄성 무시 및 인간 생명의 경시 이외에 남녀의 성별 선택 등과 관련되는 윤리성의 문제 또는 우생학(eugenics) 측면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환상적인 유전 형질의 보존을 위해 내가 원하는 아이의 형질을 선택한다고 생각해 보라. 키가 큰 아이, 머리가 좋은 아이, 과학이나 수학을 잘하는 아이, 운동 잘하는 아이, 노래 잘하는 아이, 연기 잘하는 아이, 머리 색깔이 갈색인 아이, 눈동자가 파란 아이, 피아노 잘 치는 아이, 높은 코를 가진 아이, 심지어 살인 잘하는 아이, 도둑질 잘하는 아이 등등 원하는 아이를 골라서 임신하는 경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유전적으로 열세하다는 잘못된 이유로 대량의 유태인을 학살하는 행위와 무엇이 다르다 할 수 있는가? 최근 뉴스에 의하면 13세 아이의 지능을 가진 로봇이 만들어 졌다고 한다. 하물며 인간에서 아인슈타인의 지능을 가진 인간을 만들어 낸다고 가정해보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집단과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상상해 볼 때 우생학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착상전유전자검사는 경계해야 할 중요한 도발이라고 말할 수 있다.

4.3. 배아줄기세포 연구

생식 의학의 발달은 배아줄기세포(stem cell)의 연구라는 또 하나의 큰 비윤리적 과학의 연구 방법을 탄생시켰다. 난자와 정자를 인위적으로 수정 시켜 실험실에서 배양을 한 후 배아가 8세포 정도로 자랐을 시기에 다분화 가능성이 있는 배아의 세포를 사용하여 치료 목적으로 원하는 조직 또는 기관으로 형성 시키겠다는 의도 아래 행해지는 연구가 소위 배아줄기세포 연구이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앞서 언급한 보조생식술의 경우에 언급한 여러 윤리 문제가 제기된다. 배아의 파괴와 클론의 생산 가능성 등, 인간의 생명을 실험실에서 조작한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의학이 아무리 발달 되었다 해도 아직은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추구하던 목적을 성공시킨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이 현실이다. 나아가서 배아줄기세포가 아닌 성체줄기세포(adult stem cell)를 치료 목적으로 이용하여 성공하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으며, 체세포역분화줄기세포(IPSC,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에 대한 연구를 시도할 수도 있다. 성체줄기세포나 체세포역분화줄기세포의 연구는 배아줄기세포의 연구에서 야기되는 윤리 문제가 없을 뿐 더러 치료 목적에서도 배아줄기세포에서보다 세포의 다분화 가능성이 적어 원하는 조직을 더 쉽게 얻

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 나가는 말

현재 대부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성교육’은 남녀의 신체 구조적 차이, 임신의 과정, 그리고 피임 방법에 대한 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진정한 성교육이란 인간의 몸과 인간의 성(性)에 관한 근원적인 이해와 그에 대한 실천이 중요하다 사료된다. 이렇게 성교육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인간의 몸과 성에 대한 인간학적, 철학적, 그리고 의학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피임에 대한 교육에서 탈피하여 성의 진정한 의미, 결혼의 의미와 혼전 순결, 그리고 사랑에 의한 부부 행위와 책임 있는 자녀 출산에 관한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회의 사목적 활동에 관한 많은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싶다. 가톨릭교회는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명분 아래 피임을 허용하지 않는 원칙에 무조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가르치기에 앞서, 거기에 대한 설득력 있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피임 방법의 대안으로 자연출산조절법을 말하고는 있지만 많은 가톨릭 신자들, 아니 대부분의 가톨릭 신자들은 이 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도 않다는 점이 현실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연 출산 조절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고 다른 피임 방법을 찾게 된다. 가톨릭 신자와 나아가서 그리스도교인 이외의 타자들까지를 대상으로 자연출산조절법에 관한 더욱 더 적극적이며 체계적이고 실천 가능한 실질적인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사랑에 의한 결혼과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협력하는 출산과 책임 있는 부모의 역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써 추구해야 할 모범적인 혼인 생활일 것이다. 그런 부부 생활이야말로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보시기에 참 좋은 남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이라 믿는다.

참고문헌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서

ST Summa Theologiae

SCG Summa contra gentiles

QDA Questio disputata de anima

QDP Questiones disputatae de potential dei

교황 바오로 6세의 Encyclical Letter

Humanae Vitae

기타 자료

Ashley, B. - Moraczewski, A., "Cloning, Aquinas, and the embryonic person", *The National Catholic Bioethics Quarterly* 1 (2001), 199-200.

Ashley, B., "A critique of the theory of delayed hominization", in D. McCarthy - A. Moraczewski (edd), *An Ethical Evaluation of Fetal Experimentation: An Interdisciplinary Study*, St. Louis 1976, 123-124.

Boethius, A.M.S., "Contra Eutychen et Nestorium", in *The theological tractates, The Opuscula Sacra*, trans. H.F. Stewart, A Digireads.com Book, 2007, 29.

Donceel, J., "Immediate animation and delayed hominization", *Theological Studies*, 31(1), 1970, 76-105; *The National Catholic Bioethics Quarterly* 3 (2003), 767-786.

Eberl, J.T., "Thomistic Principles and Bioethics", in M.J. Cherry - A.S. Iltis (ed), *Routledge Annals of Bioethics*,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London and New York 2006, 27-28.

- Ford, N.M., “When did I begin? Conception of Human Individual in History”, *Philosophy and Sc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1988.
- Gardner, D.K. – Weissman, A. – Howles, C.M. – Shoham, Z. (edd.), *Textbook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iques*, CRC Press, Boca Raton, FA 2012⁴.
- Huxley, A., *Brave New World*, Harper Perennial Modern Classics; Reprint edition (October 17, 2006).
- John Paul II, *Man and Woman, He Created Them, A Theology of the Body*, trans. M. Waldstein, Pauline Books and Media, Boston, MA 2006, 146-154.
- Kim, A. – Bridgeman, M.B., “Ulipristal Acetate (ella), A Selective Progesterone Receptor Modulator For Emergency Contraception”, *Drug Forecast* 36(6) (2011), 325-331.
- Koyama, A. – Hagopian, L. – Linden, J., “Emerging Options for Emergency Contraception”, *Clinical Medicine Insights: Reproductive Health* 7 (2013), 23-35.
- Pasnau, R., “Souls and the beginning of life: a reply to Haldane and Lee”, *Philosophy* 78 (2003), 521-531.
- Pojman, L.P. - Fieser, J., *Ethics, Discovering Right and Wrong*, CENGAGE Learning Korea Ltd, Seoul, Korea 2009⁶, 64-65.
- Rhoheimer, M., *Natural Law and Practical Reason, A Thomistic View of Moral Autonomy*, trans. G. Malsbary, Fordham University Press, New York 2000, 110-134.
- Roe vs. Wade*, 410 U.S. 113(1973).
- Tham, S.J., *The Secularization of Bioethics: A Critical History*, UPRA Press, Roma 2007.
- 국어사전, <http://www.naver.com>
- 에머리히 코레이트, 『인간이란 무엇인가』, 안명옥 옮김, 성바오로출판사 서울 1994, 209-257.
- 페쉬케, K.H., 『그리스도교 윤리학, 제 1권 기초 윤리신학』, 김창훈 옮김, 분도출판사, 1990, 362-364.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가정 공동체』, 1981.

〈혼인과 출산: 그리스도교 윤리와 성〉에 대한 토론문

최진일 연구원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방대한 내용을 일목정연하게 정리해주신 이인국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의 발표 문은 요한바오로 2세의 몸의 신학과 회칙 「가정공동체」를 중심으로 혼인과 가정의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서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산에 관련하여서는 피임, 자연출산법, 낙태 등에 관한 의학적 윤리적 문제를 다루시면서 생명윤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격”이 무엇인지를 고찰하시고 이중효과(결과)의 원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생식의학에서 논쟁의 쟁점들-보조생식술, 착상전유전자검사, 배아줄기세포 연구-을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목적 활동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십니다. 교수님의 발표문 구조 안에서 본 주제-혼인과 출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과 저의 짧은 소견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1. 혼인과 가정의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교수님께서서는 중요한 점을 요약해 주시고 계십니다. 방대한 내용을 간략히 서술하시다 보니 중요한 내용이 단정적으로 주입식 전달에만 그친 것이 아닌가 하여 몇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청합니다. ① 2페이지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느님을 알 수 있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특별한 위치와 인격적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말씀하신 “**인격적 정체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뒤에서 “인격이란?” 소제목 아래, 인격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한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을 하시지만, 2페이지에서 제시하는 인격적 정체성은 관계 안에서 깨닫는 것이라는 생각에 질문을 드립니다. ② 같은 페이지에 있는 “**원일치 original unity**”의 설명에서, “남자와 여자는 온전히 내어주고 받아들임의 근원적 체험으로써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느끼고 체험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

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줌으로써, 다르게 표현하여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 의지적으로 또한 깊은 사랑으로 우리의 개인적 즐거움을 희생함으로써 깊은 만족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일치”가 의미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설명에서, 특별히“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 의지적으로 또한 깊은 사랑으로 우리의 개인적 즐거움을 희생함으로써 깊은 만족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2. 4페이지에서 혼인 전의 성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혼인 안에서의 일치의 근원적인 체험으로서의 성교가 아닌 혼인 전의 성관계는, 자신의 한 부분은 이 사람에게 남겨 두고, 자신의 다른 부분은 저 사람에게 남겨 두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자신의 내면 안에서 자신을 분열시키며, 삶을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반면에 순결과 동정은 이러한 위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보호 장치인 것입니다.”우리사회에서 혼인 전의 성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콘돔과 피임약이 삶을 힘들게 만들지 않는 아주 효율적인 보호장치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성관계에 대한 인식이 혼인 안에서의 일치의 근원적인 체험보다는 남녀 관계의 중요 요소로서 성관계를 이해하는 듯합니다. 이것은 개인적 삶의 문제와도 관련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의 패러다임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동정과 순결이 중요한 보호 장치라는 이유와 더불어, 혼인 전의 순결과 동정을 자신과 자신의 본능을 지성과 자유의지로 지배하는 덕으로서 의미를 부여하고 왜 삶에서 실천할 덕목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인 전 남녀의 관계 안에서 순결과 동정의 실천으로 자신과 자신의 본능을 지배하는데 익숙해진다면, 혼인 안에서 부부행위의 인격적 자기 증여와, 신의를 바탕으로 한 정결의 덕 실천에도 기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보조생식술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마지막에 교수님은 “여성 개인의 자유의지를 내세우면서 비 윤리적인 수단을 합리화 하는 보조생식술 또는 착상전유전자검사 등은 근본적인 인간 존엄성에 대한 도전으로써 비 도덕적인 인간의 행위라 할 수 있다.”라고 비판하십니다. 여성들이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 비 도덕적인 인간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도덕적 수단의 합리화를 여성의 책임으로만 전과시킬 수는 없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생명의 복음」 24항은 다음과 같이 말합

니다. “하느님 의식과 인간 의식의 실종이 생명에 대한 다양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수반하여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윤리의식의 핵심에 대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느님 앞에 홀로 독특한 존재로 서있는 **개인** 양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 “윤리의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즉 어떤 면에서 사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가 생명에 반하는 행위들을 용인하고 조장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생명을 거스르는 실제적인 “죄의 구조들”을 만들어내고 강화하는 “죽음의 문화”를 고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개인과 사회의 윤리의식은 모두 **극도로 심각하고 치명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침투력이 강한 매스 미디어의 영향력이 가져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즉 생명에 대한 기본권과 관련해서 **선과 악을 혼동하는 위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수님이 지적하신 윤리적 문제에 대한 접근이 개인적일뿐만 아니라 사회적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수님이 착상전유전자검사의 우생학 측면에 대한 윤리적 비판도 맞춤형 아기 (designer baby)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맞춤형 아기를 선별하기 위한 착상전유전자검사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법 시행에 대한 엄격한 감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맞춤형 아기를 갖기 위한 배아선별이 시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다수의 부모는 유전적 질환을 자녀에게 대물림하지 않으려는 지향으로 착상전유전자검사를 선택합니다. 또한 남녀의 성별의 선택은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나라에서 두드러집니다.¹⁾ 우리나라의 경우도 남아선호사상이 강하여 남아를 가지려는 의도로 착상전유전자검사가 시행될 수 있지만, 이것을 단순히 여성 개인의 자유의지를 내세우려는 입장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유전자 질환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 지향으로 인간배아의 신체적 온전성과 존엄성을 위협하고, 생명을 저울질하는 착상전유전자검사 자체가 정당화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은 이 문제는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고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윤리적 문제를 개인적 차원으로만 국한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인격에게 우리는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엄마들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돌보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회나 가정에서

1) Cf. R. MaCklin, «The Ethics of Sex Selection and Family Balancing», *Semin Reprod Med* 28/ 4 (2010), 315-321.

장애를 가진 인격에 대한 시각이 편협하고, 이러한 “죄의 구조들” 안에서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삶을 부모나 혹은 엄마(아빠)에게만 떠넘기려 한다면 착상전유전자검사의 유혹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윤리적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명확하게 고찰을 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나 인간 생명에 대한 보호와 존중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공동선이기 때문입니다.

4. 마지막으로 피임과 자연출산조절법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주셨지만 저의 짧은 소견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자연출산조절법을 피임의 대안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임이 인공적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자연출산조절법은 자연적이기 때문에 권장한다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라면 우리는 치료를 위한 의료적 수술도 인공적이므로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자연출산조절법은 단순히 임신을 피하고자 하는 방법이 아니라, 부부의 신의를 바탕으로 한 주기적 절제를 통해서 책임 있는 출산을 하고자 하는 의도로, 부부가 참 사랑의 맥락에서 육체적·영적 존재의 전 인격적 상호 증여와 함께 출산의 의의를 보존하면서 책임 있는 부모의 역할을 다하려는 의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수님이 본문에서 지적하셨듯이 부부는 생명에 대한 책임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피임은 개별 성 행위를 불임으로 만들려는 의도로 부부 일치와 출산의 불가분의 관계를 인위적으로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피임은 부부 행위에서 출산을 분리시켜 그들의 전적인 자기증여라는 부부행위의 진리를 반(反)할 뿐만 아니라 부모됨의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박탈하기 때문에 “인간 출산의 온전한 의미 보존”이라는 인간 출산의 진리에도 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임은 부부행위에 담긴 참사랑의 의미뿐만 아니라 인간생명의 기원에 대한 존엄성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연출산조절법의 적용에 인간학적 도덕적 가치를 생략하고 그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되면, 여성의 몸은 하나의 피임도구로 전락될 위험이 있습니다. 여성의 주기는 기계처럼 그 주기가 항상 정확하지도 않을뿐더러 심리적,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차원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자연출산조절법을 사용하여 “아내의 주기를 받아들인다”²⁾는 것은 아내의 전 존재에 대한 관심과 존중 가운데 가능합니다. 즉 대화, 상호 존중, 책임의 나눔과 자제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상호 증여의 논리 안에서만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출산

2)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가정공동체」, 32항.

조절법의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만 부담시켜 그 주기를 확인하게 한다거나 아내의 몸을 기계적으로 간주하여 자연출산조절법을 사용한다면, “아내의 몸과 마음의 균형을 무시하고 아내를 자기 정욕에 봉사하는 도구로”³⁾ 삼게 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일치가 여성의 몸을 도구화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 부부행위는 동등한 차원에서 부부애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⁴⁾ 그러므로 자연출산조절법은 그 선택뿐만 아니라 부부가 그 행위의 공동주체로서 올바르게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수님이 지적하셨듯이 정결의 덕과 정의의 두 가지 덕이 필요하며, 덕의 실천은 일회성이 아닌 삶 안에서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성취될 수 있는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윤리적 가르침이 어떻게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생명윤리에 관한 가르침이 “~하지 말라”를 강조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론적 차원뿐만 아니라 실천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의 출발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바로 “인격적 정체성”을 명확히 이해할 때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교수님이 서론에서 지적하신 성교육의 패러다임의 전환과 관련하여 결론에서 제기하신 교회의 사목적 활동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이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바오로 6세, 회칙 「인간생명」, 16항.

4) 줄저, 「부부일치와 출산의 의도적 분리에 대한 윤리적 고찰」, 『인간연구』 27, 176쪽.

발 표 자 김 지 영



김지영 연구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Prof. Jiyoung Kim (Center for Comparative Korea Research, AKS)

〈소속 및 직위〉

한국학중앙연구원 비교한국학연구센터 연구교수

〈학력〉

- 2010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류학 전공(문학박사)
- 199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사회·민속전공(문학석사)
- 1996 전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문학사)

〈경력〉

- 2010~2011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연구소 전임연구원
- 2011~2012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후 국내연수(post-doc)
- 2012~2014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비교문화연구소 특별연구원

〈주요논저〉**■ 국내**

- 2010 “조선 왕실의 출산문화 연구: 역사인류학적 접근”(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2010 “조선후기 왕실의 출산문화에 관한 몇 가지 실마리들-장서각 소장 출산관련 ‘궁중발기[宮中件記]’를 중심으로”, 『장서각』 제23집.

- 2011 “조선시대 왕실 여성의 출산력: 시기별 변화추이와 사회문화적 함의”, 『정신문화연구』 제34권 제3호
- 2012 “조선시대 왕실 ‘권초례(捲草禮)’의 변화”, 『민속학연구』 제30호
- 2012 “17세기 효종가족의 탄생과 전쟁경험”, 『한국계보연구』 제3호
- 2014 “조선시대 출산과 왕실의 ‘장태의례(藏胎儀禮)’: 문화적 실천양상과 그 의미”, 『역사와 세계』 제45집.

■ 국외

- 2014 “Fertility and Childbirth among Royal Women in Nineteenth-Century Korea”, Asia Pacific: Perspectives, vol XII, No.1, Fall/Winter 2013~2014 .

조선후기 왕실 여성의 저출산과 유교적 생활세계

1. 조선후기 왕실의 저출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적장자嫡長子를 통한 家의 계승이 중시되었던 조선사회에서 여성의 출산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출산의 주요 행위자가 여성이라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최근까지도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반 개념이 서구사회에 기초해서 정의하였던 인간의 ‘통과의례通過儀禮 rites of passage’에는 출산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조선사회에서 중시했던 ‘사례四禮’에 출산은 제외되고 제례가 조선인의 생애의례의 범주에 속하였다. 이로 인하여 조선시대 여성의 출산은 ‘예禮’의 영역이 아닌 ‘산속産俗’으로 분류되었으며 ‘남성/문화’가 아닌 ‘여성/자연’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조선시대 출산을 둘러싸고 행해지는 다양한 신앙과 의례, 부부간의 성性, 자녀(특히 아들)을 낳기 위해 행하는 다양한 기자祈子행위 등을 기록한 문헌은 그다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다행스럽게도 조선시대를 살았던 여성들 가운데 양반계층 이상의 경우, 죽은 이후 묘 앞에 새겨진 묘비명墓碑銘이나 그녀들의 삶의 행적을 기록한 행장行狀, 족보族譜 등에 조선시대 여성의 출산력 추이를 추정할 수 있는 출생자녀수가 기록되어 있다. 실제로 차명수(2009:132)는 전주이씨 무안대군과, 전주이씨 장천군과, 함양박씨 정랑공과, 강릉김씨 네 족보를 이용한 출산력, 사망력 및 인구증가에 관한 분석에서 18세기~19세기 여성들의 합계 출산율이 6.81명이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¹⁾

대체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출산지식들은 20세기 중·후반 농촌 또는 산간, 도서 島嶼지역에 살았던 할머니, 어머니 세대의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출산경험과 구술口述에 기초한 민속지식에 기반하고 있다.²⁾ 근대적 병원출산이 보편화되는 198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
- 1) 차명수, 「조선후기의 출산력, 사망력 및 인구증가: 네 족보에 나타난 1700~1899년간 생몰기록을 이용한 연구」, 『한국인구학』 32(1), 2009, 113~137쪽.
 - 2) 1990년부터 1992년에 걸쳐 한국문화인류학회에서 산속에 관한 전국민속종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당시 6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한 보고서이다. 1960년대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주요대상이었으나, 1960년대에 조사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시기적으로 1930년대까지 행했던 출산관

여성의 출산행위를 둘러싸고 전통적인 출산지식과 근대적인 출산지식이 경합하는 가운데 서로 혼용되거나 대체되기도 하며, 새롭게 조합된 포스트모던적 출산지식이 생성되고 있는 중이다.

인구학에서 출산력(出生力(fertility))은 여성들이 갖고 있는 생물학적인 임신의 능력[가임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행위를 통하여 자녀를 실제로 몇 명 정도나 가지게 되는가를 의미한다. 즉 혼인연령, 피임여부, 부부의 건강상태, 부부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부가 실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수준을 일컫는다. 출산억제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 여성의 가임 능력은 부부당 최대 15명을 출산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부부들이 한 여성의 가임력이 허용하는 한계까지 출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김은실(1996:119)이 지적한 것처럼, 보편적인 생물학적 기능으로 간주해온 여성의 출산능력이 실제 출산행위로 실천되는 과정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관계들이 개입하는 정치적 장인 것이다.³⁾

요즘과 같이 한국사회에서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저출산 대책들을 내놓는 등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출산과 같은 인구현상에 대한 일반인과 학계의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한국사회의 출산력은 1960년대 초부터 꾸준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1980년대 후반에 출산력 수준이 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한국의 지속적인 출산력 수준의 감소현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은기수(2006:106)는 1960년대 이후 최근 40년 동안 한국사회의 출산력 수준을 낮추는데 기여한 대표적인 세 가지 요인으로 혼인연령의 상승, 피임의 실천, 인공유산의 광범위한 시술을 지적하였다.⁴⁾ 최근의 인구학적 연구에 따르면, 근대 이후 한국사회가 경험한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남아선호, 여성의 지위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출산력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그 상관성을 분석하기도 하였다.⁵⁾

한상복과 권태환(1981:43)은 한국인의 출산 행위에 관한 심층적인 이해는 여성 또는 부부가 속해있는 생활공동체의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생태학적 요소들을 맥락화함으로써 가능한데 이를 위해 소규모 공동체의 사례연구와 총체적인 접근을 지향하는 인류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실제 한국사회의 소도시, 어촌, 산촌, 농촌지역에 대한 사례연구

행들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24·25(산속편 상·하권), 1993, 1994 참조)

3) 김은실, 「출산문화와 여성」, 『한국여성학』 12(2), 1996, 119~153쪽.

4) 은기수, 「결혼연령 및 결혼코호트와 첫 출산간격의 관계: 최근의 낮은 출산력 수준에 미치는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5(6), 2001, 105~139쪽.

5) 이성용, 「남아선호와 출산력 간의 관계」, 『한국인구학』 26(1), 2006, 31~57.

를 통하여 생태학적 특징이 여성의 출산력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⁶⁾

전통사회의 인구학적 특징은 대체로 출산율과 사망률이 모두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출산율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지는 근대사회와는 대조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논의와는 다르게 조선시대 최고의 신분계층에 속하였던 왕실가족의 경우, 17세기 이후 지속적인 출산력 감소현상을 나타내었다. 특히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왕실 여성의 출산력은 조선왕조 500년 기간 동안 최하수준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발표자는 2011년 『선원계보기략』과 『돈녕보첩』과 같은 왕실족보를 활용하여 왕실 여성의 출산력에 나타난 변화와 그 사회문화적 의미를 연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⁷⁾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조선시대 왕실 여성의 출산력이 인조 이전과 인조 이후로 눈에 띄는 변화양상을 나타내었다는 것이다. 즉 17세기 이후 왕실가족은 저출산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였다.

본 발표문은 조선후기 왕실여성의 저출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2011년의 연구를 좀 더 심화시켜 17세기 이후 왕실이 지속적으로 경험했던 저출산 현상의 심층적인 원인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서는 조선사회에서 적장자를 통한 가의 계승이 더욱 중시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왜 첩이 아닌 처에게서 태어난 큰아들이 가를 계승하지 못하는 현상이 증가하는 것인가? 왕가의 왕비뿐만 아니라 종가의 종부는 왜 가를 계승할 아들을 낳는데 지속적으로 실패하는 것인가? 조선사회에서 가의 계승과 영속성이 강조되어 갈수록 이를 보장해주는 여성의 출산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왕실여성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발표자는 조선후기 유교이데올로기를 통한 유교적 생활세계의 형성과 유교의례의 적극적인 실천이 왕실 여성의 저출산을 가져온 주요 원인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17세기 조선사회에서 예학이 발달하면서 유교의례를 통하여 일상적 삶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상례와 제례가 특히 강조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조선후기, 특히 17세기 왕실의 사례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죽음의 의례(상례와 제례)가 삶의 의례(혼인과 출산)를 압도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왕실의 출산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저하되는 기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6) Han SangBok and Kwon TaeHwan, "Anthropological Approach in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research in Korea", *Development and Society* 9, 1981, pp.41~56.

7) 김지영, 「조선시대 왕실 여성의 출산력: 시기별 변화추이와 사회문화적 함의」, 『정신문화연구』 34(3), 2011, 260~297쪽.

2. 왕실의 혼인과 출산의 실제⁸⁾

1) 다산多産에 대한 소망과 저출산의 아이러니

숙종을 낳은 현종비 명성왕후明聖王后 김씨의 묘지문인 승릉지崇陵誌에는 왕실의 며느리가 왕위를 계승할 원손을 빨리 낳아주길 바라는 시아버지의 마음이 잘 표현된 예화가 소개되어 있다.

효묘(효종)께서 일찍이 그림 한 폭을 내려 주시며 이르시길, “이것은 백발의 늙은 신선이 사내아이를 안고 가는 그림이다. 곧 내가 신손(神孫:원손)을 안아보기를 원하는 뜻이니라”하시었다.

원손을 빨리 안아보고 싶어 했던 효종의 바람은 안타깝게도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효종이 승하한 이후에 실현되었다. 왕위를 계승할 원자가 가능한 빨리 태어나길 바라는 왕실의 현실적인 상황에서 효종의 그림선물은 이러한 소망을 극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현종은 11세인 1651년(효종 2) 8월 9일 관례를 치렀고, 8월 28일 왕세자에 책봉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겨울 12월 22일 10세인 청풍 김씨를 세자빈으로 맞이하였다. 현종은 명성왕후와의 사이에서 1남 4녀를 자녀로 두었다. 첫 딸 명선공주明善公主는 효종이 승하하고, 현종이 즉위한 1659년, 왕비의 나이 18세였다. 현종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숙종은 현종이 첫 딸을 얻은 2년 후인 1661년에 태어난다. 그 후 명성왕후는 1662년에 명혜공주明惠公主를, 1665년에 명안공주明安公主를 낳았다.

18세기 왕실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장수와 다산을 바라며 특별한 그림을 하사한 숙종의 사례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숙종이 지은 두 편의 어제御製 가운데 한 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곽분양행락도를 세자에게 하사하며[題郭汾陽行樂圖賜世子]」

예로부터 완전한 복을 누리기는 곽자의를 제일로 여기느니,
아들, 사위, 손자들이 모두 앞에 섰구나!

8) 이 장은 김지영(2011)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논의에 맞게 새롭게 정리한 것이다.

그림으로 그려 이를 만든 것이 우연이 아니니
 곁에 두고 보면서 만복과 장수를 누리 거라.

숙종으로부터 광자의행락도를 하사받은 왕세자는 경종이다. 경종은 숙종이 30세 되던 해인 1688년에 얻은 귀한 아들로, 후궁소생임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다음해인 1689년에 원자로 정호되었고, 1690년에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그 과정에서 인현왕후가 서인으로 폐해지고, 경종을 낳은 희빈 장씨가 왕비의 지위에 오르는 등 숙종시대 ‘왕비교체’라고 하는 커다란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경종은 1696년 심호의 딸인 단의왕후 심씨와 가례를 치렀으나, 1701년 생모인 희빈 장씨가 사사된 이후로 더욱 병약해졌다. 그런 까닭에 숙종은 늘 그를 염려하였다. 숙종은 이 그림을 세자에게 선물하며 허약하고 아들이 없는 세자가 그림의 주인공인 광자의와 같이 무병장수하고, 자손이 번성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염려와 소망을 담았던 것이다. 아들을 낳지 못한 인현왕후를 내쫓고, 왕위를 이어줄 아들을 낳은 후궁인 희빈 장씨를 왕비로 삼을 정도로 아들에 목말라 있던 왕 숙종도 광자의의 다복함을 부러워했다. 특히 숙종은 완전한 복을 누린 광자의의 15명이나 되는 아들딸들이 가장 부러웠던 것이 분명하다.

숙종이 경종에게 하사했던 이 그림은 19세기 왕실가례에서 별궁에 배치되는 병풍으로 제작되었다. 왕실의 예비신부(왕비후보자나 왕세자빈후보자)가 삼간택(三揀擇) 이후부터 친영(親迎) 전까지 머물며 임시로 거처했던 공간인 별궁(別宮)에 배치했던 병풍그림인 ‘곽분양행락도(郭汾陽行樂圖)’가 그것이다. 이 그림은 병풍의 형태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곽분양행락도(郭汾陽行樂圖屏)’이라고 하였다. 이는 19세기 행해진 왕실가례의 기록인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그림이 1802년 순조와 순원왕후의 가례에서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여 19세기 왕실가례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는 점이다.

<곽분양행락도>는 중국 당나라 때 광자의(郭子儀, 697~781) 라는 실존 인물의 영화롭고 다복한 생애를 담아놓은 그림이다. 광자의는 755년 안록산의 난을 평정한 명장으로 탁월한 공훈을 세워서 분양왕에 책봉되었다. 광자의의 영화로운 삶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여 명성을 쌓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8명의 아들과 7명의 사위(八子七壻)를 두었고, 아들뿐만 아니라 사위들까지 모두 크게 출세한 것으로 더욱 유명해졌다. 광부부의 자녀들이 낳은 손자와 증손자들까지 일일이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자손이 번창하는 복을 누렸다. 이에 장수의 복까지 더하여 85세까지 살았다. 광자의는 그야말로 천수를 누리고, 세상 부귀영화를 다 맛본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조선 사람들에게 ‘완전한 복을 누린 사람[完福之人]’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숙종과 정조는 곽자의의 다복함을 상당히 부러워했던 왕이기도 했다.

19세기 왕실 가례에서는 이전 가례에서 반드시 사용되었던 병풍인 십장생대병풍을 대신하여 곽분양, 즉 분양왕에 책봉된 당대의 장군 곽자의의 다복한 생애를 묘사한 곽분양행락도 병풍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곽분양행락도와 함께 백자동도百子童圖도 왕실의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로 왕실의 가례에서 사용된 병풍이다. 이 그림은 어린 남자아이들이 정원에서 뛰노는 장면을 그린 것으로 곽분양행락도에서 파생된 것이다. 실제 1819년과 1882년 왕실 가례 때 사용되었고, 1892년 고종의 망오望五를 기념하는 진찬進饌에서도 사용되었다.

‘곽분양행락도’라는 특별한 그림은 왕비가 몇 명의 자녀를 낳기를 원했는지에 관한 하나의 구체적인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예로부터 ‘8대군’이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는 영조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왕실에서는 아들 여덟, 딸 일곱으로, 모두 15명은 낳아야 최소한 다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산을 실현했던 역대 왕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조선 최대의 다산왕은 29명의 자녀를 둔 태종이었다. 정비인 원경왕후와의 사이에서 4남 4녀를 두었고, 21명은 모두 후궁소생이다. 조선시대 왕비와의 사이에서 가장 많은 자녀를 둔 왕은 세종이었다. 세종은 모두 2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이 가운데 세종비 소헌왕후는 8명의 대군과 2명의 공주를 낳았다. 영조가 이야기했던 ‘8대군’은 세종의 아들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다산에 대한 왕실 가족의 소망은 왕실의 혼례식인 가례嘉禮 때에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되었다. 왕실 예비신부가 머물던 별궁공간에 곽분양행락도를 배치했다면, 왕과 왕비의 신혼방에는 부벽화付壁畵 ‘구추봉도’를 붙였다.

신혼방을 장식했던 부벽화 구추봉도九雛鳳圖는 1802년(순조 2) 10월 순조가 김조순의 딸인 순원왕후 김씨를 왕비로 맞이하는 가례를 치르기에 앞서 8월 14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창덕궁 대조전을 수리하고 대청 및 동서온돌방에 각종 장식 및 의장을 새로 배설하는 과정에서 등장한다. 수리공사 당시 선공감 봉사직을 맡았던 이이순(李頤淳, 1754~1832)은 자신의 문집에 왕과 왕비의 신혼방을 어떻게 꾸몄는지 상세히 기록하기도 하였다.⁹⁾

9) “(대조)전은 인정전의 동쪽, 회정당의 북쪽으로 궁궐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가운데 여섯 칸이 중심이고, 좌측 여섯 칸이 동상방, 우측 여섯 칸이 서상방이다. 동상방(東上房)에는 방이 여섯, 서상방(西上房)에는 방이 여덟으로 모두 앞뒤에 툇마루가 있다. 총 서른여섯 칸이다 … 정당의 북벽 중앙에는 금종이로 된 병풍 한 쌍을 설치하는데, 광두정으로 부착한다. 그 앞에 요지연도 십곡병을 설치하고, 용상(龍床)을 놓

일반적으로 봉황은 단봉이나 쌍봉을 그리는데, 새끼들이 함께 그려진 봉황은 다산을 상징하였다. 구추봉도는 왕실 침전 실내장식으로 사용된 부벽화 외에도 일상생활용품인 왕실의 구봉침(九鳳枕), 주칠나전이층농 등에 그려졌다.

이와 같이 다양한 그림을 통해 드러냈던 왕실가족의 다산에 대한 소망과는 달리 조선시대 왕실 여성의 출산력은 인조대 이후로 급격하게 떨어진다. 태종, 세종, 성종, 중종, 선조와 같은 왕들은 자녀수가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29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인조 이후에는 적게는 4명, 많을 때는 14명 정도였다. 『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記略』과 같은 왕실족보를 이용한 통계에 의하면, 조선시대 왕실에서 태어난 총자녀수는 273명이다. 이 가운데 왕비의 자녀는 93명, 후궁의 자녀는 180명으로 2/3가 후궁소생이다. 남녀출생성비는 남아 152명이고, 여아 121명으로 남아의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인조 이전에는 183명, 인조 이후에는 90명으로 총 자녀수가 1/2로 급감한다는 사실이다. 19세기 헌종 이후에는 왕위계승자가 태어나지 않으면서, 왕실의 직계자손으로 왕위가 이어지지 못하고, 철종과 고종과 같은 방계후손들로 이어지게 되었다.

인조반정 이후 효종-현종-숙종으로 이어지는 삼종혈맥을 이어줄 왕위계승자의 탄생이 늦어지면서 숙종이후로 왕위를 계승할 원자에 대한 욕구가 그 이전 시기보다 더욱 강해졌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왕실의 자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그럴수록 왕실의 다산에 대한 소망 또한 더욱 커져갔다. 조선 후기 왕실가족에게 괘자의의 ‘팔자칠서’는 하나의 구체적인 목표가 되었으나 실현시키지 못한 꿈이기도 하였다.

2) 왕비의 혼인연령과 출산력

조선과 같은 유교사회에서 혼인은 가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종묘를 섬기고, 후세를 잇기 위한 자손을 낳은 것이었다.¹⁰⁾ 혼인을 한 부부에게는 조상의 제사를 이어갈 아들을 낳아야 할

는다. 용상 위에 용문석(龍紋席)을 깔았는데...동상방은 정침 세 칸으로 동벽에는 모란병[牡丹屏]을 세우고, 북벽에는 구추봉도(九雛鳳圖)를 붙이고, 중앙의 두 기둥에는 예서로 쓴 ‘창승월광(蒼蠅月光)’ 네 자를 붙이고, 서쪽에는 팔분체[八分字] 쓴 ‘정심수신(正心修身)’ 네 자를 붙였다. 가장 중앙인 1칸 방의 서벽에는 매화병(梅花屏)을 세우고, 북벽에는 죽엽병(竹葉屏)을 세운다. 동쪽 문에는 매죽화(梅竹畫)를 붙인다...동상방은 임금이 계신 정침이다. 병풍이 10여부 정도 있는데, 금병풍 하나에는 일곱 마리 새를 그렸고, 그 나머지는 선인, 비룡, 진귀한 새와 동물, 꽃과 풀 등을 그렸는데 모두 무척 아름답다.” 『후계집(後溪集)』 권오, “雜著” 「대조전수리시기사(大造殿修理時記事)」

10) 『예기』 「혼의」 편. “혼례는 장차 두 성이 좋게 합하여 위로는 종묘를 섬기고 아래로는 후세를 잇는 것이다. 婚禮者, 將合二姓之好, 上以事宗廟, 而下以繼後世也”

중요한 임무가 부여되었다. 조선시대에는 한 여성이 왕비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논할 때 덕과 용모, 가문, 생년월일 등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 가운데 왕비를 간택함에 있어서 가문의 격[家格]이 가장 중요했다. 조선시대 명문가 출신인 왕비들은 주로 공신가문이나 재상가문의 여성들이었다. 왕비들은 왕실과 인척관계를 맺고 있는 왕실의 피가 흐르는 가문출신이었다. 명종대 이후부터 왕비는 선조 계비 인목왕후, 인조 계비 장렬왕후, 영조 계비 정순왕후 3명의 계비를 제외하고 모두 효령대군의 외손계 출신이었다. 실제로 1681년(숙종 7) 국왕 가례시 간택처자 19명의 가문은 대부분 공신가문이거나 왕실과 인척관계에 있었다.

여기서는 조선시대 역대 왕비들의 혼인연령, 초산연령, 출산간격, 자녀수 등 왕비의 출산력에 나타난 특징과 변화양상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왕비의 혼인연령은 조선전기에 비하여 조선후기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왕비의 혼인연령은 보통 13~15세 사이였으나, 현종비인 명성왕후부터 평균 혼인연령이 10~11세로 낮아졌다. 계비로 간택된 경우에는 혼인연령이 15세 정도였다. 왕비의 혼인연령이 조선후기로 갈수록 낮아진 반면, 왕비의 첫 출산시기는 20세 전후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초산연령이 가장 낮은 왕비는 10세에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16세에 첫 자녀를 출산한 혜경궁 홍씨(장조비 헌경왕후)이다. 문조비 신정왕후의 경우, 11세에 세자빈에 책봉되었으나, 20세에 첫 자녀를 출산하였다. 왕비의 출산터울을 보통 1~3년 정도였다. 조선시대 왕비들은 20세 전후로 자녀를 낳기 시작하여, 30대 초반에 단산斷産하는 경향을 보였다. 조선시대 왕비들은 15~49세에 해당하는 여성의 가임기 내내 출산을 지속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조비 인열왕후와 같이 42세에 출산을 하는 사례도 보인다. 그러나 인열왕후의 경우 출산 후 노산과 산후병으로 갑자기 승하하기도 하였다. 전통시대의 '출산의 위험'이 왕비가 가임기 내내 출산을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던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역대 왕비의 출산력에 나타나는 변화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까지 왕비들의 출산력이 급격하게 낮아진다는 점이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왕비들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3. 유교적 생활세계의 형성과 의례적 삶의 실천양상

이 장에서는 조선후기 왕실의 일상세계 속에 구현된 의례적 삶 가운데 왕실 여성의 출산력 저

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상례와 제례를 중심으로 어떻게 유교적 생활세계가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왕실 상례에서 왕과 왕비의 삼년상을 마치고 종묘에 부모한 후 온전하게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까지 실질적으로 왕실가족의 혼인과 출산이 금지되는 양상과 왕실 제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천하는 왕의 ‘재계’가 의미하는 바를 고찰할 것이다. 특히 17세기 후반 예송논쟁을 거치며 조선사회에서 유교의례가 일상화되는 시기에 숙종의 생애 속에서 왕실가족의 죽음과 탄생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예송논쟁을 통한 17세기 유교의례의 일상화

유교의 형이상학적 세계인 천리天理는 하늘의 바른 이치로, 천리가 인간 사회의 일상세계로 구체화된 것이 유교의례이다. 조선시대 사례四禮(冠禮, 婚禮, 喪禮, 祭禮)로 대표되는 유교의례는 유교적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였다. 조선을 개국한 태조는 즉위교서에서 “관혼상제는 국가의 대법이니, 예조에 맡겨 경전을 세밀히 연구하고 고금을 참작해서, 일정한 법령으로 정하여 인륜을 후하게 하고 풍속을 바로잡도록 하라”고 천명하며, 관혼상제를 기반으로 유교의 이상적인 사회질서를 일상 속에 구현하도록 하였다.¹¹⁾ 조선이 추구했던 유교의 이상적인 사회질서는 종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각각의 의례절차 속에서 토착적인 생활문화와 때론 충돌하고, 때론 타협하면서 조선적인 의례문화를 형성해 나갔다. 예를 들면 혼례에서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직접 맞이하여 신랑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는 친영親迎에 대하여 강하게 저항하는 태도라던가 제례에서 가묘를 중심으로 하는 시제時祭보다 부모를 비롯한 조상이 묻혀있는 무덤에서 행하는 묘제墓祭를 더욱 중시하는 태도 등이 그러하였다.¹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사람들은 『주자가례』를 일상 속에서 몸소 실천하면서 유교적 의례생활은 점차 정착되어 갔다. 이와 같이 ‘예치禮治’의 정신을 따라 조선 사람들의 일상적 삶은 점점 유교식 관혼상제라는 의례적 삶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의례중심의 삶 속에서 유교적 인간관계를 따라 사회질서를 익히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된 유교적 생활세계 속에서 조선 사람들의 일상 또한 변화되어 갔다.

조선후기, 특히 17세기 조선 사회의 중요한 시대적 특징은 관혼상제의 의례를 고증하는 예학

11) 『태조실록』 권1(태조 1) 7월 28일. “...- 冠婚喪祭, 國之大法 ° 仰禮曹詳究經典, 參酌古今, 定爲著令, 以厚人倫, 以正風俗...”

12) 박종천, 「상·제례의 한국적 전개와 유교의례의 문화적 영향」, 『국학연구』 17, 2010, 370쪽.

禮學의 발달로 인하여 유교의례가 일상적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17세기 후반 효종과 효종비 인선왕후의 국상에서 비롯된 복제服制와 관련된 예송논쟁은 조선 사람들의 일상에서 유교적 생활세계를 긴밀하게 구축하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 왕실의 전례는 의와 관련된 예송논쟁은 '기해예송己亥禮訟'¹³⁾부터 '갑인예송甲寅禮訟'¹⁴⁾에 이르기까지 15년 이상 지속되었다. 상례의 복제문제에서 비롯된 두 차례에 걸친 '예송논쟁'은 왕가王家의 예와 사가私家의 예에 대한 예학적 입장을 둘러싸고 두 갈래의 예학과를 형성하였다. 예학과는 지역적 기반과 학문적 입장에 따라 기호 서인과 영남 남인으로 범주화되었다. 두 예학과 사이에서 벌어진 치열한 논쟁과정은 의례에 대한 매우 정밀한 분석뿐만 아니라 의례의 변화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미세한 의례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 및 예학 저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수준을 이루는 것으로 평가되었다.¹⁵⁾

예학과를 중심으로 예에 관한 담론이 깊어지면서 조선 사람들에게 유교적 관례, 혼례, 상례는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삶의 각 단계에서 행하는 통과적인 의례로 인식되었고, 유교적 제례는 돌아가신 조상신을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만나는 정기적인 의례로 정착되었다. 삶의 단계별로 찾아오는 '위기 crisis' 속에서 그리고 후손과 긴밀한 연속성을 가진 존재로 인식된 조상신과의 정기적인 만남 속에서 의례적 삶을 일상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유교적 생활세계가 구축되고, 강화되어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교의례의 이상적인 실천은 또한 신분집단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문화요소가 되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신분적 정체성을 획득하거나 강화하기도 하였다.

조선 최고의 신분에 위치하였던 왕실가족은 다른 신분집단에 비해 이념형에 최대한 가깝도록 예법에 맞게 예를 실천하는데 가장 적극적이었다. 예를 들면, 세종은 혼례에서 친영의식이 유교적 생활방식을 정착시키는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자, '왕자가 실행하면 아랫사람이 본받게 된다'고 하면서 왕실에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사대부와 서인이 저절로 따르도록 독려하기도 하였다.

왕실가족은 의례가 일상인 사람들이었다. 왕실가족 가운데 왕의 경우,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
- 13) 인조의 장자인 소현세자가 갑자기 죽은 후에 효종은 인조의 둘째아들로서 인조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1659년 효종이 승하하자 인조의 계비인 장렬왕후 조씨(예송당시 자의대비)가 효종을 위하여 어떤 복을 입어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을 일컫는다.
- 14) 기해예송이 일어난 지 15년 후인 1674년(현종 15)에 효종의 비인 인선왕후가 승하하자 장렬왕후 조씨가 며느리 인선왕후를 위해 어떤 복을 입어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을 일컫는다.
- 15) 금장태, 「제4장 조선조 예학과의 예설과 쟁점」, 『유교의 사상과 의례』, 예문서원, 2000, 289쪽.

에 잠이 들 때까지,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유교이념을 몸소 실천하고, 체득한 이상적인 군주가 되어야 했다. 왕은 삶 자체가 의례화된 존재였다. 조선후기 왕과 왕비, 대군, 공주, 왕자, 옹주와 같은 왕자녀, 후궁 등 왕실가족구성원들의 일생의례를 중심으로 한 모든 종류의 의례들은 의례儀軌나 등록騰錄과 같은 기록형태로 남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의례에 대한 광범위하고 세세한 전례절차를 주해하여 적은 의주儀註까지 철저하게 기록으로 남겨졌다.

2) 왕실의 삼년상과 ‘금욕禁慾’적인 일상생활

김동노(2004: 85)는 유교의 예가 가례를 통해 형식적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개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 침투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였다.¹⁶⁾ 실제로 유교의례 가운데 상례의 경우, 부모를 위한 ‘삼년상’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효’를 실천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되었다. 유교식 긴 상례기간 중에는 다양한 제사의식을 포함하여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행위의 규제가 수반되었다. 이러한 상례에 수반되는 행위규제는 의례적이고 규범적인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¹⁷⁾

『경국대전』 「예전」 ‘오복조’에는 아들이 아버지에 대하여 참최삼년을, 아버지의 생존여부에 따라 아들이 어머니에 대하여 제최삼년이나 심상삼년을 지키도록 명시해 두고 있다. 여기서 참최삼년은 “상복 중에서 가장 중한 것으로 아들, 딸, 부인이 아버지에 대해서,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승중한 손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입는다. 참최복은 가장 거친 생포로 만들고 하단을 깎지 않으며, 최, 부판, 적령 등을 부착한다. 초상 후 13개월에 소상, 25개월에 대상, 27개월에 담제를 지내고 복을 벗는다. 3년은 햇수를 말한 것이고, 실상은 2년에 해당한다.” 이와 비교했을 때, 제최삼년은 참최 다음의 상복으로 그 형식은 같으나 조금 나은 포를 쓰고 하단을 기운 것에서 차이가 난다. 제최삼년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 어머니에 대해서 아들이 행하는 것이었다. 심상삼년은 아버지가 살아 있는 경우, 아들이 어머니에 대하여 제최기년과 심상삼년을 행하도록 하였다. 세종은 심상삼년 제도를 확립하면서 상주가 심상 3년 안에 술을 마시거나 고기를 먹거나 아내를 얻는 경우 형벌을 주도록 하였다.¹⁸⁾

16) 김동노, 「유교의 예와 미시적 권력관계」, 『유교의 예와 현대적 해석』, 청계, 2004, 85쪽.

17) 안호용, 「유교 상례와 상중의 개인행위 규제」, 『사회와 역사』 72, 2006, 134쪽.

18) 『세종실록』 세종 13년 11월 5일.

안호용은 『주자가례』의 상례를 중심으로 상중의 개인행위가 규제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¹⁹⁾ 예를 들면, 상주의 거처는 처음에는 시신의 옆으로 정하여졌고, 3일째 대렴을 행한 후에는 ‘상차’로 옮길 수 있었다. 침구에 관한 규제는 좀 더 상세한데, 염습 후 시신 옆에 있을 때는 짚을 깔고 흙덩이를 베던 것이 대렴 후에 상차로 옮긴 후에는 거적과 흙덩이로 바뀌었다. 그리고 졸곡 이후에는 자리를 깔고 나무베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점차 완화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대상이 지나면 침실로 돌아갈 수 있었다. 상중에 있는 상인喪人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부부간의 동침을 포함한) 잠자리뿐만 아니라 옷과 음식에 대한 금욕을 철저히 준행하도록 하였다.

양반의 경우, 대상을 치르면 실질적으로 상이 끝나고 술과 고기를 먹는 것이 가능하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었다.²⁰⁾ 정중수(2005:120)는 “삼년상을 기초로 한 상례는 ‘번문육례繁文縟禮’라는 비난을 들을 만큼 세부적인 면까지 복잡하게 규정하였으므로 까다로워 시행하기가 어려웠으며, 상례가 비인간적이라고 할 만큼 엄격한 금욕생활을 강요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²¹⁾ 이와 같은 삼년상 동안의 엄격한 금욕생활로 인하여 상중에 있는 상주는 일상인이 아닌 ‘喪人’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범주에 포함되었고,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예외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졌다.

숙종의 경우, 부왕인 현종이 1674년 8월 18일 34세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승하하면서 14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효종의 삼년상을 치렀다. 할머니인 효종비 인성왕후 장씨가 같은 해 2월에 승하한지 얼마 안 된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이었다. 인성왕후의 소상 전이었기 때문에 숙종이 현종이 입었던 복을 받아서 ‘수복’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1674년 당시 왕실 상례에서 예를 논하고 상복을 입는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²²⁾

19) 안호용, 「유교 상례와 상중의 개인행위 규제」, 『사회와 역사』72, 2006, 131~167쪽.

20) 김문택, 「상례와 시묘살이」, 한국고문서학회 편, 『조선시대생활사』2, 역사비평사, 2000, 53쪽.

21) 정중수, 「유교식 상례」, 『상장례, 삶과 죽음의 방정식』, 두산동아, 2005, 120쪽.

22) 『숙종실록』 숙종즉위년(1674) 10월 13일. “... “적손(嫡孫)이 승중(承重)하여 수복하는 기한은 고례(古禮)에 뚜렷하게 나타난 곳이 없고, 오직 《의례경전통해(儀禮經典通解)》와 송(宋)나라의 복제령(服制令)에 이것이 있습니다. 선정신(先正臣) 김장생(金長生)은, 조상(祖喪)을 당하여 아직 장사지내지 못해서 또 부상(父喪)을 당한 적손이 추복(追服)하는 예(禮)를 논한 것을 인하여 《의례경전통해》 안의 중요한 말을 뽑아 증빙(證憑)하였는데, 그 말에 ‘적자(嫡子)가 상(喪)을 마치지 못하여 죽고 적손이 승중하였을 때에, 소상 전에 죽었으면 소상 때 수복(受服)하고, 소상 후에 죽었으면 심상(心喪)을 입어 모두 3년을 통산하여 제복(除服)한다.’ 하였습니다. 선정신 이황(李滉)은 어떤 사람의 물음에 답하기를, ‘처음 죽은 후에는 모든 예절을 아버지가 다 행한 것인데, 다만 상을 마치지 못하고 죽었을 뿐이므로, 그 아들은 단지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 마치지 못한 예를 행할 뿐이다. 그 성복(成服)의 예절은 삭망(朔望) 혹은 조전(朝奠)에만 대

12월에 현종을 승릉에 안장한 후 숙종의 일상은 다양한 제사의 연속이었다.²³⁾

숙종은 현종의 우주가 모셔져 있는 효경전(孝敬殿)에서 초하루 삭제와 보름 망제(望祭), 일곱 번에 걸친 우제 등을 몸소 행하였다.²⁴⁾ 그리고 숙종의 음식 또한 소선을 하였다. 삼우제를 지낸 이후에 평상시 음식을 회복하도록 약방에서 청하기도 하였다. 숙종은 이를 계속 물리치다가 모친인 명성왕후의 간청으로 마지못해 평상시 음식을 회복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숙종 자신은 이러한 행위를 “참으로 망극한 일”로 여겼다.²⁵⁾

12월 25일 졸곡을 행한 후²⁶⁾ 얼마 지나지 않아 기우제를 친행하기도 하였다. 원래 상을 당한 지 3년 동안은 다른 제사는 지내지 않는데, 오직 천지와 사직에게 지내는 제사는 예외였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하였다.²⁷⁾ 숙종은 현종을 위한 3년상 중에 외할아버지인 김우명의 상을 당하기도 하였다.²⁸⁾ 국왕이 죽은 경우 왕위계승자를 비롯한 왕실 가족구성원에 가해지는 행위 규제는 가장 강하고, 그 범위 또한 넓었다.

의례적인 측면에서의 행위규제와 함께 상례 중에 지켜야 할 행위 가운데 특히 혼인을 법적으로 금하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형벌을 가하도록 하였다. 조선시대 형률을 적용할 때 활용되었던 대명률에는 열 가지의 가장 큰 범죄[十惡] 가운데 불효죄가 포함되어 있는데, 부모의 상중에 행한 행위가 불효의 기준이 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부모의 상중에 있으면서 시집가거나 장가 들며 연약을 즐기며 거상기간 중에 상복을 벗고 길복을 입으며, 조부모나 부모의 상사를 듣고도

상(代喪)하는 뜻으로 두 빈소(殯所)에 고하고, 이어서 수복(受服)하고 전례(奠禮)를 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설이 바로 오늘의 일과 서로 비슷하나 변복(變服)의 예절은 일이 매우 중대하니, 예조(禮曹)에서 또 대신에게 의논하기를 청하였는데, 대신 등이 모두 “이황이 논한 대로 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의 그대로 따랐다. 이제 졸곡(卒哭) 후인 12월 30일의 남향 대제(臘享大祭) 때에 대복(代服)하기로 정하고, 미리 경사전(敬思殿)과 효경전(孝敬殿)에 고하였다.“

23) 『숙종실록』 숙종즉위년(1674) 12월 13일. “진시(辰詩)에 승릉(崇陵)에서 하현궁(下玄宮)하였다.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으로 나아가 망곡례(望哭禮)를 행하고, 오시(午時)에 보제원(普濟院)으로 출행(出幸)하여 지영례(祗迎禮)를 행하고, 우주(虞主)를 창경궁(昌慶宮) 문정전(文政殿)에 봉안(奉安)하고서 첫 번째 우제(虞祭)를 친행하였다.”

24) 『숙종실록』 숙종즉위년(1674) 12월 15일.

25) 『숙종실록』 숙종즉위년(1674) 12월 15일. “약방(藥房)에서 아뢰기를, “소선(素膳)을 진여한 지가 이미 보름이 되었으니, 지금부터 상선(常膳)을 회복하시기를 청합니다. 날마다 제사를 지내시면 반드시 손상을 더하실 것입니다. 내일 삼우(三虞)는 청컨대 섭행(攝行)토록 명하소서.”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아직 대단한 질병이 없으니 우제(虞祭)에 어찌 참여하지 않겠느냐? 복선(復膳)하는 일은 자교(慈教)가 지극히 간절하시니, 힘써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새삼 더욱 망극(罔極)하다.” 하였다.“

26) 『숙종실록』 숙종즉위년(1674) 12월 25일.

27) 『숙종실록』 숙종 1년(1675) 4월 21일.

28) 『숙종실록』 숙종 1년(1675) 6월 18일.

숨기고 발상하지 아니하며, 생존한 조부모나 부모를 죽은 양으로 거짓 일컫는 일을 말하였다.” 또한 대명률의 ‘거상가취居喪嫁娶’조에는 부모 및 남편의 상중에 있으면서 자신이 스스로 시집 가며 장가든 자는 장 100의 형에 처하도록 하였고, 첩을 얻으면 장 80의 형을 명시해 두었다.

대명률과 함께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과 『속대전』에도 상중에 있는 사람들이 혼인을 삼가야 함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 엄한 벌이 가해졌다. 『속대전』 「예전」 ‘혼가조’에는 몸이 상중에 있고 아들의 기년복이 아직 다하지 아니하였는데, 바로 혼례를 행한 자는 상중에 삼가지 않은 물[不勤居喪律]로써 논죄하며 장 80에 처하였다. 또한 혼인은 일체 가례에 의거하여야 하는데 혼인 전에 납폐를 했어도 양가의 부모상이 있으면 3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장을 장 100에 처하였다. 또한 상인喪人으로서 도성 안에서 말을 탄 자는 장 60에 처하였다.

이와 같이 상중에 혼인은 당연히 금지되었고, 첩을 얻는 것 또한 더불어 금지되었기 때문에 삼년상 기간 안에 여성의 출산 또한 강하게 제약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서 삼년상은 정확하게 13개월째(만 12개월) 소상을, 25개월째(만 24개월) 대상을, 27개월째(만 26개월) 담제를 지냄으로써 탈상, 즉 일상생활로의 온전한 복귀를 의미하였다. 즉 탈상한다면 만 26개월이 된다.

왕실의 경우에도, 삼년상 중에는 가례를 치루지 못하였다. 현종은 효종이 봉림대군 시절 형인 소현세자와 함께 심양에 인질로 끌려가 있었을 때 태어났다. 조선의 역대왕 중에서 유일하게 외국에서 태어난 왕(탄생 당시에는 왕위계승자의 신분이 아니라 대군의 아들이었다)이다. 1651년(효종 2) 8월 11세의 나이로 현종은 왕세자에 책봉되었고, 11월에 청풍 김씨 명문가 출신인 김우명의 딸(당시 10세)과 가례를 치렀다. 인조의 삼년상이 끝난 후에 치러진 가례였다.

왕이 계비를 맞이하는 경우, 30세 이전에 왕비가 왕위계승자를 낳지 못하고 왕보다 일찍 죽은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되었다. 삼년상이라는 원칙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라 배우자에게 적용할 경우, 왕실이 처한 여건에 따라, 특별히 후사를 얻지 못한 젊은 왕의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숙종의 경우, 정비인 인경왕후가 죽은 후 3개월이 못되어 계비를 맞이하였다. 숙종의 정비인 인경왕후가 죽고 나서 1681년 2월 22일에 국장을 마친 후에 바로 3월부터 계비를 간택하였다. 21세의 숙종은 아직 후사를 얻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왕실 어른들인 대왕대비 조씨와 대비 명성왕후뿐만 아니라 송시열을 포함한 대신들도 계비 간택을 서두를 것을 왕에게 요청하였다. 3월 12일부터 초간택, 재간택을 거쳐 3월 26일 삼간택을 마친 후에 당

시 병조판서 민유중의 딸 민씨가 15세의 나이로 5월 13일 친영례를 마치고 숙종의 계비가 되었다. 현종의 경우에도 계비인 효정왕후를 맞이할 때에도 계비간택을 서둘러 진행하였다. 현종의 정비인 효현왕후 김씨는 1843년(현종 9) 8월 16세를 일기로 승하하였다. 당시 왕실의 최고어른이었던 순원왕후 김씨는 현종이 후사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효현왕후의 장례식을 12월 2일 치르고 나서 바로 왕비 간택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1844년(현종 10) 4월 22일부터 계비를 간택하는 절차를 시작하여 10월 21일 가례를 올렸다.

다음은 왕세자의 가례를 준비하는 도중에 부왕이 갑자기 승하한 경우이다. 순조와 순원왕후의 가례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정조는 왕세자의 배우자로 재간택까지 마치고 1800년(정조 24) 갑자기 승하하였다. 아직 삼간택과 가례를 올리지 못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순조는 가례를 치르지 못한 상태에서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순조의 가례는 순조가 정조에 대한 삼년상을 마치고 정조의 신주가 종묘에 부묘되고 나서야 비로소 1802년(순조 2) 8월 다시 추진될 수 있다. 당시 13세였던 순조는 3년 전에 재간택후보자였던 김조순의 딸인 안동 김씨와 10월 16일 가례를 치렀다.

다음은 숙종의 60년 생애 속 왕실가족의 죽음과 탄생을 연보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1661년(현종 2) 8월 15일 탄생
- 1669년(현종 10) 8월 25일 입학례를 행함
- 1670년(현종 11) 3월 9일 관례를 행함
- 1671년(현종 12) 3월 22일 왕세자빈(인경왕후)을 맞이함(11세)
- 1673년(현종 14) 4월 27일 누이 명혜공주 출함, 8월 2일 누이 명선공주 출함
- 1674년(현종 15) 2월 23일 할머니 효종비 인선왕후 장씨 승하
- 1674년(현종 15) 8월 18일 아버지 현종 승하
- 1674년(숙종 즉위년) 8월 23일 즉위(14세)
- 1676년(숙종 2) 4월 9일 효종비 인선왕후의 신주를 종묘에 부묘됨
10월 15일 현종의 신주를 종묘에 부묘됨
- 1679년(숙종 5) 10월 23일 숙종의 1녀가 태어남(일찍 죽음)
- 1680년(숙종 5) 10월 인경왕후가 숙종의 2녀를 유산함²⁹⁾

29) 숙종의 1녀는 1679년(숙종 5) 10월 23일 태어났으나 이튿날 죽었다. 그리고 그 다음 해(1680년) 숙종 비

- 1680년(숙종 6) 10월 26일 첫 번째 아내 인경왕후 승하
1681년(숙종 7) 3월 26일 두 번째 아내 여흥 민씨(인현왕후)가 간택됨
1683년(숙종 9) 10월 18일 두질에 걸림
1683년(숙종 9) 12월 5일 어머니 현종비 명성왕후 김씨 승하
1684년(숙종 10) 4월 5일 어머니 명성왕후를 승릉에 장사지냄
1684년(숙종 10) 12월 5일 숙종이 명성왕후의 연제를 지냄
1685년(숙종 11) 12월 5일 숙종이 명성왕후의 대상을 지냄
1686년(숙종 12) 2월 3일 숙종이 명성왕후의 담제를 지냄
1686년(숙종 12) 2월 10일 숙종이 명성왕후의 신주를 종묘에 부묘함
1686년(숙종 12) 4월 26일 간택후궁 숙의 김씨가 입궐함
1688년(숙종 14) 8월 26일 할머니 인조계비 자의대비 조씨가 승하함
1688년(숙종 14) 10월 28일 승은후궁 장씨(희빈 장씨)가 서1남(경종)을 출산함
1689년(숙종 15) 8월 26일 숙종이 자의대비의 연제를 드림.
1690년(숙종 16) 10월 6일 숙종이 자의대비의 담제를 드림.
1690년(숙종 16) 10월 10일 숙종이 자의대비의 신주를 종묘에 부묘함.
1690년(숙종 16) 승은후궁 장씨가 숙종의 서2남(아명 성수)을 출산함(일찍 죽음)
1693년(숙종 19) 승은후궁 최씨(숙빈 최씨)가 서3남(영수)을 출산함(일찍 죽음)
1694년(숙종 20) 9월 13일 승은후궁 최씨(숙빈 최씨)가 서4남(영조)을 출산함.
1699년(숙종 25) 승은후궁 명빈박씨가 서6남(연령군)을 출산함.
1701년(숙종 27) 8월 14일 두 번째 부인 인현왕후가 승하함.
1702년(숙종 28) 9월 3일 세 번째 부인 인원왕후 김씨를 왕비로 간택함
1718년(숙종 44) 2월 7일 며느리 왕세자빈 심씨가 죽음
1718년(숙종 44) 윤8월 1일 새며느리 왕세자빈 어씨를 간택함
1720년(숙종 46) 6월 8일 숙종이 경덕궁 융복전에서 60세로 승하함.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초에 걸쳐 조선의 왕으로 살았던 숙종은 60년 생애기간 동안 두 명의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두 명의 부인의 상례를 치렀다. 숙종은 적처인 세 명의 왕비와 3명의 후

광산 김씨는 2녀를 임신하였으나 유산하였고, 10월 26일 경덕궁 회상전에서 20세로 승하하였다.

궁으로부터 모두 6남 2녀의 자녀를 두었다. 아버지의 삼년상을 마치고 정비 인경왕후로부터 2명의 딸을 얻었으나 곧 죽었고, 어머니의 삼년상을 마치자마자 간택후궁을 들였으나 아들을 두지 못하였다. 승은후궁으로부터 2명의 아들을 얻었다. 할머니의 삼년상을 마친 후에 4명의 아들을 또 얻을 수 있었다. 39세의 나이에 막내아들을 얻은 이후 숙종은 자녀를 갖지 않았다. 숙종은 모두 8명의 자녀를 얻었으나 그 가운데 3명의 아들만이 생존하였다. 그 중에서 서4남 영조만이 83세로 장수하였고, 서1남 경종은 숙종이 승하하고 왕위를 계승했지만 4년 만에 후사를 두지 못하고 37세로 일찍 죽었고, 서6남 또한 숙종 생존 시에 가례는 치렀으나 자녀를 두지 못하고 21세를 일기로 죽었다.

숙종의 생애과정을 통해 살펴본 결과, 숙종은 3년상 기간 동안의 금욕적인 생활을 몸소 실천한 왕이었다. 유교적 생활세계 속에서 의례적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숙종은 60년 생애 동안 8명의 자녀를 두었다. 하지만 그 가운데 5명은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찍 죽었다. 결과적으로 숙종은 60평생 동안 3명의 아들만을 남긴 왕실에서 추구했던 다산의 이상을 실현시키지 못한 왕이었다.

3) 왕실의 제례와 일상 속 '재계齋戒'기간의 증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유교식 상례는 3년상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친 매우 엄중하고 복잡한 의례이다. 상례는 사자에 대한 생자의 슬픔과 이별의 과정을 의례화한 것이다. 특히 부모의 상을 얼마나 예에 맞게 잘 치렀는가는 유교적 도덕규범인 '효'를 자식이 잘 구현했는가를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문화적 기제였다. 이와 함께 매년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부모를 포함한 조상의 기일忌日에 드리는 제사 또한 생전의 효도만큼이나 중요한 조상에 대한 예로 인식되었다. 즉 유교의례의 중심은 제사의례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국가제사는 대사, 중사, 소사, 속제로 나뉘었다. 모든 제사의례는 거의 동일한 구조와 절차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왕실 여성의 출산력 저하와 관련하여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내기 위한 준비단계에서 희생과 제물, 향축을 갖추는 일 외에도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심신을 정화하고 제물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신에게 드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성을 갖추는 것이며, 조상신은 제사를 통해 후손의 정성을 받아들인다. 재계는 제사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³⁰⁾ 제향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은 신을 맞이하기 위해 경건한 마음을 가져

야 하는데, 이를 위한 준비가 '재계'이다. 조선시대 국가제사는 등급화되어 제사의례를 행하기 전에 지켜야 하는 재계의 기간과 형식 또한 달랐다.

『국조오례의서례』 「재계」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사에 속하는 사직제와 종묘제를 왕이 몸소 행할 때[親行]에는 7일 동안의 재계기간이 설정되었다. 산제 4일은 별전에서 행하고, 치재 3일 가운데 2일은 정전에서, 1일은 재궁에서 행하였다. 산제는 일상의 업무를 행하면서 형살과 관련된 일을 다루지 않는 것이고, 치재는 일상의 업무 자체를 중지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산제기간동안에는 조문하거나 질병문안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형살문서를 올리지 않았다. 치재기간 동안에는 오직 제향과 관련된 일만 아뢰어 오로지 제사에 전념하도록 하였다. 왕이 중사에 속하는 선농제와 문선왕제를 친행할 경우에는, 5일 동안 재계하였다. 산제 3일을 별전에서 행하고, 치재 2일 가운데 1일은 정전에서, 1일은 재궁에서 행하였다. 왕이 문소전, 의묘, 산릉과 같은 속제에서 친행할 경우에는 3일 동안 재계하였다. 산제 2일을 별전에서 행하고, 치재 1일은 정전에서 행하였다.³¹⁾

1684년(숙종 10) 8월 10일 숙종이 8월 24일 승릉 산릉에서 친제를 행할 때 왕과 신하의 재계에 관하여 예조 전향사에서 올린 문서가 남아있다. 숙종은 산제를 별전에서 2일, 치재를 정침에서 1일 동안 하도록 하였으며, 제향에 참가하는 신하들 또한 동일하게 산제는 정침에서 2일 동안하고, 치재는 전향사에서 1일 동안 하도록 하였다.³²⁾

한형주(2010:139~140)의 조선 초기 왕릉제사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태조~성종의 102년간 종묘의 국왕친제가 41회에 불과한 반면, 왕릉에서는 170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원묘인 문소전에서는 85년간 99회의 친제가 진행되었다. 종묘대제의 경우 대략 2~3년에 한 번씩 왕이 친행을 한 반면, 왕릉에서의 친제는 매년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분석이다.³³⁾

조선 왕실의 기신제는 기본적으로 현 국왕의 4대조까지이지만, 그 이상의 대수에서도 불천위의 지위를 가진 경우 기신제를 드렸다.

조선후기에는 왕위계승상의 부모와 낳아주신 부모가 달라질 경우가 많았는데, 이로 인하여 왕이 행할 기제사의 대상이 증가하고, 재계기간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 국왕이 수행해야 할 금욕기간의 증가는 왕실 여성의 출산력의 저하에 영향을 미쳤다.

30) 금장태, “제3장 유교의례의 구조와 성격”, 『유교의 사상과 의례』, 예문서원, 2000, 212~213쪽.

31) 『국조오례의서례』 권지1, 「길례」 「재계」.

32)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 『제례등록3-전향사편』, 2012, 157쪽 “산릉제 재계”조.

33) 한형주, “조선초기 왕릉제사의 정비와 운영”, 『역사민속학』 33, 2010, 115~143쪽.

5. 소결

이 발표문은 조선후기 왕실의 일상세계 속에 구현된 의례적 삶 가운데 상례와 제례를 중심으로 형성된 유교적 생활세계의 영향으로 왕실 여성의 출산력이 감소하게 되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조선의 제19대 왕으로 살았던 숙종의 생애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선 후기의 왕들은 상례와 제례를 실천함에 있어 ‘지극한 정성(至誠)’을 몸소 다함으로써 ‘효’를 다하고자 하였다. 상례의 경우, 육체적, 정신적, 성적 ‘금욕’을 통하여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3년상’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이었다. 제례의 경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재계齋戒’기간을 엄수하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효의 실천은 일상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특히 ‘재계’는 살아있는 자신이 속한 ‘속속의 세계’에서 자신을 분리시켜 이미 죽은 조상신이 속한 ‘성聖의 세계’와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례절차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었다. 조선후기 왕이 실천했던 유교의례의 증가현상은 일상생활 속 금욕기간과 ‘재계’기간의 증가를 가져왔고, 왕실 여성의 출산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선시대 여성들의 출산은 독자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혼상제례와 같은 생활세계 전반을 지배했던 의례적 삶과 긴밀한 상관성을 가지며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성의 출산행위에 대한 총체적 시각은 궁극적으로 21세기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조선후기 왕실 여성의 저출산과 유교적 생활세계’에 대한 토론문

이왕무 박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연구실)

이 발표는 인류학적 관점에서 조선왕실의 출산을 조명한 연구입니다. 그동안 조선후기에 왕실의 출산율이 극히 저조한 상황은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해왔는데, 이 발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한 논고입니다. 많은 시사점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논의가 더 발전된다면 향후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됩니다. 발표문에 대한 토론은 장마다 주요한 부분을 요약하여 질의 혹은 설명하는 형식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1. 조선후기 왕실의 저출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발표자께서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왕실 여성의 출산력은 조선왕조 500년 기간 동안 최하수준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로서 “조선후기 유교이데올로기를 통한 유교적 생활세계의 형성과 유교의례의 적극적인 실천이 왕실 여성의 저출산을 가져온 주요 원인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17세기 왕실의 사례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죽음의 의례(상례와 제례)가 삶의 의례(혼인과 출산)를 압도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왕실의 출산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저하되는 기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지적은 이 발표의 핵심 키워드이면서 레토릭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의례적 삶이 출산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실 출산에 이 문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선 사회 전체로 시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왕실에 이런 적용이 가능하다면, 유교 예제를 삶과 일상에서 실천한 양반 사회도 동일하게 출산 감소로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역사학계와 경제사학 쪽에서는 조선후기로 갈수록 양반을 포함한 전체 인구가 급격히 팽창한다는 데 의견을 같

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의 주요 원인을 의례로 보는 시각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무엇보다 왕실 출산이 인조 대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종친(宗親)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908년 『선원계보기략』을 보더라도 선조 대까지 238명이던 종친이 인조 대 36명, 숙종대 7명, 정조대 13명, 고종대 2명으로 감소세가 심각한 지경입니다. 정조대는 행행시 시위할 종친이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이 상황은 숙종대 이후 거듭되는 정쟁(政爭)으로 종친들이 역모에 몰려 사사를 당하거나 유배되어 몰락한 결과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왕실의 저출산의 요인을 더 다양한 요소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국왕 생활의 공·사 구분 문제

발표자께서는 “왕실가족은 다른 신분집단에 비해 이념형에 최대한 가깝도록 예법에 맞게 예를 실천하는데 가장 적극적이었다. 예를 들면, 세종은 혼례에서 친영의식이 유교적 생활방식을 정착시키는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자, ‘왕자가 실행하면 아랫사람이 본받게 된다’고 하면서 왕실에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사대부와 서인이 저절로 따르도록 독려하기도 하였다.(중략)왕실가족 가운데 왕의 경우,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이 들 때까지,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유교이념을 몸소 실천하고, 체득한 이상적인 군주가 되어야 했다. 왕은 삶 자체가 의례화된 존재였다.”고 하셨습니다.

연대기자료에 등장하는 조선시대 국왕들의 외형적인 모습이 의례를 실천하는 존재로 비추어 진다는 점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왕의 생활은 공·사로 나누어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대기자료에서 나타나는 국왕의 삶은 공적인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국왕이 공식적인 업무나 의례 거행 이외의 시간에 궁궐 안에서 영위하던 생활은 유교이념을 실천하는 모습과 다른 ‘인간적인’ 양상입니다. 또 친영의 경우에도 중종 대에 시행되었다가 선조 이후에 정착됩니다. 따라서 국왕이 공식석상에서 모범이 되는 모습이 비공식적인 공간에서도 그대로 준수되었는지는 별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조선후기 예송이나 의례 논쟁에서 늘 문제가 된 사안이 왕실과 사가의 예법 적용 범위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왕실의 유교 의례 일상화는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조선후기 왕실 여성의 저출산 문제에서 숙종 대가 차지하는 비중

선생님께서서는 “숙종의 생애과정을 통해 살펴본 결과, 숙종은 3년상 기간 동안의 금욕적인 생활을 몸소 실천한 왕이었다. 유교적 생활세계 속에서 의례적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숙종은 60년 생애 동안 8명의 자녀를 두었다. 하지만 그 가운데 5명은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찍 죽었다. 결과적으로 숙종은 60평생 동안 3명의 아들만을 남긴 왕실에서 추구했던 다산의 이상을 실현시키지 못한 왕이었다.”고 하며, 결론에서도 “특히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조선의 제19대 왕으로 살았던 숙종의 생애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왕실 여성의 저출산과 관련하여 숙종 대를 사례로 삼은 이유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숙종 이외에도 헌종과 철종, 고종도 자녀를 많이 낳았으나 대부분 사산 내지는 유아기 때 죽었으며, 왕실의 상장례도 숙종 이상으로 많이 거행하였습니다. 숙종 대를 논지의 대상 사례로 삼은 이유를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 기타 질문

왕실의 혼인과 출산의 실제에서 “명종대 이후부터 왕비는 선조 계비 인목왕후, 인조 계비 장렬왕후, 영조 계비 정순왕후 3명의 계비를 제외하고 모두 효령대군의 외손계 출신이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비들은 모두 외손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원록』이나 연대기 자료를 보면 2대 이후부터 성씨가 다른 혼인 가문이 여러 번 바뀌고 섞이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며, 이 경우 외손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 표 자 한 금 윤



한금윤 박사 (연세대 학부대학)
Dr. Keumyoun Han (College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학력〉

연세대학교(신촌)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박사졸업 (문학박사)
연세대학교(신촌)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석사졸업 (문학석사)
연세대학교(신촌)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학사)

〈경력〉

현재 의사소통교육전문가, 인문학 저술가로 활동
연세대학교, 한세대학교 강사
前) Visiting Scholar,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 English,
Comparative Literature, and Linguistics Department.
숙명여자대학교 교양교육원 의사소통센터 교수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광운대학교,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등등 강사

〈주요논저〉

- 저서
『문화 읽기&쓰기 : 현대사회의 성과 문화적 재현』(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학술도서),
『A+서술시험 답안쓰기』,

『모던의 욕망, 일상의 비애』,
『한국 현대소설 형성과 현대성 담론』 등등

■ 논문

「글쓰기의 윤리적 탐색과 서사적 효과-공지영의 『도가니』를 중심으로-」,
「시간의 서사화와 의사소통- 『엄마를 부탁해』를 중심으로」,
「<여성적 글쓰기>의 담론과 수사적 특성 연구」,
「21세기 리더십 - 공존과 상생의 리더십」 외

88만원 세대의 사랑과 결혼 문화 분석

I. 서론

1. 문제제기

한 사회의 청년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젊음과 패기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를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에게는 패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기성세대들은 지적한다. 청년들은 자신의 고단한 삶에 힘들어 하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아파하고 무기력하다. 어느덧 ‘패기’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젊은 세대도 있을 듯싶다. ‘패기(霸氣)’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해내려는 굳센 기상이나 정신을 의미한다. 야망과 야심과 비슷하다. 청년의 상징이 패기가 된 것은 현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자신이 뜻하는 바를 성취하고자 하는 열정을 보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청년들은 ‘삼포세대’¹⁾라고 불리고, 스스로도 ‘육무세대’²⁾라고 말한다. 연애, 결혼, 출산의 세 가지를 포기하는 청년층 세대를 일컫는 삼포(三抛)라는 한자어를 사전에서 찾을 때 관용어로 찾지 못한다. 세 가지(三)를 던져버린다(抛)의 결합인 ‘삼포’는 기존 문화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이전 시대에도 모두가 연애하고 결혼하고 출산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이를 포기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결혼과 출산은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였다. 변화되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신조어가 생성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삼포’가 청년층 세대의 한 의식과 문화를 지칭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암울한 단면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연애, 결혼, 출산을 원하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다.³⁾ 이처럼 결

-
- 1) ‘삼포세대’는 2011년 경향신문의 기획시리즈인 <복지국가를 말한다>에서 처음 사용된 신조어로, 네이버 <시사상식사전>에도 등록되었다.
 - 2) ‘6무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의 포기에다 일자리, 집, 희망도 없는 세대라는 뜻이다. (김대호·윤범기, 『결혼불능세대』, 필로소픽, 2012.4, 9쪽.)
 - 3) 연세대학교 교양 선택 과목인 <성과 문화적 재현> 수업은 학기 중 수강생들이 100여명이 넘는다. 그 중 결혼을 포기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학생들은 1~2명뿐이었고, 결혼을 반드시 하겠다는 학생들도 90%가 넘었다. 2014-1학기 한세대학교 교양 과목인 수업에서도 80명 수강 학생들 중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학생들은 1~2명뿐이었다.

혼을 기피하는 경향은 결혼을 하고지는 경우보다 높지 않다. 실제로 '삼포세대'에 대한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인터넷 답글을 보면, 같은 세대의 반응도 연애와 결혼을 포기한다는 것에 대해 '슬프다', '안타깝다'는 답글이 대체로 많은 편이다. 물론 자신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는 답글도 있지만, 자신의 미래가 될 것 같아 불안하다는 답글도 많다. 그렇다면 언론에서 보도되는 '삼포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언젠가는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년 세대들에게 공포감을 주거나 무기력한 체념 문화를 조장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마리나 애드세이드는 “대부분의 남녀는 일생의 어느 시점에서 결국 결혼을 한다”⁴⁾고 주장한다. 오늘날 이전 시대에 비해 결혼율과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분명한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한 세대가 포기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삼포세대'라는 극단적인 암울한 어휘가 표출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의 한 단면을 정확하게 포착하게 해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청년들의 새로운 관계 맺기의 한 단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인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청년 세대들이 처한 암울한 현실이 계속 보도되고 논의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시점에서, 청년의 중요한 시기를 대학에서 보내는 대학생들이 연애, 결혼, 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삼포세대'의 한 시기를 지나고, 청년 세대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대학생들의 연애, 결혼, 출산에 대한 의식과 문화에 대해 교육적인 차원에서든 학술적인 차원에서든 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언론 보도에서 '삼포세대'의 문제로 지적하는 상황이 심각하다면 대학교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제안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 보도의 내용과 논리가 무엇이며, 현재 우리 사회가 대응하는 방식을 실제 '삼포세대'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언론과 사회에서 논의되는 '삼포세대'의 문제점이 누락되는 지점이 있다면 그것을 조명하여 '삼포세대'의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2. 논의 대상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년층의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삼포세대'를 언론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II장에서 분석할 것이다. 2011년 6월 29일 경향신문의 <복지국가를 말한다>의 특집이후 '삼포세대'는 우리사회 청년층의 어려운 현실의 대명사로 떠올랐다. 가족을

4) 마리나 애드세이드, 『섹스와 연애의 경제학』, 김정희 옮김, 생각의 힘, 2013.12, 302쪽.

다루는 드라마에서도 ‘삼포세대’를 표상하는 청년이 등장하면서 한 가족 구성원의 필수 구성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렇다면, 언론에서 보도하는 ‘삼포세대’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 방안을 무엇으로 제시하는지 고찰할 것이다.

대중매체에서 보여주는 이미지와 다르게 주변에 있는 이십 대 초반이나 중반에 있는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그렇다면 언론이나 출판에서 청년층을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는 세대로 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결혼을 회피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수치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실제로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심층적인 고찰과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청년들의 연애나 결혼에 대한 의식이 무엇이며, 왜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는가를 알아 볼 것이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이 자신의 삶과 경험을 통해서인지, 아니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인가를 살펴 볼 것이다.

따라서 III장에서는 청년 세대의 구성원인 대학생들의 연애, 결혼에 대한 의식과 연애 문화를 집중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대학생들의 ‘자신의 연애관과 결혼관’에 대한 ‘자기서사’ 쓰기를 시행하였다. 대학생들이 직접 서술한 ‘자기서사’를 통해 그들의 연애관과 결혼관이 무엇이며, 의식을 갖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직접 들어 볼 것이다.

‘자기서사’ 쓰기는 대학생들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생각을 심층적인 내면을 분석하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기서사(Journal Writing)’ 쓰기는 자신이 경험한 세계를 객관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글쓰기 방식이며, 자신의 사적인 문제를 다른 사람(Audience)과 정서적으로 공유하는 데에 효과적인 방식이다. ‘자기서사’를 통해 개인적인 경험을 고백하기도 하고,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감정, 의미 심지어 윤리의식을 표출할 수 있다. 일기장에 묻어두지 않고 글쓰기 방식으로 공개하는 ‘자기서사’는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면서 치유하게 되는 효과⁵⁾를 갖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경험을 풀어내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사적인 문제처럼 보이는 것을 공론화하는데 효과적이다.

이러한 ‘자기서사’를 통해 연구자는 당사자들의 내면 풍경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췌 보도되는 언론의 논리에서 놓치거나 누락되는 문제 지점들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들의

5) Rise B. Axelrod, Charles R. Cooper. *The ST. MARTIN'S GUIDIE to Writing*. 9Edi. Bedford. USA : Boston. 2010. p18.

6) 김형경, 『좋은 이별』, 사람풍경, 2012.5, 242쪽.

‘자기서사’의 분석을 통하여 청년 세대의 연애관과 결혼관이 무엇인가이며, 형성된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IV장에서는 ‘삼포세대’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다양한 원인들을 재조명해 볼 것이며, 이러한 원인들에 의해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무엇인가를 포착할 것이다. 최근에는 스스로 삼포세대라고 규정짓고 자신의 입장을 그에 맞게 자세히 보여주는 책들이 출판⁷⁾되고 있다. 대학교 밖에 있는 청년 세대의 자기 경험을 함께 분석하여 다양한 청년 세대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표현하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이와 같이 ‘삼포세대’의 문제들이 심층적으로 분석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모색될 것이다. ‘삼포세대’의 문제는 세대의 특이성이나 개인의 경제적인 문제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속내에는 우리 사회의 병리적인 환경에 따른 감정적이고 가치적인 문제가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삼포세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걱정과 안타까움, 질책이나 위로에 머물지 않고, 현대 사회와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점검할 기회를 가질 것을 제안해 본다.

II. 언론 보도의 논리와 문제점

2011년 6월 20일자 <경향신문>에는 ‘복지국가를 말한다’의 일환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공개 토론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청년층에게 돈 없어도 공부하고, 일자리를 제공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막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토론의 핵심이었다. 이 보도이후 가장 주목받는 것은 토론회에 참석한 한 기자가 “교육 취업문제에 짓눌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가 나타났다.”는 발언이었다. ‘삼포세대’의 명명은 청년 세대의 암울한 미래에 의해, 우리 사회가 가까운 미래에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한 기자의 문제 진단의 용어가 그 이후 한 포털사이트 시사용어사전에 등록될 정도로 ‘삼포세대’는 오늘날 청년 세대를 규정하는 고유명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⁸⁾ 현재까지 언론에서 삼포세대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는 논리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논리에 의해서는 청년 세대들이 겪는 연애, 결혼, 출산을 왜 포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이 다양하게 분석되지 못하

7) 그 대표적인 도서는 다음과 같다. 엄기호, 『이것이 왜 청년이 아닌란 말인가』, (푸른숲, 2010.10.), 김대호·윤범기, 『결혼불능세대』, 필로소픽(2012.4.), 한윤형,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 (어크로스, 2013.4.)

8) 한 포털사이트 <뉴스 라이브러리 검색>에서 ‘삼포세대’를 검색하면 2014년 8월 26일까지 1,883건이 검색될 정도로, 지속적으로 삼포세대가 사회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고 있다. 그 이유는 보도 논리 속에 갇혀 ‘삼포세대’의 문제의 다양한 현상들을 조명하지 못한 보도의 한계 때문이거나,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문제를 문제로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 때문일 수 있다.

1. 경제적인 문제를 전면화하는 논리

2011년 6월 20일 공개토론회의 주제는 ‘청년 세대를 위해 복지국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였다. 이전 세대보다 시간제 일자리가 많아진 오늘날 청년 세대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이 많아 노동을 해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급급하다. 이러한 청년들의 어두운 현실이 이 토론회에서 공론화되었다.

지금 청년 세대는 두 번째로 높은 대학 등록금, 교육 양극화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 무한경쟁에 내몰리면서도 취업 전망이 불투명한 ‘절망의 시대’에 살고 있다.⁹⁾

이러한 사회에 처한 청년들은 자신의 한 몸도 건사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도달하다보니 연애, 결혼을 포기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 토론회에서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청년 세대들에게 ‘절망의 시대’가 된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와 복지 문제로 보았다. 이러한 논리는 청년 세대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그 해결 방법으로 거시적으로는 고용을 통한 경제 성장이라는 경제 구조의 개편과 미시적으로는 국가의 대학 등록금 지원이 제안되었다.

한 언론사가 개최한 공개토론회의 결과는 청년 세대가 처한 위기를 언어로 명명함으로써, 개인의 사적인 문제처럼 간주될 수 있는 연애, 결혼, 출산의 문제를 한 세대의 문제로 공론화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있는 보도였다. 그러나 ‘삼포세대’라고 명명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청년 세대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원인을 경제적인 문제로 환원시켰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 어린 나이에 비해 생각도 깊었다. 하지만 고작 2주일 만에 그녀와의 만남을 그만뒀다. 돈. 돈이 문제였다. 밥이라도 한 끼 먹으려면 기본적으로 만 원은 넘게 들었다.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 8천 원이 우스웠다. 둘이서 영화라도 한 편 보면 2만 원이다. 그녀를 만나는 2주

9) ‘돈 없어도 공부하고 청년층에 일자리 줘 빈곤 대물림 막아야’, <경향신문>, 2011.6.20.

동안 내가 쓴 금액은 18만 원이 넘었다. 실질적으로 만났던 날이 5일 밖에 안 됐던 것을 감안하면 정말 많은 돈을 썼다. 문제는 나만 그렇게 쓴 것이 아니었다. 그녀도 나만큼, 아니 어쩌면 나보다 더 많은 지출을 했다. 그렇다. 사랑은, 연애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돈이 있어야 했다.¹⁰⁾

위의 사례를 보면 연애를 시작하는 데에는 호감이라는 감정이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연애를 유지하고 지속하는 데에는 경제적인 상황이 더 중요함을 보여준다. 연애의 과정에서 소비되는 비용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경제적 이유에 의해 연애를 포기하는 것은 남성에게만 나타나지 않는다. 같은 기사에서 24세의 직장 여성의 사례를 보면, 자신의 수입을 엄마의 치료비로 쓰고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애는 사치라고 단정짓고 포기한다.

이처럼 언론 보도의 시선은 청년 세대들의 데이트 비용 부담에 초점이 가 있으니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진단한다. 이러한 논리는 청년 세대가 세 가지 포기하는 이유의 한 단면을 전면화하는 것으로 문제의 다양한 요인을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사실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 연애는 서로에 대한 호감보다는 상품이 연애를 지속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동력이 되고 있다. 상품을 소비하면서 연애를 하는 청년 세대의 과도한 소비문화를 자본주의 사회의 데이트 문화의 당연함으로 무의식적으로 수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삼포세대’가 겪는 어려움은 과도한 소비 자본주의 사회의 고비용을 지불하려고 하는데서 발생하기도 한다. 연애를 할 때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데이트 문화, 결혼을 할 때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집의 수준, 고비용이 드는 양육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문화로 청년 세대가 연애, 결혼, 출산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일지 모른다. 고비용 사회의 소비 중심의 연애, 결혼, 출산 문화를 편승하고자 하는 청년 세대들의 욕망을 지적하지 않고서는, 고용의 양적 확대나 등록금 정부 지원만으로 ‘삼포세대’의 연애, 결혼, 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삼포세대’는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의 쾌락을 경험하면서 자란 세대여서 그런지 궁핍한 생활을 공포로 크게 느끼기 때문에, 인륜지대사라는 대의명분을 따르며 결혼과 출산을 했던 기성세대의 길을 가지 않는다. 물질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우리 사회의 소비문화에 대한 수정 없이 ‘삼포세대’의 경제적 지원 정책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지 결혼과 출산을 활성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삼포세

10) 백운호, '그래, 연애도 돈으로 하는 거다-삼포세대의 우울한 고백', <오마이뉴스>, 2014.8.11.

대'의 문제를 경제적 불안정과 어려움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결정으로 보는 것은 물질지상주의 사회와 개인주의 문화에 놓여 있는 청년 세대의 문화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시선의 한계이다.

2. 개인주의 사회의 취향에 대한 타자적인 시선

‘삼포 세대’는 현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국 청년 세대의 고유한 특징이 아니다. 저성장 경제 구조에 미리 진입한 선진 국가에서는 개인주의적인 청년 세대의 일반화된 특징이다. 선진국가의 청년 세대의 연애, 결혼, 출산 포기는 경제적 빈부의 차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자리하고 있다.

일본에는 ‘초식남녀’라 하여 연애와 결혼을 꺼리는 젊은 사람을 통칭하는 용어가 있다. ‘초식화’는 일본 젊은이들이 야성을 잃어 연애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¹¹⁾ 이러한 현상은 일본의 일부 남성들은 결혼으로 인해 자신이 쓸 돈이 줄까봐 이성과의 관계를 꺼린다고 한다. 여성의 경우에는 일과 일상의 불균형을 초래할까봐 출산을 기피한다고 한다. 특히 초식남녀가 급증하는 이유를 일본에서 발달한 가상기술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일본에는 ‘러브플러스’라는 비디오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을 통해서 가상공간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피곤함을 겪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가상공간에서의 연애 문화는 일본만의 특이함에 그치지 않고 미래 사회의 한 데이트 문화로 확산될 여지가 있다. 청년 세대들에게 연애, 결혼, 출산의 기피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적인 갈등을 어려워하고 불편해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런데 청년세대의 새로운 데이트 문화 방식을 보도하는 언론의 시선은 새로운 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특이함에 머물고 있다.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이한 문화로 설명하고 있지, 디지털 기기에 편안함과 친밀감을 갖게 되는 사람들의 내면의 심층을 분석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새로운 현상을 타자화하여 대상의 외부에서만 관찰하기 때문이다.

에바 일루즈는 현대의 결혼은 고도로 개인화되고 차별화된 자아가 다른 자아와 함께하는 것으로,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역할의 과시가 아니라 두 사람의 감정을 세밀하게 보살피고 조정하는 감정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¹²⁾ 게임과 청소년 시기를 보낸 디지

11) 김지훈, ‘日 초식남녀 경제 발전 리스크’, <머니투데이>, 2014.6.23.

12) 에바 일루즈, 『사랑은 왜 아픈가』, 김희상 옮김, 돌베개, 2013.6, 81쪽.

털 세대들은 자신의 감정에 손상을 입히는 사람들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게임 세계에 흥미를 갖고 삶의 즐거움을 느끼는 세대들은 나와 다른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면서 겪게 되는 감정적 피곤함과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한다. 대면 관계가 부족해지는 디지털 사회의 어두운 한 단면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데이트 방식을 새로운 세대의 취향으로만 접근하는 태도는 타자와의 관계 맺기 능력을 상실하는 현대인의 문제를 은폐할 위험성이 있다.

미국의 경우도 독신자 가구의 비중이 1970년대 9%에서 2007년 26%로 증가했다¹³⁾고 한다. 미국에서는 연애를 하면 결혼 약속을 해야 하는 것을 공포로 느끼는 '약속공포증'의 남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연애와 결혼을 할 때 자신의 고유한 자아나 생활이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한다. 이처럼 감정적인 피로감을 회피하고 자기 혼자만의 세계를 즐기려는 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개인주의가 발달된 선진국에서는 흔한 풍경이다.

선진국에 들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는 현재 2010년대 '삼포세대'라는 용어로 조명되지만, 이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BS 다큐프라임 <남과 여 제3부 결혼 안하는 남자. 결혼 못하는 여자>¹⁴⁾는 '삼포세대'를 다룬 다큐이다. 이 프로그램 전반부에서는 '삼포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결혼 못하는 남자의 상황과 직장 생활에 방해가 되어 결혼을 안 하는 여자가 소개된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아직까지 한국 사회의 '삼포세대'의 특징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남자는 결혼을 못하고, 여자는 결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의 제목이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그런데 프로그램 후반에 가면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삼포세대'의 사례가 나온다. 24세 한 여성은 미술관 큐레이터로 일하는 것이 즐거워 이 일에 집중하기 위해 대학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했다. 28세 한 남성은 연애를 했지만 서로 맞춰가는 것이 어렵고 피곤해 연애를 포기하고, 산악자전거를 타며 자신이 좋아하는 소품들을 사면서, 자신과 맞는 여자와 친구로 지내면서 생활한다. 두 사람의 공동적인 반응은 연애할 때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편하여 생활의 만족도도 높게 느낀다. 초라한 커플보다 화려한 싱글을 선호하는 것처럼, 피곤한 관계보다 '자유로운 혼자'를 선호하는 문화가 '삼포세대'의 또 하나의 단면이다.

13) 에바 일루즈, 위의 책, 135쪽.

14) EBS 다큐프라임 <남과 여 제3부 결혼 안하는 남자. 결혼 못하는 여자>, 2011.3.2.

오늘날 ‘삼포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애, 결혼, 출산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 맺기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문화 창출이다. 개인주의가 만연하는 현대 사회에서 상품 소비나 디지털 기계에 종속되지 않고 타자와 관계를 맺고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할지도 모른다. 청년 세대들의 ‘나 홀로 즐기기’의 삶의 태도가 형성되게 된 우리 사회의 가치와 문화를 먼저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3. 국가 위기 논리의 맹점

경제적인 이유에서든, 심리적인 이유에서든, 새로운 세대의 자아의식에 의해서든 ‘삼포세대’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이 확산될 경우 가장 공포스럽게 느끼는 사람은 누구일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이전 세대들은 결혼하지 않은 자식을 둘 경우 부모들의 걱정이 컸지만, 현대 부모들은 다른 반응을 보인다. 어렵고 불편하게 살 바에야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삼포세대’가 확산되기를 두려워하는 주체는 바로 국가와 정부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초저출산과 향후 인구동향' 보고서를 살펴보면 합계출산율이 현재 수준인 1.2명(2013년 1.19명)에 계속 머물 경우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50년 4632만 명을 거쳐 2100년 2222만 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추정됐다.

1.2명의 출산율로는 신생아가 사망자를 1대 1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총인구 대비 노인(65세 이상)인구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 2010년 11% 정도였던 노인 비율은 2100년에는 48.2%에 이를 전망이다.

이삼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출산율이 유지되면 적정수준에 비해 인구는 절반에 그치고 생산가능인구도 1300만 명 이상 부족해 노동력 부족, 내수시장 위축, 사회보장 부담 급증 등이 나타나고 결국 재정수지 악화, 저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¹⁵⁾

이러한 인구 변동의 원인을 ‘삼포세대’에 두는 분석이 대세를 이룬다. 젊은 세대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가 위기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판단은 한 국가의 안정은 경제적인 성장에 있으며, 경제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기본 요소인

15) 노승길, ‘초저출산 국가 한국, 해법은 없나?’, <이주경제>, 2014.8.25.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어떠한 자기 방어 태도를 갖게 되었는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이면서도 정서적인 동물이며, 오늘날과 같이 개인주의가 강한 사회에서는 자신의 존재나 자아 정체감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삼포세대’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그들의 내면을 드러내는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목소리로 들어보고, 더불어 삼포세대가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국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사회가 마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Ⅲ. 대학생들의 자기서사를 통해 본 연애관과 결혼관

1. ‘자기서사’ 쓰기 대상자와 질문 구성 방식

언론에 보도되는 ‘삼포세대’는 대체로 20~30세대인 청년층이다. 연애를 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연애를 하지 않고, 결혼할 시기인데도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연애, 결혼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삼포세대’의 연령대에 있는 청년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포기 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대학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아직 사회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의 어려움을 덜 겪어서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에는 대학생의 경우도 많다. 필자가 경험한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와 학점에 지쳐 있지만 아직까지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는 수보다 포기하지 않는 수가 더 높았다. 언론보도와 필자의 경험의 간극이 왜 생기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청춘의 꽃인 연애와 인생의 큰 대사인 결혼에 대해서 청년 세대들이 열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이유를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2014-여름계절학기 <성과문화적재현> 수강생 40명에게 ‘자신의 연애관과 결혼관’에 대한 ‘자기서사’ 쓰기를 시행하였다. 총 40명 중 남학생이 25명, 여학생이 15명이고, 1~2학년은 13명, 3~4학년이 27명이다. 전공은 다양하였다. 이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성’과 관련된 연애, 사랑, 결혼에 대해 자신의 생각들을 표현하고 다른 학우들의 생각을 듣는데 관심이 높으며 개방적인 편이었다. 자기서사의 내용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기를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자신의 연애관과 결혼관에 대해 반성적으로 사유하는가를 알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어떠한 자기 방어 태도를 갖게 되었는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이면서도 정서적인 동물이며, 오늘날과 같이 개인주의가 강한 사회에서는 자신의 존재나 자아 정체감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삼포세대’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그들의 내면을 드러내는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목소리로 들어보고, 더불어 삼포세대가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국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사회가 마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Ⅲ. 대학생들의 자기서사를 통해 본 연애관과 결혼관

1. ‘자기서사’ 쓰기 대상자와 질문 구성 방식

언론에 보도되는 ‘삼포세대’는 대체로 20~30세대인 청년층이다. 연애를 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연애를 하지 않고, 결혼할 시기인데도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연애, 결혼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삼포세대’의 연령대에 있는 청년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포기 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대학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아직 사회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의 어려움을 덜 겪어서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에는 대학생의 경우도 많다. 필자가 경험한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와 학점에 지쳐 있지만 아직까지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는 수보다 포기하지 않는 수가 더 높았다. 언론보도와 필자의 경험의 간극이 왜 생기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청춘의 꽃인 연애와 인생의 큰 대사인 결혼에 대해서 청년 세대들이 열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이유를 좀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2014-여름계절학기 <성과문화적재현> 수강생 40명에게 ‘자신의 연애관과 결혼관’에 대한 ‘자기서사’ 쓰기를 시행하였다. 총 40명 중 남학생이 25명, 여학생이 15명이고, 1~2학년은 13명, 3~4학년이 27명이다. 전공은 다양하였다. 이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성’과 관련된 연애, 사랑, 결혼에 대해 자신의 생각들을 표현하고 다른 학우들의 생각을 듣는데 관심이 높으며 개방적인 편이었다. 자기서사의 내용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기를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자신의 연애관과 결혼관에 대해 반성적으로 사유하는가를 알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 가. 연애와 결혼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가?
- 나. 연애,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보라.
- 다. 연애와 결혼을 한다면,
 - a. 그 이유는 무엇인가?
 - b.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가?
- 라. 연애와 결혼의 상관성은?
 - a.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지길 원한다면, 결혼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 b. 연애와 결혼을 분리해서 생각할 경우, 각각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 마. 연애를 해 본 경험이 있는가?
 - a. 연애 경험이 자아 성장에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 b. 연애 경험이 자신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위의 질문들은 무엇을 써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제시하였고, 모두 응답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사항들에만 관련된 내용을 진술하면 된다고 하였다. 질문의 순서도 현상 - 이유 혹은 원인 분석의 단계를 밟아,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형성되어 도출되는가를 인지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참고로 하여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연상되는 것을 편안하게 쓰되,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여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였다.

2. '자기서사'의 분석 결과

대학생들의 '자기분석' 결과, 대체로 남과 여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남성과 여성에 따른 젠더 차이가 연애관이나 결혼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이 일반적이거나, 최근 2~3년에 대학 사회에서 남녀의 젠더 차이보다 개인 차이가 더 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젠더보다 연애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연애와 결혼관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자신의 연애 경험의 유무와 회수, 상처 여부에 따라 연애관과 결혼관이 결정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질문항의 순서에 따라 학생들의 '자기서사'를 분석한 결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가. 연애, 결혼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연애, 결혼을	할 것이다	하지 않겠다	
		연애와 결혼 포기	결혼만 포기
총 40명	28	2	10

대학생들의 ‘자기서사’ 분석 결과 총 40명 중 28명은 결혼을 할 것이며, 12명은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보다 2배 이상이 많았다. 이전 세대보다 현재 청년 세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는 수가 많아졌다고 해도 청년세대들을 ‘삼포세대’라고 규정하는 것은 오해를 유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연애, 결혼을 하지 않는 a. 이유를 말하고, b. 그 원인을 분석해 보라.

연애, 결혼을 하지 않는	a. 이유	경제 (돈)	외모	자기 존중
	총 12명	4	2	6
	b. 원인 분석	가족 문제	또래 문화	연애의 상처
	총 12명	3	4	5

가에서 연애,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 중 자신을 위해서라고 진술한 사람이 5명이 된다. ‘자기존중’을 원인 분석과 연결하여 해석해 보면 고학력의 어머니가 전업 주부가 되면서 자신의 취미를 살리지 못하고 평범해 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진 사례가 있었고, 또래들의 불행한 연애를 통해 연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본인의 연애 경험으로 감정의 상처와 시간 낭비, 경제적 손실 등의 이유로 연애,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a. 이유에서 경제적인 문제는 자기 존중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보인다. 데이트 비용 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연애를 하지 않겠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연애를 시간 낭비로 보는 경우였다. 대학생의 위치에서 사회적 성공과 자아실현을 위해서 연애와 결혼을 걸림돌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 질문의 응답에 주목할 점은 자기 존중을 위해 연애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이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래에서 외모에 대한 비난을 겪은 경험의 사례자가 있었다. 연애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가 폄하되는 경험으로 상처를 받은 학생들은 연애와 결혼에 대해 부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자기존중’에 대한 이유가 ‘경제’보다 더 높은 것은 자아에 상처

를 입은 경우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게 되는 더 강한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다. 연애와 결혼을 한다면, a. 그 이유는 무엇인가, b.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가?

연애, 결혼을 한다면	a. 이유	사랑		인륜지대사
	총 28명	17		11
	b. 영향	대중매체	또래 문화, 연애 경험	가족
	총 28명	10	8	10

연애와 결혼을 원하는 이유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11명이었다. 전체 대상자의 4분의 1정도인데, 여전히 전통적인 결혼의 가치와 의미를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랑’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보면, 젊은 사람들은 여전히 낭만적인 사랑과 결혼이라는 근대적인 결혼관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b. 연애와 결혼관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대체로 대중매체, 또래 문화, 가족이었다. 이는 한국 사회의 대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삶, 대중매체의 이미지, 또래들과의 대화가 중요한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중매체의 영향은 주로 책,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한 경우가 많았다. 그 내용은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게 하는데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또래 문화나 연애 경험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례가 많았다. 낭만적인 사랑에 상처를 받거나 주는 연애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의 영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좋은 부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에서 성장한 경우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한 사례의 경우는 연애 기간이 없이 결혼하여 서로 갈등을 자주 표출한 부모의 결혼 생활을 보고, 오랜 연애가 성공적인 결혼의 조건임을 깨닫고, 좋은 결혼의 상을 생각하는 성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사례를 통해서 부정적인 환경에 처해 있어도 이를 반성적으로 성찰할 경우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기피하지 않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연애와 결혼을 하겠다는 대학생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기 때문에 연애와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연애와 결혼이 여전히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거나 낭만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이다. 이러한 연애관과 결혼관은 물질적인 측면보다 정서적인 요인이 더 중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체로 언론 보도

에서는 ‘삼포세대’가 포기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단정짓는 경우가 강한데, 실제 다양한 대학생들에게는 정서적인 측면을 중시함을 알 수 있다. 연애, 결혼이 정서적으로 만족스럽다면 기피하는 현상은 줄어들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라. 연애와 결혼의 상관성은?

-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지길 원한다면, 결혼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 연애와 결혼을 분리해서 생각할 경우, 각각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연애와 결혼의 상관성	유		무
총 28명	17		11
a. 상관성이 있다 응답자가 중시하는 것	사랑, 배려, 소통		경제
총 17명	16		1
b. 연애, 결혼 따로 응답자가 연애에서 중시하는 것	성격	외모	경제
총 11명	3	4	4
c. 연애, 결혼 따로 응답자가 결혼에서 중시하는 것	소통	외모	경제
총 11명	2	1	8

연애와 결혼을 하겠다는 응답자들 가운데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지길 희망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 그 이유는 다에서 분석되듯이 낭만적인 사랑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a. 연애가 결혼으로 연결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것이 경제보다 사랑, 배려,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서 알 수 있다. 특히 한 남학생(4학년)은 ‘이효리와 김상순’ 커플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소울메이트와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연애와 결혼을 따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b와 c에서 알 수 있듯이, 외모와 경제를 중시한다. 특히 연애인 경우가 외모를, 결혼인 경우는 경제를 선호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외모지상주의와 소비 사회의 영향 때문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연애를 할 때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과 하지만, 결혼을 할 때에는 경제적인 조건을 더 중시한다는 것이다.

마. 연애를 해 본 경험이 있는가?

- a. 연애 경험이 자아 성장에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 b. 연애 경험이 자신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연애 경험	유		무	
총 40명	31		9	
a. 연애 경험이 자아에 미친 영향	긍정적		부정적	
총 31명	3		28	
b. 자신의 부정적 연애 경험이 연애관, 결혼관에 미친 영향	연애와 결혼 포기	결혼만 포기	연애 미루기	긍정적인 연애, 결혼관 재형성
총 28명	2	10	3	11

이 질문 항은 ‘삼포세대’들이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가 연애를 하지 못해서인지 상처받은 연애 경험 때문인지를 알기 위해서이다.

대학가는 연애전성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연애가 성행하고 있다. 연애를 대학 생활의 스펙으로 간주될 정도 대학생들에게 연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처럼 여겨진다. 모 여학교에서는 “여대생이여 연애를 하라! 건강한 연애를!”¹⁹⁾이라는 포스터를 건물 곳곳에 붙여, 연애를 권하는 대학 문화를 조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대학 문화에 대해 “커플무죄, 솔로유죄?”²⁰⁾라는 말이 유행이 될 정도이다. 이러한 문화에서 연애를 포기한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위의 분석 결과를 보면, 연애를 권하는 문화에 있는 대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40명 중 9명이 연애 경험이 없다. 연애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연애를 포기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이 상대방에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렇다면 연애를 한 경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면, a에서 알 수 있듯이 긍정적인 경우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많다. 대화, 배려, 스किन십, 약속, 데이트 방식, 선물, 시간, 애착, 배신 등등 갈등을 겪기도 하고, 자신을 폄하하거나 냉대하는 상대방에 의해 상처를 입어,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이러한 입장은 남녀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학년 차이도 거의 없었다.

그런데 b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부정적인 연애 경험이 있다고 해서 모두 연애와 결혼을 포기

19) 숙명여자대학교 성평등상담소 집단상담 시즌2 광고 포스터 문구, 2014.5.

20) 최지은, ‘연애 권하는 사회’, <연세춘추>, 제1679호, 2013.3.19.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애 경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28명 중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겠다는 사람은 2명이고, 결혼은 포기하지만 연애는 하겠다는 사람이 10명, 연애를 미루지만 연애를 포기한 것은 아니고 결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3명, 연애나 결혼을 포기하지 않고 더 성숙한 관계로 좋은 연애와 결혼을 하겠다고 한 사람이 11명이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연애 경험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연애와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는 점이다. 연애 경험을 통해 상처를 받더라도 자신의 미숙함을 깨닫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려, 상호 존중, 소통 등과 같은 관계 윤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더 성숙하고 좋은 연애와 결혼을 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러나 연애,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연애 과정에서 내면의 상처를 받게 되어 자기 방어로써 연애 혹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언론 보도에서와 다르게, 청년 세대들이 아직까지 연애와 결혼을 선호하는 비율이 포기하는 비율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구나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감정적인 내면의 문제가 더 큼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는 이러한 내면의 감정 지점을 놓치고 있다. ‘삼포세대’들이 자발적으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청년 세대들이 겪는 감정처리의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사회적인 차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IV. ‘삼포 세대’ 문제의 재조명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내면의 감정과 상처에 예민하다. 기성세대가 돈이 없어도, 사랑하지 않아도 일정한 나이가 되면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살았다는 경험으로 젊은 세대의 연애, 결혼, 출산을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비난할 수 없다. 기성세대가 살아왔던 시대적 상황과 현재 청년 세대들이 살아가는 시대적 환경이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흔히 가족이나 국가와 같은 공동체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근대 성장 사회와, 개인의 자유와 취향이 중시 되는 현대 소비 사회는 인간의 마음과 감정이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표면적으로는 세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²¹⁾, 실질적으로는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인간의 정서 차이이다. 같은 시공간을 살아가도

21)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논객인 한윤형은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어크로스, 2013.4.)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와 자신들의 세대가 다름을 주장한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자신들이 학력이 낮아서 충분히 잘 살지

사물이나 환경에 대한 반응이 서로 다르다. 청년 세대들의 '삼포'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내면 풍경과 연애 문화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왜 그런 연애를 하게 되었는지 사회적 상황과 연관해서 파악해야 한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청년 세대들의 연애, 결혼, 출산 포기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왜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를 심층적이면서도 다각적으로 조명되어 문제의 본질이 드러날 것이다. 청년 세대가 연애, 결혼, 출산을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삼포세대'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모색되어 문제 해결의 현실성을 높일 수 있다.

1. 매력자본 사회의 상처받은 자아

'사랑'하면 떠오르는 한국의 대표적인 고전소설의 『춘향전』은 '낭만적인 사랑'의 정점을 보여준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 많은 청춘 시절을 보내는 둘은 첫 눈에 반하여 신분적인 차이와 제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행복한 결합을 이룬다. 인간이라면 이러한 낭만적인 사랑을 꿈꾼다. 『춘향전』의 두 사람처럼 사춘기를 지나 이성에 눈뜨면 우연한 곳에서 한 눈에 반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경험을 자신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성장한다. 부모도 그렇게 만나 사랑해서 결혼하고 나를 낳았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또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일정한 시기에 이와 같은 사랑을 할 것이라고 문학에서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넘치도록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낭만적인 사랑이 자신에게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느끼기 시작한다. 학창 시절에 외모에 의해 친구로부터 왕따를 경험한 사람들은 연애를 해야 할 시기에도 자존감이 부족하여 연애를 두려워하거나 포기하기도 한다. 대학생들의 '자기서사'의 한 사례를 보자.

나는 살면서 아직까지 여자 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다. 대학에 와서 외모도 성격도 자신이 없었던 나는 대학 황금기인 1,2학년도 술과 운동, 게임으로 가볍게 보냈다. 군대를 갔다 온 이후에도 이성 앞에서의 특유의 소심함으로 솔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외모에 대한 자기 비하가 생긴 이유는 초등학교 시절에 나의 외모가 뚱뚱하고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친구들이 왕따를 시켰던 경험 때문으로 자리잡은 듯하다. (4학년 남학생의 사례)

못했다고 믿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녀들의 학력에 엄청나게 신경을 쓴다. 아버지는 자신보다 훨씬 좋은 대학에 들어간 아들이 자신보다 훨씬 잘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20대 중반부터 그의 월급명세서를 볼 때마다 나는 평생 이렇게 벌 일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28쪽)

이와 같은 사례는 여학생에게도 찾아 볼 수 있었다. 대학교 2학년 학생은 아예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 시절에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키도 크고 뚱뚱한 편이었는데 남학생들이 놀려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 그 이후로 살도 빼고 관리를 해 외모가 나아지니 남학생들의 접근이 있었다는 것이다. 외모에 따라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남자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였다. 연애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 대부분도 자신의 외모가 매력적이지 않아서 못한다고 생각하였고,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외모 비하 발언으로 상처를 입고 헤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외모가 중요시되는 현대 사회에서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나 외모지상주의에 따른 부작용을 개인 탓으로만 돌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학자 캐서린 하킴은 현대 사회가 한 개인의 매력이 성공하는 데에 중요한 자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²²⁾ 신체적 외모와 스타일인 매력은 돈인 경제적인 자본, 교육과 배경인 문화 자본보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자본이 되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외모를 중시하는 문화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남녀 모두 상대방의 매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사람은 연애와 결혼에도 성공적이라고 진단한다.

어쩌면 『춘향전』에서도 ‘낭만적인 사랑’이 가능하게 된 동기가 이몽룡과 성춘향의 빼어난 외모와, 타인을 경계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드러내는 성격 때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외모와 성격은 오늘날 현대적인 개념으로는 ‘매력’적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춘향전』의 시대는 자유연애 시대가 아니다보니, 외모보다 집안과 신분이 결혼을 하는 데에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깊신도 제 짝’이 있듯이 대부분 결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매력’이 한 개인의 중요한 자본이 된 사회에서는 자본이 없는 사람이 결혼하기 어려운 맥락과 같이 ‘매력’이 없는 사람은 연애도 쉽지 않은 사회가 된 것이다.

현대 사회는 대중매체에 의해 상품화된 매력적인 이미지가 도처에 있고, 청소년들은 대중 매체가 제공하는 매력적인 이미지로 사랑과 연애관을 형성하면서 자신들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한다. 외모로 인해 타인에 의해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청년이 되어서도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연애를 포기하게 된다. 이러한 외모 지상주의 사회에서는 ‘외모가 경쟁력이다.’를 당연시하는 분위기 속에 과도하게 외모와 스타일 중심의 연애관을

22) 캐서린 하킴, 『매력자본』, 이현주 옮김, 민음사, 2013.2, 31쪽.

형성하게 되었다. 성형공화국으로 세계에 소문이 난 한국 사회의 외모지상주의가 청년 세대들이 연애를 꿈꾸지만 연애에 자신이 없어서 연애를 포기하게 만드는 문화를 조장하고 있지 않나 반성하게 된다.

자유로운 연애가 가능한 시대이지만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외모 때문에 상처받은 청년 세대들의 내면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경제적 지원으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다는 판단은 시대착오적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인간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다는 전근대적인 결혼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회의 분위기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상처받기 쉬운 존재이다.²³⁾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외모에 대한 상처를 받은 자는 타인과 함께하기를 주저하며 자기 세계에 안주한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을 이해하기 않고서는 연애를 포기하는 세대의 내면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매력이 자본이 되는 사회를 문제시 하지 않는 분위기가 사회에 팽배한다면 연애를 포기하는 세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2. 소비문화에서 계산하는 청년들

자아를 실현하고 자아를 존중하려고 연애, 결혼을 포기하는 ‘삼포세대’는 더 이상 연민이나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최대한 자신의 스타일로 살아가고자 하는 젊은 세대의 새로운 생활 풍속도이기도 하다. 오늘날 청년 세대들은 전통적인 공동체에서 중시하는 인간의 과제를 수행하기보다는 자신의 일상적인 취미나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뻬에르 부르디외는 ‘아비투스(habitus)’²⁴⁾라 개념을 사용하여 이러한 성향을 보이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설명하였다. 아비투스는 개인들의 일상적인 생활이나 문화 소비에서 잘 드러난다. 무엇을 먹고 누구와 만나 어떠한 문화를 소비하고 관계를 맺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각 개인의 취향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현대 사회의 개인들은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지낸다. 현대 사회에서 연애는 더욱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자발적으로 행해진다. 계층을 초월하여 사랑하는 연애는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일지 모른다. 부르디외의 ‘아비투스’의 개념에 빗대어 보

23) 에바 일루즈, 『사랑은 왜 아픈가』, 35쪽.

24) 아비투스는 일정 방식의 행동과 인지, 감지, 판단의 성향 체계로서 개인의 역사 속에서 개인들에 의해서 내면화되고 육화되며 일상적 실천들을 구조화하는 매커니즘이다. (뻬에르 부르디외, 『구별짓기 :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上』, 최종철 옮김, 새물결, 1995.10, 11쪽.) ‘아비투스’는 마르크스의 계급 의식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소비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들의 성향을 잘 보여준다.

면, ‘삼포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기피하면서 자신의 취향에 따라 소비 사회의 문화를 향유 하려는 측면이 있다.

문화 취향과 스타일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들의 연애와 결혼 문화도 소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적인 연애와 결혼 문화에 문제가 있음을²⁵⁾ 놓쳐서는 안 된다. 연애를 하는 데에서도 자신의 스타일과 문화 성향을 중시하다보니 계층적 구별짓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 사람의 취향은 어렸을 때부터 문화와 소비에 노출되면서 형성되는 경우가 강하다. 취향이 강한 세대들은 연애의 시작에서도 상대의 스타일을 중시하고 연애의 과정에서도 데이트 스타일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보다 과도한 소비를 하게 되는 경향이 강하다. 만남의 기간에 따라, 횟수에 따라 기념일과 이벤트를 많이 하는 젊은 세대의 연애 문화는 이를 보여준다. 상품이 연애에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었고 자본주의 데이트 상품을 향유하는 것이 연애의 즐거움이 된 것이다. 그러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나는 연애를 좋아한다. 그러나 데이트 비용으로 여자 친구와 다투고 헤어지는 경험을 여러 번 하면서 연애에 대한 생각과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첫 번째 연애를 할 때 여자친구가 아주 마음에 들고 연하라서 차를 마시고 영화를 보고 패밀리레스토랑에 가더라도 데이트 비용을 내가 전부 냈다. 생일이나 기념일 때마다 나는 20~30만 원짜리 선물을 주는데 여자친구는 밥값만 지불했다. 돈이 없을 때는 데이트를 안 했다. 어느 날 여자친구가 야구 경기를 보러가고 싶다고 해서 그러자고 했는데 내가 비용을 못 냈더니 짜증을 많이 낸 후 집으로 가 버려 그 이후로 헤어졌다. 두 번째, 세 번째 연애도 데이트 비용 때문에 헤어지게 되면서, 남녀평등을 외치는 시기에 여자들은 데이트 비용을 남자들이 지불하는 걸 당연시하는지 나도 짜증이 났다. 난 진정한 남녀평등을 바란다. 연애도 결혼도 경제적인 부담을 평등하게 하고 싶다. 난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결혼을 하더라도 남자에게 경제적인 의존을 하는 사람과는 하지 않겠다. 난 연애를 좋아한다. 이제 능력 있는 연상의 여자와 연애를 하고 싶다. (4학년 남학생)

데이트 비용 문제로 서로 좋아하는 감정마저도 변질되는 청년 세대의 연애 문화는 실제로 심각하다. 연애를 하지 않거나 연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헤어지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데이트 비용이다. 그래서 현명한 연인들은 ‘데이트통장’을 만들어서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청년 세대의 연애 문화가 과도하게 상품화

25) 한금윤, 『현대사회의 성과 문화적 재현』, 소통, 2009.11, 119쪽.

되었다는 점이다. 만나서 차 마시고, 영화 보고, 식사하는 것이 정형화된 연애 문화이다. 이러한 데이트 문화는 소비 사회의 여가 방식이고, 청년 세대는 소비 사회의 여가 생활의 하나로 데이트 문화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에바 일루즈는 현대 사회의 낭만적 사랑이 상품의 낭만화와 로맨스의 상품화라는 두 가지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게 됨에 따라, 자본주의의 사회적 분화와 문화적 모순이 드러나는 집합적 장²⁶⁾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소비 사회의 상품화된 연애는 문제를 낳고 있다. 소비의 속성에서 비롯되듯 상품화된 연애는 상품에 대한 만족도가 지속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임계점에 빨리 도달하게 된다. 그리하여 연애의 지속하는 기간이 짧아 '인스턴트식 연애 문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애 문화로 인해 헤어지는 것에 감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 산뜻하게 이별하는 '쿨한 태도'를 선호한다. 한편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연애를 사치로 받아들이면서 연애를 포기하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고 미룬다.

이처럼 소비 사회의 취향을 중시하는 연애는 많이 하거나 못하거나 이원화되고 있다. 또한 호감과 사랑이라는 감정 위에 데이트 과정에서 주고받는 계산적인 경제 의식이 우선시 된다. 소비 자본주의가 제공하는 낭만화된 상품을 향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청년 세대에 많아짐에 따라, 연애와 결혼에서도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따지게 되는 경우가 강해지고 있다. 경제적인 이해득실을 따지는 계산적인 연애와 결혼 의식을 어느 누구도 타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²⁷⁾한 것도 이러한 청년 세대의 연애와 결혼 문화를 조성하는데 일조한다고 볼 수 있다.

30대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IMF 외환위기 이후 개인들의 생존 경쟁이 특정한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의 문제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여성은 '피해볼 일은 절대 안 하겠다'는 의식으로 무장하고 있고, 남성은 기득권을 빼앗기고 있다는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여성들이 결혼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손해 보지 않으려는 자세의 한 표현이다.²⁸⁾

위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 '삼포세대'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

26) 에바 일루즈, 『낭만적 유토피아 소비하기』, 박형신 · 권오현 옮김, 이학사, 2014.4, 18쪽.

27) 우리 문화 작품을 보면 근대 사회에서는 상품이나 돈으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려는 세대들에게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시선이 강하였다. 물질에 대한 욕망이 강할수록 결국에는 타락하거나 욕망에 좌절하여 비극으로 끝난다는 이야기가 식민지 시대의 소설의 주를 이루었다.(한금윤, 『모던의 욕망 일상의 비애』, 프로네시스, 2006.11.) 그런데 오늘날에는 속물화된 관계를 현명한 것처럼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달라진 정서에 '삼포세대'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28) 황민수, 『연애 · 결혼 ·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 상원, 2011.9, 73쪽.

적인 현상이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미국 사회의 연애와 결혼 문화를 분석한 마리나 애드세이드는 사회가 풍요로워질수록 사람들의 결혼 연령이 높아지게 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고용이 점차 불안정해짐에 따라 남성들은 실직할 경우 가계를 대신 책임질 수 있는 아내를 찾는데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여성들도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남편을 더 선호”²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혼자 사는데 별 어려움 없는 현대 소비 사회에서는 “남자들 사이에 현재 ‘결혼’이라는 단어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³⁰⁾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이처럼 결혼은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지지해주는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전통적인 결혼의 신화가 소비 사회의 청년 세대에게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듯하다. 소비 사회의 청년들을 생활의 편리함과 즐거움을 제공해 주는 소비 상품을 더 선호한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보다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소비하는 삶을 더 좋아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소비 사회에 길들여진 현대인은 자본주의의 상품이 소비의 감정을 증폭시키며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다. 연애와 결혼의 낭만화도 소비 상품에 의해 형성된다. 가상 기술을 통해 낭만화된 상품의 이미지에 지배를 받는 연애와 결혼이 허구적인 것임을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외면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입는 옷, 머리스타일, 문화 향유 방식을 사랑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환상에, 자기희생이나 상대방을 위한 배려라는 전통적인 결혼 의식에 공감하지 못한다.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낮고, 과반은 선진국보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 참여 수준이 떨어진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의식 약화의 가장 큰 요인은 물질만능주의(35.2%)가 지적됐다. 이어 개인주의(24.3%), 지나친 강요(20.6%), 혈연·지연·학연(11.1%), 진솔한 대화 등 대면관계 부족(5.7%), 세대 간 갈등(3.1%) 순이었다.³¹⁾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결혼의 덕목과 당위성에 공감하고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전통적인 결혼 윤리에 두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에바 일루즈의 통찰에서 드러나듯, 현대인은 자기통제방식을 포기하거나 자아를 희생하라는 요구도 하지 않고, 오로지 어느 쪽이 이득인가 하는 계산에만 골몰³²⁾한다. 소비 사회에서 자신이 손해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우선시하는 계산적인

29) 마리나 애드세이드, 앞의 책, 203쪽.

30) 에바 일루즈, 『사랑은 왜 아픈가』, 134쪽.

31) 현대경제 연구 인식조사팀, ‘한국사회 공동체 의식수준 낮다. 68%’, <헤럴드경제>, 2014.7.30.

32) 에바 일루즈, 『사랑의 사회학』, 382쪽.

사람들에게는 갈등과 어려움이 존재하는 연애, 결혼, 출산이 그리 매력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피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삼포세대'의 문제를 경제적인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계산적인 인간관계를 현명한 자기 통제로 인정하는 사회의 분위기를 문제 삼아야 할 것이다.

3. 승자독식 사회에서 불안한 청년의 방어기제

세계는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 자본주의와 취향의 소비문화로 인해 승자가 독식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IMF 외환위기 이후 '승자독식사회'로 변하고 있다.³³⁾ 개인들은 '승자독식사회'에서 패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우리 사회에 대한 표현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이 많은 것³⁴⁾도 이러한 불안과 공포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나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공포와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인 신자유주의의 승자독식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지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승자가 되지 않더라도 패자로 떨어지지 않을 방법을 개인이나 국가나 모색하는 경향이 강하다. 언론은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삼포세대'가 겪는 문제를 출산을 저하에 무게 중심을 두고 문제를 표출하는 게 아닌가 싶다. 즉, 도래할 우리 사회의 경제 위기의 주원인이 마치 출산을 저하인 것처럼 논리를 펼치고 있다.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쟁 사회에서 생존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월등히 잘해야 한다. 고재학³⁵⁾은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에 만들어진 한국식 경쟁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악의의 경쟁'이다."이라고 지적한다. 이나미는 지금 우리 사회는 10대부터 노인까지 모두 내가 아프다고 아우성인 듯하다³⁶⁾고 지적한다. 이러한 과도한 심적 부담과 공포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신분석과 심리 치료가 성행한다.³⁷⁾ 심리적인 치유는 승자독식 사회가 일으킨 불안과 공포를 제거하지 못한다.³⁸⁾ '경쟁에서의 낙오는 곧 죽음이다'라는 공포감을 강요하는 과도한 경

33) 로버트 프랭크 · 필립 쿡, 『승자독식사회』, 권영경 · 김양미 옮김, <옮김이의 말>, 웅진지식하우스, 2008.3, 5쪽.

34) '불안 사회', '위험 사회', '1대 99의 사회', '피로 사회', '갈등 사회', '절벽 사회'로 표현된다. (고재학, 『절벽사회』, 21세기북스, 2013.9, 7쪽.

35) 김태형, 『불안중독사회』, 위즈덤하우스, 2010.11, 22쪽.

36) 이나미, 『한국사회와 그 적들』, 추수밭, 2013.3, 5쪽.

37) 에바 일루즈, 『감정자본주의』, 김정아 옮김, 돌베개, 2010.3, 111쪽.

제 위주의 경쟁 사회³⁹⁾가 더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존재 의미를 탈맥락화하고⁴⁰⁾ 사회의 장을 개인 간의 경쟁의 자유로운 장인 것처럼 만들었다. 국가는 마치 이러한 사회에 개인들이 경쟁에 낙오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의무인 것처럼 권력을 행사한다. 개인들은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문화자본, 매력자본을 상품화하여야 한다. 어느 시대보다 요즘 청년 세대는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다. 그리하여 ‘인정투쟁’⁴¹⁾의 형식을 띠는 한국 사회에서 청년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성공할 때까지 미루거나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포기한다.

생존을 위한 개인의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다른 하나는 노동의 유연화, 다시 말해 비정규직화이다. 88만원 세대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은 대부분 유효기간이 1년, 2년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겠는가?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사랑과 가족 같은 친밀한 관계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노동 시장을 따라서 어느 곳에도 안주하지 못하고 유랑민처럼 흘러 다니는 삶은 낭만적으로 묘사되는 유목적인 생활이 아니라 이산가족으로 흩어져 사는 피난민의 생활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⁴²⁾

이렇듯 불안한 삶을 살지 않으려고 청년세대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비정규직인 노동의 불안정성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그러나 노명우가 지적하듯, 현대 사회는 자신의 능력을 키우며 자신을 관리하여 경쟁 시장에 자신을 상품화하여 진입한다하더라도 성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인지 청년 세대의 대표적인 논객인 한윤형은 “일자리나 수입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새로운 공간에서 안도감을 얻는 이들이 그 모습 그대로 삶을 지속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더 이상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루저는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다.”⁴³⁾며 세상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취한다.

울리히 벡은 불확실한 삶에 처하게 되면 사람은 사랑을 탐닉한다⁴⁴⁾고 하였다. 그러나 경쟁 사

38) 스티브 아안, 『심리학에 속지마라』, 손희주 옮김, 부키, 2014.2, 131쪽.

39) 김태형, 위의 책, 23쪽.

40) 노명우, 『세상물정의 사회학』, 사계절, 2013.12, 221쪽.

41) 이 용어는 자신의 존재와 의미를 타자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현대인의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 현대인은 인정 욕구를 위해 타자와 대응하는 삶의 방식을 취한다. 이에 대해 악셀 호네프트는 『인정투쟁』(사월의 책, 2011.8)에서 오늘날 사회적 갈등은 인정투쟁에 의해서 유발되고 확산된다고 보았다.

42) 황민수, 앞의 책, 43쪽.

43) 한윤형, 앞의 책, 160쪽.

회에서는 사랑은 연민을 자아내는 문화적 힘을 잃었기 때문⁴⁵⁾에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성공을 해야 한다. 과도한 경쟁 사회에서 자신이 패자가 될 것 같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는 사람은 패자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승자가 아니기에, 사랑을 갈망하고 싶다는 내밀한 희망을 애써 숨기고 영원한 사랑 같은 게 어디 있느냐고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는지도 모른다. 에바 일루즈가 지적하듯, 이게 현대 사회의 아이러니다.

주디스 버틀러는 불확실한 삶에서는 사회가 자신을 어떻게 호명하는가에 집착한다고 하였다. 불확실한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들은 상처받기 쉬운 존재에 처하기 때문이다.⁴⁶⁾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감정을 최대한 조절하여 사회에서 승인하는 감정을 표현한다. 이러한 감정조절이 자기 관리의 일환으로 간주되는 사회에서는 자기의 내면에서 느껴지는 감정 자체에 무감각해지는 탈감정 상태에 놓이게 된다.⁴⁷⁾ '삼포세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은 사랑에 대한 거부이기보다는 사랑을 원하지만 사랑할 수 없으니 사랑이라는 감정에 무감각해지려는 자기방어일 수 있다.

Ⅲ장에서 낭만적인 사랑을 원하고 연애와 결혼을 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이 여전히 더 많은 것을 볼 때,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은폐하지 않고,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극복하여 성숙해지는 관계로 이행하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 한다. 서용순⁴⁸⁾은 오늘날 '삼포세대'의 문제는 사랑과 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철학적 성찰이 부족한 데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삼포세대'의 문제는 일정한 비용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승자독식사회로 인한 과도한 경쟁 사회에 지친 청년 세대의 반어적인 표현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삼포세대를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이나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인문학적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적 성찰은 이제 너무나도 식상하여 관심이 시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람보다 돈을 중시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우리 사회는 위험에 노출되었고 사람들은 병들어 가고 있다. 따라서 청년들이 자신의 환경과 미래에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경제 환경을

44) 울리히 벡·엘리자베트 벡-게른샤임,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강수영 외 옮김, 새물결, 1999.7, 8쪽.

45) 에바 일루즈, 『사랑의 사회학』, 381쪽.

46) 주디스 버틀러, 『불확실한 삶』, 양효실 옮김, 경성대학교출판부, 2008.11, 197쪽.

47) 스테판 G. 메스트로비치, 『탈감정사회』, 박형신 옮김, 한울, 2014.1, 27쪽.

48) 서용순,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랑, 결혼, 가족」, 새한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새한철학회, 제10권, 2011, 54쪽.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어려움이나 감정적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성숙한 인간인가를 성찰하는 사회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물질적인 결과에 따라 인정받는 사회가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자세 자체를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와 철학을 세울 필요가 있다.

V. 결론

청년 세대가 ‘삼포세대’로 변화한다면 어느 사회나 국가나 비극임은 분명하다. 젊은 청년의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경제적인 이유때문만이 아니다. 인간이 성장하면서 나와 다른 타자에 대해 호감이나 사랑을 느껴 만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가는 행위는, 개인의 자아를 확장하는 일이고 인간의 창조적인 힘이 발산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연애, 결혼, 출산은 인간이라면 일정한 시간에 생리학적인 것에 의해서든 한 사회의 문화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든 자연스러운 행위였기에 필연적인 것처럼 간주되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현재 연애, 결혼,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삼포형 청년’이 세대적인 특성을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언론이나 국가에서는 위험한 문제로 바라보지만, 정작 ‘삼포세대’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고 계산적인 선택이기도 함을 알 수 있었다.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유지비용도 많이 드는 오늘날, 자신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불안한 현실에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선택인 것처럼 여겨진다. 이러한 선택은 분명 안타깝고 슬픈 일임에 분명하다. 이러한 세대들이 경제적 불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회의 책무이기도 하고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포세대’의 또 다른 유형은 경제적 상황이 안 되어 포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 때문에 자발적으로 연애, 결혼,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세대도 있음이 분명하다. 소비가 만연하고 매력적인 상품화가 많은 물질지상주의 사회에서 연애, 결혼, 출산 과정에서 나와 타자와의 갈등이 초래되는 행위에 비용을 자신이 지불하고 싶지 않은 경제적인 개념이 강한 청년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감정적인 관계 맺기를 성숙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연애, 결혼, 출산을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된 사회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청년 세대들이 단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안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돈이 없어도 결혼한 기성세대는 자신들은 지금보다 더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도 결혼과 출산을 하며 살아왔다고 설득하지만, 청년 세대들은 이러한 논리에 설득당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서로 삶을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전 세대들은 결혼과 출산은 인륜지대사여서 필수로 생각해 왔지만, 지금 청년 세대들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며, 때로는 자신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가 오늘날 '삼포 세대'를 형성하는 요인이다.

이처럼 '삼포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개인적인 자의식이 강하여, 가족이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자신의 삶을 재규정하려고 하기보다는 번거로운 관계 상황을 회피하여 자유롭고 자족적인 삶을 지향하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 자의식이 강하면 자신의 처지에 맞게 생활하려는 자존감이 강하여 경제적, 감정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자신의 삶을 구성해 나가려고 한다. 더구나 전통적인 가족 윤리보다 현대 사회의 물질적인 소비가 주는 자족적인 쾌락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관계 맺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결혼과 출산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이나 국가는 '삼포세대'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경제적인 지원만 국가에서 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일정한 효과를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달라진 청년 세대들의 정서, 더 확대해서보면 달라진 국민들의 정서가 바뀌지 않는 한 결혼과 출산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삼포세대'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청년세대들의 상황을 다각적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었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도 자신의 처지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 세속화되는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청년들이 있었다. 박태원의 「소설가의 구보씨의 하루」(1939년)는 자전적 성격이 짙은 그 당시 청년 세대를 그린 소설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고학력자이고 자의식이 강하여 세속의 흐름에 맞추어 살아가지 못한다. 연애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하고 결혼 생활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결국 노모(老母)를 위해서 결혼을 하여 평범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세상에서 물러나지 않고 중심에 서려할 때 결혼과 출산이 방해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승자독식사회, 과도한 경쟁 사회, 의자를 차지하지 못할까봐 불안한 사회, 물질만능주의와 외모지상주의 사회, 소비 취향이 극대화된 사회, 감정 교환을 성숙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연애, 결혼, 출산은 위험하게 느껴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삼포세대’는 총체적인 우리 사회의 문제를 가장 강렬하게 드러내는 문제이며,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신자유주의 시스템의 세계화의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문제이다.

어느 시대보다 현대 사회는 반성적인 사유와 철학이 필요한 시대임은 분명하다. 물질이 인간보다 더 우월한 위치를 점령하고 있는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건강한 삶의 철학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 인간적이고 공동체적인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도 아직까지 연애, 결혼, 출산을 원하는 청년 세대들이 더 많다는 것에 주목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하고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본다.

참고문헌

- 고재학, 『절벽사회』, 21세기북스, 2013.9.
- 공개토론회, '돈 없어도 공부하고 청년층에 일자리 줘 빈곤 대물림 막아야', <경향신문>, 2011.6.20.
- 김대호 · 윤범기, 『결혼불능세대』, 필로소픽, 2012.4.
- 김태형, 『불안증폭사회』, 위즈덤하우스, 2010.11.
- 김형경, 『좋은 이별』, 사람풍경, 2012.5.
- 노명우, 『세상물정의 사회학』, 사계절, 2013.12.
- 박도순, 『질문지작성방법론』, 교육과학사, 2004.3.
- 백윤희, '그래, 연애도 돈으로 하는 거다-삼포세대의 우울한 고백', <오마이뉴스>, 2014.8.11.
- 서용순,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랑, 결혼, 가족」, 새한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새한철학회, 제10권, 2011.
- 엄기호, 『이것이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푸른숲, 2010.10.
- 이나미, 『한국사회와 그 적들』, 추수밭, 2013.3.
- 이나미, 『다음 인간 - 분석심리학자가 말하는 미래 인간의 모든 것』, 시공사, 2014.7.
- 최지은, '연애 권하는 사회', <연세춘추>, 제1679호, 2013.3.19.
- 한금윤, 『모던의 욕망 일상의 비애』, 프로네시스, 2006.11.
- 한금윤, 『현대사회의 성과 문화적 재현』, 소통, 2009.11.
- 한윤희,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 어크로스, 2013.4.
- 황민수, 『연애 · 결혼 ·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 상원, 2011.9.
- 현대경제 연구 인식조사팀, '한국사회 공동체 의식수준 낮다. 68%', <헤럴드경제>, 2014.7.30.
- EBS 다큐프라임 <남과 여 제3부 결혼 안하는 남자, 결혼 못하는 여자>, 2011.3.2.
- Adshade, Marina. *DOLLARS AND SEX*. Thinking Power Books. 2013, 『섹스와 연애의 경제학』, 김정희 옮김, 생각의 힘, 2013.12.
- Ayan, Steve. Hilfe, wir machen uns verruck!. Pendo Verlag : München 『심리학에 속지마라』, 손희주 옮김, 부키, 2014.2,

- Axelrod, Rise B., Cooper, Charles R.. *The ST. MARTIN'S GUIDE to Writing*. 9Edi. Bedford. USA : Boston. 2010.
- Beck, Ulrich. Beck-Gernsheim, Elizabeth. *Das ganz normale Chaos der Liebe*. Suhrkamp Frankfurt. 1990,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강수영 외 옮김, 새물결, 1999. 7.
- Bourdieu, Pierre. *La Distincion : Critique Sociale du Jugement*, 『구별짓기 :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上』, 최종철 옮김, 새물결, 1995.10.
- Butler, Judith. *Precarious Life*. Verso : London. 2004, 『불확실한 삶』, 양효실 옮김, 경성대학교출판부, 2008.11.
- Hakin, Catherine. *HONEY MONEY : The Power of Erotic Capital*. Penguin Books, 2011, 『매력자본』, 이현주 옮김, 민음사, 2013.2.
- Honneth, Axel. *KAMPF UM ANERKENNUNG*. Suhrkamp Verlag : Frankfurt. 1992, 『인정투쟁』, 문성훈 · 이현재 옮김, 사월의 책, 2011.8.
- Illouz, Eva. *Cold Intrinacies : Making of Emotional Capitalism*. 2007, 『감정자본주의』, 김정아 옮김, 돌베개, 2010.3,
- Illouz, Eva. *Warum Liebe weh tut : Eine soziologische Erklärung*. Suhrkamp Verlag : Berlin. 2011, 『사랑은 왜 아픈가』, 김희상 옮김, 돌베개, 2013.6.
- Illouz, Eva. *Consuming the Romantic Utopia : Love and the Culture Contradictions of Capitalism*. 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1997, 『낭만적 유토피아 소비하기』, 박형신 · 권오현 옮김, 이학사, 2014.4,
- Frank, Robert H., Cook, Philip J.. *THE WINNER -TAKE-ALL SOCIETY*. 1995, 『승자독식사회』, 권영경 · 김양미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2008.3.
- Mesrobian, Stjepan G. *The Postemotional Society*. SAGE Publications. 1997, 『탈감정사회』, 박형신 옮김, 한울, 2014.1,

<88만원 세대의 사랑과 결혼 문화 분석>에 대한 토론문

이현주 박사

(한세대 교양학부)

한금윤 교수님의 발표문,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한금윤 교수님은 오래 동안 대학생들의 성과 사랑 및 청년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오신 만큼, 이 발표문을 통해 배우는 바가 많았습니다. 최근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통해 논의를 풍부하게 강화해가고 있는 부분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논문은 청년 세대들이 단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것처럼 논의하는 언론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대학생들의 '자신의 연애관과 결혼관'에 대한 '자기서사' 쓰기 분석을 통해 삼포 세대의 연애, 결혼, 출산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논문은 '삼포세대'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다양한 원인들을 재조명하고, 이러한 원인들에 의해 드러나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문의 문제제기와 논의를 충실하게 따라 읽은 독자로서, 궁금한 부분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문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이 논문은 II장에서 '삼포 세대'를 논의하는 언론 보도의 논리와 문제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토론자도 '삼포세대'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삼포세대가 겪는 어려움을 경제적인 문제로 전면화하는 언론 보도 태도나 경제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국가나 정부의 위기 논리로만 대응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발표문의 논지에 깊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삼포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애, 결혼, 출산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만큼 인간관계 맺기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문화 창출이 필요하다는 발표문의 논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2. 개인주의 사회의 취향에 대한 타자적인 시선>이 <1. 경제적인

문제를 전면화하는 논리>와 <3. 국가 위기 논리의> 맹점 사이에 있어 논의 파악에 살짝 혼선이 생깁니다. 토론자가 과묵한 탓에 그런 혼선이 생긴 것일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해 교수님의 보충 설명을 좀 더 듣고자 합니다.

더불어 이 장에서는 “청년 세대들의 ‘나 홀로 즐기기’의 삶의 태도가 형성되게 된 우리 사회의 가치와 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십대 청년 세대들은 타인과의 관계 맺기에서 발생하는 감정적인 갈등을 불편해 하고 ‘나 홀로 즐기기’의 삶의 태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논문은 이런 양상들이 ‘삼포세대’의 연애, 결혼,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문의 논지를 다소 벗어나는 면이 있어서인지 충분히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논문은 4장 2절에서 이에 대해 어느 정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문은 “오늘날 청년 세대들은 전통적인 공동체에서 중시하는 인간의 과제를 수행하기보다는 자신의 일상적인 취미나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등으로 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다소 미진한 면이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좀 더 분석해 보신 바가 있는지, 발표자 선생님의 보충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 III장 <대학생들의 자기서사를 통해 본 연애관과 결혼관>은 지금-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들의 실제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를 풍성하게 하는 면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표본 집단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면도 다소 있습니다. 이는 지적을 위한 ‘지적질’일 수밖에 없어 문제 제기하기가 다소 저어되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 문화적 재현>을 듣는 학생들이 지닌 사회적·문화적 맥락(배경)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경우는 “대학생의 위치에서 사회적 성공과 자아실현을 위해서 연애와 결혼을 걸림돌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점이나 스펙을 위해 연애를 잠시 접고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아르바이트나 생존 문제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연애를 포기하고 있는 대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학생들이 무의식적으로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도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감정적인 내면의 문제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집단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자아존중감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채 대학생활을 수행해야 하는 대학생들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의식도 같은 잣대로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 <IV장 '삼포세대' 문제의 재조명>는 청년세대들이 내면 풍경과 연애 문화를 <1. 매력자본 사회의 상처받은 자아>와 <2. 소비문화에서 계산하는 청년들> 및 <3. 승자독식 사회에서 불안한 청년의 방어기제>로 고찰하고 있습니다. 이는 20~30대 청년층뿐만 아니라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의 내면 풍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3. 승자독식 사회에서 불안한 청년의 방어기제>는 우리 사회에 대한 예리한 진단을 보여주고 있어 공감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이 논문은 사회학자 캐서린 하킴의 논의를 빌어 “신체적 외모와 스타일인 매력인 돈은 경제적 자본, 교육과 배경인 문화 자본보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자본이 되었다.”고 전제하면서, “자유로운 연애가 가능한 시대이지만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외모 때문에 상처받은 청년들의 내면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경제적 지원으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다는 판단은 시대착오적일 수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 이 논의에 대해 토론자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다소 순환론적인 의문인데, 신체적 외모와 스타일인 매력 역시 경제적인 자본인 돈과 교육과 배경인 문화 자본에 전적으로 기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4. 이 논문은 “소비 사회의 취향을 중시하는 연애는 많이 하거나 못하거나 이원화되고 있다. 또한 호감과 사랑이라는 감정 위에 데이트 과정에서 주고받는 계산적인 경제의식이 우선시된다. 소비 자본주의가 제공하는 낭만화된 상품을 향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청년 세대에 많아짐에 따라, 연애와 결혼에서도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따지는 경우가 강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소비 사회에서 자신이 손해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우선시하는 계산적인 사람들에게는 갈등과 어려움이 존재하는 연애, 결혼, 출산이 그리 매력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피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삼포세대'의 문제를 경제적인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계산적인 인간관계를 현명한 자기 통제로 인정하는 사회의 분위기를 문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수님의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문 드립니다. “계산적인 인간관계를 현명한 자기 통제로 인정하는 사회의 분위기”를 어떤 방향으로 문제 삼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우문이지만, 청년 세대들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 오래 동안 고민해 오신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5. “어느 시대보다 요즘 청년 세대는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다. 그리하여 ‘인정투쟁’의 형식을 띠는 한국 사회에서 청년세대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성공할 때까지 미루거나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포기한다.”는 이 논문의 논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들은 경제적인 이유나 가문의 압박 등으로 연애 없는 결혼과 출산을 별 문제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청년 세대들은 연애 없는 결혼을 문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의료 기술의 발달 등으로 출산이 가져 오는 어려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 세대들보다 요즘 청년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이라는 ‘스펙’(?)에서 자유로운 세대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승자독식 사회에서 불안한 청년들의 방어기제를 내면화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 선생님의 보충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들의 연애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바가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발표문 덕분에 이 시대 청년 세대들의 연애, 결혼, 출산에 대한 의식과 문화에 대해 제대로 생각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우문에 현답을 기대하며, 두서없지만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Session 4

학생참여 프로그램
Student Participation Program

한국사회의 결혼과 출산

결혼은 필수인가?

결혼제도는 필요한가?

결혼 후 출산은 의무인가?

기혼자에게만 입양을 허용해야 하는가?

Marriage and Procreation in Korean Society

Is marriage a must?

Is marriage a necessary institution?

Do married couples have a duty to have children?

Should only married couples be allowed to adopt a child?



향후 10년 포럼 주제 및 내용

Themes of the Forum

| 향후 10년 포럼 주제 및 내용

1. 포럼 주제 선정의 기본 방향

-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이하 BWL Forum)의 주제 선정 형식은 중장기(10년)과 단기(1년) 형식을 통합한 '장·단기 통합형'으로 한다.
- 이 방식은 10년 주기와 1년 주기 형식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 10년 주기 형식은 향후 10년간의 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정해진 주제에 따라 포럼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제 선정 및 감사 초청에 있어서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
- 반면, 1년 주기 형식은 그 시기의 사회적 이슈를 반영할 수 있기에 시대적·사회적 요구와 필요에 민감한 주제를 선정할 수 있다.
- BWL Forum은 위의 두 가지 형식의 장점을 살려, 기본적으로는 10년 주기 형식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 하되, 강연 하나는 '열린 주제'(open theme)로 남겨두어 그 해의 이슈에 알맞은 주제로 선정한다.

2. 포럼 주제 선정 방식

- BWL Forum의 주제 선정 기본 방식은 다음과 같다.
- 10년 주기 포럼은 9년(3년+3년+3년)+1년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 9년 동안은 선정된 주제에 따라 포럼을 진행하고, 마지막 해에는 9년 동안 개최되었던 포럼을 정리하고, 새로운 10년 주기 포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한다.
- 포럼 주제를 선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 대주제 선정 → 포럼방향 설정/주제 범주 선정 → 주제(어) 선정 → 발표 주제 선정

1) 대주제 선정

- 'BWL Forum 연구위원회'에서 포럼의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10년을 주기로 포럼의 대주제를 선정한다.
- 이 대주제는 향후 10년 동안 포럼을 이끄는 '키워드'로서의 역할을 한다.

2) 포럼방향 설정/주제 범주 선정

(1) 포럼방향 설정

- 9년을 세 부분(3년+3년+3년)으로 구별하여 각 부분의 포럼방향을 정한다.
- 포럼방향은 대주제와 관련된 원칙적 담론(3년), 현실 상황(3년), 미래를 향한 노력(3년)을 기본틀로 삼는다. 예를 들면, 대주제를 '공동체'로 정했을 때, 첫 3년은 공동체와 관련된 원칙적 담론들을 다루고, 두 번째 3년은 공동체의 현실적인 모습들을, 마지막 3년은 공동체의 미래적 모습을 다루는 형식으로 방향을 설정 하는 것이다.



| Themes of the Forum

1. Basic Direction in the Selection of the Theme

-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BWL Forum) takes a unified approach in the selection of the forum theme by combining the long- and short- term themes.
- This approach aims to emphasize the merits of both the 1-year and 10-year cycle theme selection approach.
- The 10-year cycle theme selection approach allows us to prepare for the forum every year with a pre-set theme, thus providing stability in selecting forum themes and inviting speakers accordingly.
- The 1-year cycle theme selection approach enables us to select a theme that is sensitive to pending social issues and the needs of the given period. Through this selection process, BWL Forum will be able to reflect upon society's most prevalent demands.
- The BWL Forum will follow a theme selected under the 10-year cycle theme selection approach, and one of the lectures will be set aside for "an open topic" to reflect upon the pending issue of the given year.

2. Forum Theme Selection System

- The BWL Forum takes the following approaches in selecting its themes.
- The 10-year cycle theme selection approach consists of a combination of the 9-year cycle (three years + three years + three years) and the 1-year cycle.
- For the first nine years, the forum will proceed with the selected themes. In the tenth year, the forum will be devoted to reviewing the previous themes covered in the last nine years and preparing for the next 10-year period.
- The theme of the forum is selected as follows: Select a general theme → Set the direction and guidelines for the forum / Set the scope of the theme category → Select a theme (key words) → Select a presentation top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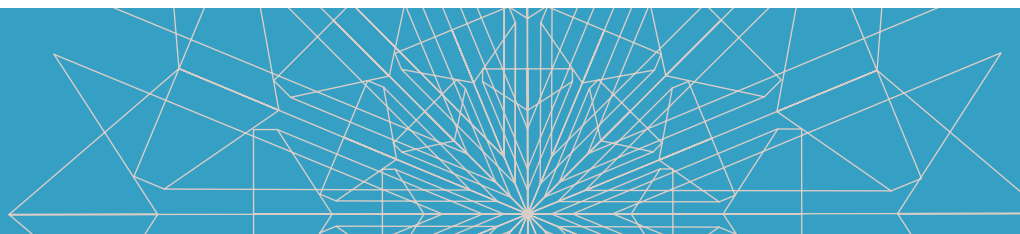
1) Selection of a General Theme

- The BWL Forum Research Committee selects a general theme under the 10-year cycle selection system.
- The selected general theme serves as the keyword that leads and guides the forum for the next 10 years.

2) Setting the Direction of the Forum / The Scope of the Theme Category

(1) Setting the Direction of the Forum

- The first nine years will be divided into three segments (three years + three years + three years). Each segment will be assigned a direction.
- The direction of the forum will be set within the framework of principal topics related to the general theme (for three years), specific issues (for three years), and efforts for the future (for three years).
For example :



| 향후 10년 포럼 주제 및 내용

(2) 주제 범주 설정

- 원칙(3년), 현실(3년), 미래(3년)의 방향과는 별도로, 대주제에 속하는 하위 범주를 3가지 선정한다. 예를 들어 대주제를 '공동체'로 정했을 때,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자연 공동체'는 가능한 하위 범주가 될 수 있다.
- 주제 범주를 세 가지로 정하는 이유는 원칙, 현실, 미래의 방향이 각각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3) 포럼방향과 주제 범주의 연결

- 포럼방향의 기본틀인 원칙(3년), 현실(3년), 미래(3년)에는 각각 세 가지 주제 범주가 배치된다.
- 예를 들어 포럼방향을 '원칙', '현실', '미래'로 설정하였고, 주제 범주를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자연 공동체'로 선정하였다고 할 때, 포럼방향을 '원칙'으로 설정한 첫 해에는 주제 범주의 '가정 공동체'를, 둘째 해에는 '사회 공동체'를, 셋째 해에는 '자연 공동체'를 배치하는 방식이다. 마찬가지로 포럼 방향을 '현실'로 설정한 3년과 '미래'로 설정한 3년도 '가정 공동체'(첫 해), '사회 공동체'(둘째 해), '자연 공동체'(셋째 해)로 배치한다.
- 이 두 가지(세 가지 포럼 방향, 세 가지 주제 범주)는 매년 포럼의 주제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3) 주제(어) 선정

- 포럼의 방향과 주제 범주에 맞춰 주제(어)를 선정한다.

4) 발표 주제 선정

- 포럼 발표자가 포럼의 대주제, 포럼방향, 주제 범주 및 당해 연도 주제(어)에 맞는 발표 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5) 열린 주제

- 열린 주제는 'BWL Forum 운영위원회'에서 당해 연도 포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정하도록 한다. 그 해의 국제 사회적 이슈 중에서 정하는 방식이나, 포럼 준비단계에서 참가자들(학생, 교수, 교직원)의 투표를 통해 정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3. '제1차 10년 주기 BWL Forum' 주제 (2011~2020년) (안)

- ◆ 대주제: 인간과 공동체
- ◆ 주제 범주: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자연 공동체



| Themes of the Forum

- o If the general theme is "community," the first three years will be devoted to dealing with the principal topics related to "community."
- o The next three years will be devoted to the discussions of specific issues prevalent in various communities.
- o The last three years, will be devoted to efforts for the future of the communities.

(2) Setting the Scope of the Theme Category

- In addition to the basic outline sketched above – principal topics (three years), specific issues (three years), and the future (three years), - three categories will be established related to the general theme. For example, if the general theme is "community," such categories as "family," "social communities," or "natural communities" can be selected as possible theme categories.
- The scope of the theme category is set to be three categories so that they match the basic directions of the forum – principal topics (three years), specific issues (three years), and the future (three years).

(3) How to Connect the Direction of the Forum to the Scope of Theme Category

- The forum will take three different directions during the 3-year span – principal topics (three years), specific issues (three years), and the future (three years).
- For instance, if the forum takes the direction of "principal topics" for the first 3-year span, and the scope of the theme category is set to be "family," "social community," or "natural community," then the first-year forum will deal with "family," the second-year forum, "social communities," and the third- year forum, "natural communities." If the forum takes the direction of "specific issues" or "the future" for the proceeding 3-year spans, the same sequence of theme categories – family, social communi-ties, and natural communities- will be covered.
- These two elements (three forum directions/ three theme categories) become the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a theme of every forum.

3) Selection of Top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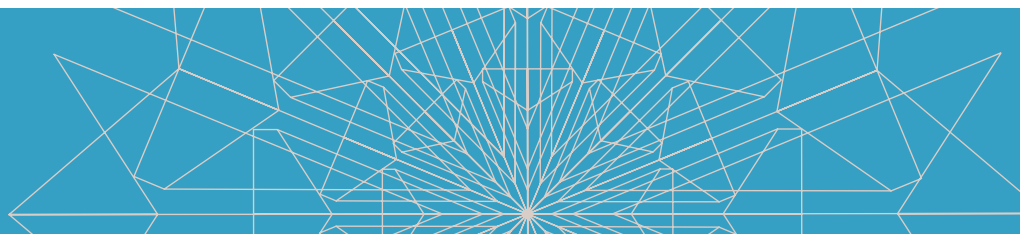
- Topics are decided in accordance with the forum direction and the scope of the theme category.

4) Selection of the Presentation Topic

- The forum speakers should be given sufficient information on the general theme, the direction of the forum, the scope of the theme category and the keywords of the open topic of the given year so that they have ample time to prepare an appropriate presentation topic.

5) Open Topics

- The members of the 'BWL Forum Organizing Committee,' decide on the open topic of the given year while planning the forum. A variety of methods are used to select the year's open topic; one of the international pending issues can be selected by the committee, or a different topic can be chosen through a vote by the participants (students, professors, and staff members) of the forum.



향후 10년 포럼 주제 및 내용

1) 제1~9차 BWL Forum

차수	포럼방향	주제범주	주제(어)	관련 주제어	열린 주제
제1차	공동체의 형성(원칙)	가정 공동체(I)	가톨릭 인본주의와 가족/만남에서 공동체까지	포럼 취지, 인본주의/만남, 대화, 관계, 공동체	포럼이 개최되는 해의 국제 사회적 이슈 중에서 선정
제2차		사회 공동체(II)	배려와 정의	배려, 정의, 형평, 진실성	
제3차		자연 공동체(III)	생명: 존재의 시작	생명, 창조	
제4차	공동체의 발전(현재)	가정 공동체(II)	결혼과 출산	사랑(인격적 일치), 결혼, 출산, 불신, 이혼	
제5차		사회 공동체(II)	참여와 나눔	참여, 나눔, 공동선, 지구촌, 열린 공동체, 기아, 양극화	
제6차		자연 공동체(II)	존재와 성장	기후, 물, 자원, 고갈, 오염, 재해, 변화	
제7차	공동체와 책임(미래)	가정 공동체(III)	신뢰와 용서	용서, 화해, 존중, 신뢰, 인격, 헌신	
제8차		사회 공동체(III)	자유와 책임	자유이지, 의무, (공동)책임, 책무	
제9차		자연 공동체(III)	보존과 미래	보존, 평화, 책임 있는 공동체	

- '인간과 공동체'라는 대주제를 갖는 BWL Forum의 첫 번째 10년의 포럼방향은 '공동체의 형성', '공동체의 발전', '공동체와 책임'이다.
- '공동체의 형성'은 공동체의 시작 혹은 형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가정(제1차 포럼), 사회(제2차 포럼), 자연(제3차 포럼)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며, 공동체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숙고하는 포럼이다.
- '공동체의 발전'은 제4차~제6차까지의 포럼방향으로, 가정, 사회, 자연 공동체의 현실 상황과 문제점, 현실 속에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는 부분이다.
- '공동체와 책임'은 제7차~제9차까지의 포럼방향으로, 가정, 사회, 자연 공동체의 미래를 제시하는 부분이다. 이 포럼에서는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실천해야 할 노력과 책임 등을 제시될 것이다.
- 관련 주제어는 주제(어)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한 주제들로서, 주제(어)가 제시하는 전반적인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첨부하였다.

Themes of the Forum

3. The Themes of the First 10-year span BWL Forum (2011~2020) (Proposal)

- ◆ General Theme : Human Being and Community
- ◆ Theme Categories : Family, Social and Natural Communities

1) The 1st~9th BWL Forum

Year	Direction of Forum	Theme category	Topics	Related Keywords	Open Topics
1	Formation of Community (Principles)	Family(I)	Catholic Humanism and Family/ From Meeting Someone to Forming of a Community	Purpose of the forum, humanism, meeting someone, dialogue, relationship and community	One of the pending international issues raised during the year of the forum
2		Social Communities(I)	Compassion and Justice	being considerate toward others, justice, fairness and truthfulness	
3		Natural Communities(I)	life: beginning of beings	life, creation	
4	Development of Community (Present)	Family(II)	Marriage and procreation	love (humanistic unity), marriage, procreation, distrust, and divorce	
5		Social Communities(II)	Participation and sharing	participation, sharing, communalgood, global community, open community, starvation and polarization	
6		Natural Communities(II)	existence and growth	climate, water, natural resources, exhaustion, pollution, natural disasters, and changes	
7	Community and Responsibility (Future)	Family(III)	trust and forgiveness	forgiveness, reconciliation, respect, trust, personality, devotion	
8		Social Communities(III)	freedom and responsibility	free will, duty, (collective)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9		Natural Communities(III)	Conservation and future	Conservation, peace, responsible community	

- The BWL Forum will take place under the general theme of "Human being and Community" and the directions of the forum will be "Formation of Community," "Development of Community", and "Community and Responsibility" for the first ten years.
- The direction for the first, second and third forums will be "Formation of Community," which will deal with the beginning or forming of a community. We will discuss how communities such as family (first year), social communities (second year), and natural communities (third year) are formed and what is needed to form a community.
- The direction for the fourth, fifth, and sixth forums will be "Development of Community." We will look into examples of today's family, society, and nature, and discuss the pending issues and problems they face. We will also examine how these communities develop in reality.
- The direction for the seventh, eighth, and ninth forums will be "Community and Responsibility." These three forums aim to envision the future of family, society, and nature. These forums will make concrete suggestions concerning the effort required and responsibility we have to create better communities in the future.
- Related keywords can be used to replace given topics. They are added to further explain the general direction set by each topic.

| 향후 10년 포럼 주제 및 내용

(1) 제1차 BWL Forum

- 제1차 BWL Forum은 총 2막(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2막 구성은 1차 포럼 이후 10차 포럼 때도 활용한다.

① 제1막

- 주제 : 가톨릭 인본주의
- 이덕효 신부, Jenkins 총장의 주제 강연
- 발표주제 1 : Bernard Lee의 인본주의 정신(이덕효 신부)
- 발표주제 2 : 가톨릭 휴머니즘과 가톨릭 대학(Jenkins 총장)

② 제2막

- 주제 : 만남에서 공동체까지
- 제1차 포럼의 주제인 '만남에서 공동체까지'에 대한 주제 강연

2) 제10차 BWL Forum

- 10차 포럼은 총 2막(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전일제 포럼의 경우, 오전 시간은 1막, 오후 시간은 2막이 될 수 있다.
- 제1막은 9차까지의 '제1차 10년 주기 포럼'을 총정리 하는 시간이다. 제2막은 '제2차 10년 주기 포럼'의 대주제를 개관해 주는 시간이다.

(1) 제1막

- 주제 : 지구 공동체
- 관련 주제어 : 화해와 평화
- 이 부분의 '제1차 10년 주기 BWL Forum'의 주제는 '지구 공동체'이다. 주제에서 암시하는 대로, 10차 포럼에서는 9년간 살펴보았던 '가정', '사회', '자연' 공동체를 통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며 정리하는 시간으로 활용한다.
- '화해와 평화'는 하나의 가능한 주제어이다. 화해는 많은 이들이 원하는 이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이다. 서로 다른 사회적 신분 계층에서 서로 다른 신념, 가치, 이상, 종교, 이데올로기 등을 가진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 사람과 자연 사이의 화해, 국가 간의 화해 등이 선행되어야 진정한 평화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또한 화해는 이전 포럼에서 살펴본 주제(어)들과도 연관된다. 진실한 화해에 이르기 위해서는 '만나서' '대화'에 '참여' 해야 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 '신뢰'의 마음이 있어야 하며, 서로를 '용서'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를 향해 '자유'롭지만 '책임'있는 방식으로 현재의 것을 '보존'하고 가진 것을 '나눔' 때 현실화 할 수 있는 실천적인 덕목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제2막

- 제2막은 '제2차 10년 주기 BWL Forum'의 서막 역할을 한다.
- 이 시간은 '제2차 10년 주기 포럼'을 홍보하는 시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 주제(어)는 '제2차 10년 주기 BWL Forum'이 확정된 후 정하도록 한다.

| Themes of the Forum

(1) The 1st BWL Forum

- The first BWL Forum will consist of two sessions. The tenth forum will also follow the two-session system.

① The First Session

- Theme : Catholic Humanism

- Speakers : Rev. Paul D. Lee, and Archbishop Paul S. Coakley

- Topic 1 : Bernard Lee's Humanism Spirit (Rev. Paul D. Lee)

- Topic 2 : Catholic Humanism and Catholic Universities (Archbishop Paul S. Coakley)

② The 2nd Session

- Theme : From meeting someone to forming a community

- Keynote speech on "From Meeting Someone to Forming of a Community," the theme of the 1st forum.

2) The Tenth BWL Forum

- The tenth forum will also consist of two sessions. If organized as a whole-day program, the first session will be held in the morning and the second session in the afternoon.

- The first session of the tenth forum will be devoted to summarizing the previous nine forum themes that were covered under the first 10-year cycle forum system. The second session will be devoted to giving a general overview of the themes covered in the second 10-year cycle forum system.

(1) The First Session

- General theme: The Global Community

- Related Keywords: Reconciliation and Peace

- The general theme of the 10th BWL Forum will be "Global Community." As implied in the theme, the 10th forum aims to provide us with an integrative view of all the themes – "family," "society" and "nature" - discussed in the previous 9 years.

- "Reconciliation and Peace" is one possible keyword for the forum. Reconciliation is a practical path to peace. Only through genuine efforts of reconciliation amongst people of different social statuses, different beliefs, different values, different ideals, different religions, and different ideologies, between humankind and nature, and amongst nations can we achieve real peace in this world.

- Furthermore, "reconciliation" is related to the themes of the previous forums. In order to achieve genuine reconciliation, we must first "meet" and "participate in" dialogues. We must approach others with "thoughtfulness," "respect," and "trust." We must make efforts to "forgive" one another. We also have to make efforts to create a better "future" together in a free, but responsible, atmosphere by preserving what we are and sharing what we have.

(2) The Second Session

- The second session will serve as a prelude to the second 10-year cycle BWL Forum.

- The session will also be devoted to articulating the themes of the upcoming second 10-year cycle BWL Forum.

- The topics will be chosen when the schedule for the second 10-year cycle forum is decided upon.

제4회 Bernard Wonkil Lee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

The 4th Bernard Wonkil Lee
International Forum for Catholic Humanism

발행인 「제4회 Bernard Wonkil Lee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 운영위원회

발행일 2014년 10월 2일

운영위원장 조 정 환 (ELP학부대학장)

운영위원 심 영 숙 (영어영미문화전공 교수)

정 윤 경 (심리학전공 교수)

구 본 만 (ELP학부대학 교수)

최 선 경 (ELP학부대학 교수)

박 상 민 (ELP학부대학 교수)

김 남 희 (ELP학부대학 교수)

김 상 수 (총무팀장)

권 정 희 (국제교류팀장)

남 미 애 (대외협력팀장)

김 두 겸 (ELP학부대학운영팀장)

이 지 연 (ELP학부대학운영팀)

진 행 제4회 Bernard Wonkil Lee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 운영위원회

디 자 인 양승주

제 작 한기획

문 의 제4회 Bernard Wonkil Lee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 운영위원회

Tel. +82_2_2164_4931